금주일언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로운 말도 이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법구경·화향품 219절〉

東大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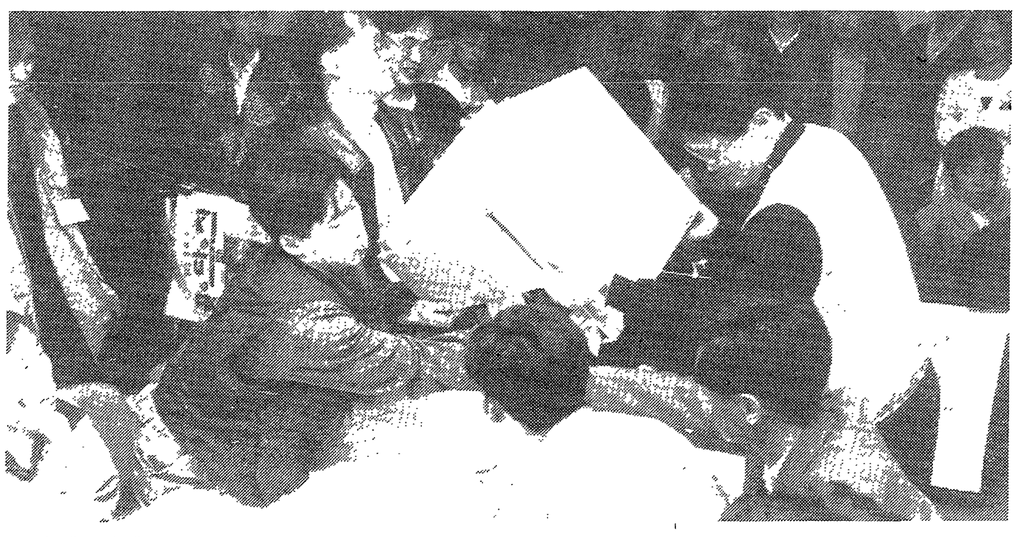
발행인 민병천 / 편집인 겸 주간 심익섭 / 부주간 이만성 / 편집국장 이의석 / 편집장 이의석 / 총

펴낸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62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 11월16일 (수요일) 1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에 안진우·곽유찬조 당선

총여 정·부회장엔 김나영·이윤수조



◇제27대 총학생회장으로 안진우·곽유찬조가 2천8백6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학생회관 앞 개표장면.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안진우·곽유찬조가 당선됐다.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된 개표 결과, 총 유권자 8천6백36명 중에 4천6백66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1지역(법과대, 경상대, 사과대)은 총유권자 1천9백58명중 1천55명이 투표하여 53.9%의 투표율을 보였다. 안진우·곽유찬조는 4백31표를 얻고, 이영재·이상환조는 5백86표를 얻었으며 무효는 38표로 나타났다.

2지역(문과대, 이과대)은 총유권자 1천5백13명중 8백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안·곽조가 4백76표를 얻고, 이·이조가 2백97표를 얻었으며 33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3지역(사범대)은 총유권자 9백68명중 6백87명이 투표했으며 안·곽조를 지지한 표가 5백9표, 이·이조를 지지한 표가 1백59표, 무효가 18표로 집계됐다.

4지역(공과대)은 총유권자 1천9백50명중 8백73명이 투표했다. 5백42명이 안·곽조를 지지하고 3백14명이 이·이조를 지지했다. 무효표는 17표로 나타났다.

5지역(불교대, 예술대)은 6백34명의 총유권자중 3백71명이 투표했고 안·곽조는 2백30표를 얻었으며 이·이조는 1백33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11표로 집계됐다.

6지역(농과대)은 총유권자 4백62명중 2백5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안·곽조가 1백59표, 이·이조가 86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2표가 나왔다.

7지역(야간강좌)은 총유권자 1천1백51명중 6백17명이 투표했다. 5백15명이 안·곽조를, 1백95명 이·이조를 지지했고, 7표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로써 안·곽조를 2천8백62명이 지지했고, 이·이조를 1천6백70명이 지지한 것으로 총집계됐다.

제10대 총여학생회 후보자로 단독출마한 김나영·이윤수조는 2천2백49명의 총유권자중 1천4백31명이 참여한 가운데 1천2백66명의 찬성지지를 받고 1백43표의 반대가 나왔다. 무효는 22표로 집계됐다.

총장선거 내년1월15일 확정

2차 선관위 모임서

교수회(회장=이순용·법학)는 제2차 총장후보선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회의를 가지고 총장선거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했다.

총장입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이며 6일 확정공고를 내고, 선거일은 1월15일(일)로 결정했다.

선거관리위원장 김진철교수는 "총장선출이 학교행정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며 "차기총장을 너무 이르게 선출했을때 생길수 있는 행정상의 공백이나 이완을 없애기 위해 선거일을 내년 1월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 "총장임기만료일(95년 2월28일)로부터 한달전까지 차기총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선거시행세칙이 올바르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일정은 95학년도 대학입시업무일정과 겹친것과 더불어 방학중의 선거라는 점이 직원·학생등 다른 제주체들과의 논란의 소지를 만들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측은 "대학입시와 총장선출은 커다란 관심사이므로 직원·학생측의 참여는 방학중이라 해도 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체들의 의견수렴의 장이 될수 있는 후보자 공청회, 유세일정은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95교수초빙 접수마감

다음주부터 학과심사

총 79명을 충원할 예정인 '95학년도 교수초빙 접수 마감이 오늘(16일) 서울·경주 각 캠퍼스별로 마감된다.

서울 38명, 경주 41명 초빙예정인 이번 신규교원모집은 접수가 끝나는대로 서류분류를 거쳐 다음주부터 학과심사에 들어가게 된다.

국가고시및 공직설명회

계산고시학사(사감=연기영·법학)는 국가고시및 공직 설명회를 오는 17일(L301), 18일(L501) 이틀동안 가질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 △격려사=백봉흠(법학)교수 △물권가족법=한봉희(법학)교수 △회사법=박영길(법학)교수 △국제법·국제경제법=백봉흠교수 △형법=손해목(법학)교수 △행정법=이순용(법학)교수

18일 △형사소송법=이석연(변호사) △헌법=한상범(법학)교수 △민총·채권=연기영(법학)교수 △행정학=이형우(행정학)교수 △공직설명=강원국(총무처 인사관리관) △어음수표·해상보험법=이형규(한양대)교수 △합격생간담회=문한성(변호사), 김후곤(사법연수생), 김영현·설세훈(93행시최종합격)

또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고시안내책자를 오는 12월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아비달마…'한글번역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아비달마대비바사론' 한글 번역서 제1권을 출간했다.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沙論, K.952, T.1545)은 '아비달마' 문헌에 대해 다수 제작되어온 주석서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서론(제1권), 잡온(2-45권), 결온(46-92권), 지온(93-111권), 업온(112-126권), 대종온(127-141권), 근온(142-156권), 정온(157-186권), 견온(187-200권) 총2백권으로 현장에 의해 한역돼 있는데 그중 제1권인 서론이 한글번역되어 출간된 것이다.

슈파이어대 전총장 방문

본교 자매결연 대학인 독일국립 슈파이어대의 전 총장 빌리 블뤼멜 교수가 국제부 초청으로 지난 14일 본교를 방문 민병천(정치외교학)총장과 양교교류협력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슈파이어대측의 자매결연 책임교수인 블뤼멜교수는 구체적 교류의지를 피력하고 교류방법과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본교 국제화교류위원인 조희영(경영학)경영대학원장은 형식보다는 실질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유학생 선발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자매결연 대학인 중국 청화대학과 남경대학 유학생을 내년 3월에 선발할 예정이다.

본교에 지난해 7월달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 두 대학은 중국의 대학중 3위이내에 드는 저명한 대학으로 알려져 있다.

각각 2명씩을 뽑을 선발 시험과목은 중국어(회화, 필기), 영어, 면접등이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9월에 응시 대학으로 가게 된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선발시기, 시험과목, 학점인정여부 등 세부적인 내용은 곧 결정이 날 것"이라 밝히고 "많은 학생들이 응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국제부는 중국 서한의 서북대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이다.

보 리 수

안민가(安民歌)

신라 향가(鄕歌) 가운데 충담(忠淡) 스님이 불렀던 안민가(安民歌)에 보면 임금과 신하는 물론 백성들까지 모두가 각자 맡은바 직분의 책임자 답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노래에서 강조되는 '답게'라는 용어는 위정자들은 국민에게 권위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愛民)하고 정직한 정치(善政)를 하여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며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국가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모두를 이 '답게'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 몽고병의 침입으로 국민들의 정신적 의지처인 황룡사(경주) 9층탑과 부인사(팔공산)에 봉안된 대장경이 오랑캐들에 의해 불타버렸다.

당시 고종임금은 그 책임을 통감하고 대장경을 다시 만들겠다는 군신상하기고문(君臣上下祈告文)을 지어 부처님과 모든 하늘에 참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맹서를 하였다.

요즈음 국내외의 혼란스러운 정치분야의 문제는 제외 하고 우선 사회의 윤리 도덕성 문제로 모두가 마음들이 편안하지 않은 것 만은 사실이다. 우리 주위에 빈번히 일어나는 패륜적으로 흉폭한 사건사고 하며 배금(拜金)과 물질만능에 타락한 이기적인 성향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의 사건들은 모두가 자기답게 살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부덕(不德)의 표현으로 대 국민 사과를 하였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는 국민의식에 대한 자정(自淨)의 노력으로 '남의 말 좋게 합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맑고 향기롭게'등의 사회도덕과 자연 환경에까지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임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그 등기에 영향을 끼친 책임을 회피하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위정자나 상하 관료내지 종교계 교육계등의 모든 지도자가 있다면 이는 이미 지도자가 아니다.

시대와 역사를 통하여 볼때 이 '답게' 사는 운동은 물의 흐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전개 되었다.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면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면 백성이 백성답지 못할것은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윗사람은 아래사람의 본(모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다"라는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의 말이 나온 것이다. 누가 답게 사는가를 묻기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묻고 서로가 답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온 나라가 편안하게 되는 길일 것이다.

崔法慧

국고보조금 13억여원 지원

교육부예산 삭감속 본교 지원금 증가

'94년 사립대학 시설·설비 확충 재정지원 국고보조금으로 본교에 13억1천3백28만6천원이 지난 8일 송금됐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기자재구입비=4억8천3백8십만8천원 △도서구입비=2억8천2백70만원 △자구노력지원비=5억4천6백77만8천원으로 이중 2억9천2백만원이 경주캠퍼스에 보내지게 된다.

국고보조금은 사학재정 완화와 대학발전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컴퓨터·도서·실험기구 등 순수 기자재 구입에만 쓰이게 되는데 올해 본교에 지원된 금액은 작년 11억9천7백56만9천원보다 10%증가된 금액이다.

예산과의 한 관계자는 "각 대학을 평가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국고보조금이 책정된다"며 "작년보다 교육부예산이 1백억이 삭감된 상태에서 본교 지원금이 증가된 것이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국고보조금은 오는 12월안으로 각 단위별로 집행에 쓰여질 예정이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02)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발표
1995년 1월1이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동 대 신 문 사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십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770-2057

첫 대학생활을 마감하며
충(忠) 서(恕)실천을 다짐

근 1여년동안의 대학생활에서 느낀것 중 대부분이 어떤 모임의 대표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었다. 한 문학과 1학기 과대표. 교육방송국 13기 기장.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생활이 그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기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된다.

물론, 그 입장이 그리 마음편한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첫 대학생활을 거의 마감하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테두리에서 생활하다보니, 흔히 말하는 욕도 많이 들었지만, 주어진 일을 성취시키는 역량뿐만 아니라, 성취후에 오는 비판을 얼마만큼 잘 소화해낼 수 있는가 하는 능력도 어느정도 얻었다는 점에서 흐뭇하다.

비록,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은 1년이었지만, 내가 잃은 만큼 다른 사람은 얻었을 것이고, 내가 얻은 만큼 다른 사람또한 잃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디서든 자기자신의 최선을 다 할 줄 아는 충(忠)과, 자기자신에게 다하는 것처럼 다른이에게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서(恕)를 실천할 수 있는 지성인을 꿈꾸며 생활할 것이다.

태 병 원
〈인문대 한문학과〉

연 가

양 승 원
(사회대 사회학과)

그대,
내 가슴을 보고 싶나요?
양쪽에서 도톰이 솟아오른
내 가슴을 만지고 싶나요?

좋아요, 그대
손을 드세요
조용히 내 가슴에
올려놓아요
물컹물컹 뽀얀
젖살 사이로 흐르는
검붉은 물줄기를
나의 눈물샘까지도
그대,
만져줄 수 있어야 해요.
젖가슴의 보드라움 만큼
축축한 눈물 줄기도
그대,
보듬어 주어야 해요.

그대, 양 손 적셔
날 만질 수 있나요?
그대 손 물들여, 검붉게 물들여
날 안을 수 있나요?

자, 손을 내밀어봐요.
그래.

난 웃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동국인 — 교육학과 일꾼들

하루주점 수익금 학교에 기부한 예비선생님

"한것이 뭐 있다고 인터뷰까지…." 이창재 (교육3·교육학과 학생회장)군이 처음으로 한 말이다.

이창재군은 지난 3일 과 하루주점의 수익금 50만원을 개교 1백주년기념사업본부 (본부장= 박동기)에 기증했다.

"저는 한일이 없어요. 예년에도 수익금을 재활원 방문, 전교조후원금등에 보탰습니다. 학교에 수익금을 기부한것도 별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데…"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는 이창재군.

그는 수익금의 용도에조차 관심이 없는 학우들의 방관적 태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며 이른바 '신세대'학생을 이렇게 평한다.

"X세대, 신세대란 용어는 정권의 이데올로기 전략인것 같아요. 예전에도 개성표출은 있었는데 언론이 너무 부각시키는 것같습니다."

그는 올1년간 학생회의 주인은 학생이란 신조를 가지고 일해왔다고 한다. "지금은 학생회 침체기라 불리지만 학생회 일꾼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학생들의 성원과 관심을 바래야할 것 같습니다"라며 학생회 발전방안을 말한다.

재단의 부실한 지원으로 점점 떨어지는 우리학교의 입지를 개탄하며 "학교발전은 학교측이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번에 기금을 보탠것도 학생의 의지를 보여 학교를 채찍질하고자 한 의도였습니다."라고 밝히는 이창재군.

그는 소시민으로 살기는 싫다고 한다. 여러 사회문제에 좌시하지 않는, 그리고 해결에 고민하는 이른바 민주시민이 되고 싶다고.

그와 얘기하면서 진정한 겸손에 대해 다시 한번 느낄수 있었다.

(勳)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기성언론 한계 뛰어넘길

지난호(1161호) 동대신문 1면 머릿기사에는 "국문과 학생 3천배 참회"라는 제목하에 기사가 실렸다.

지난 31일 사건을 계기로 기성언론에서는 요즘 발생하는 사건의 연결로 취급하면서 대학생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었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사건고발식의 기성언론의 한계를 동대신문은 진상규명을 과정으로 관련자와의 인터뷰등을 통해 과감히 뛰어 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진상규명속에서 관련학생들에게 적절한 처벌을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7면 학내보도면에 눈에 띠는 사진이 있는데 교육학과 학생회에서 하루주점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에 전달하는 장면인데 이는 동대중흥을 말로만 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동대발전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용기(?)있는 활동을 한 교육학과 학우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남 궁 원
〈농과대 농업경제학과·본사모니터〉

'대학순위보도와…'신중을

지지난주 1159호 제3면을 보면 '대학순위 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는 중앙일보의 보도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 당국의 대책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고 했고 그 첫째로 본지 1160호에는 본교의 준비 상황을 학교측으로 부터 들어 본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실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주 기사의 내용에서도 중앙일보의 내용을 분석만 했지 학교측의 준비 상황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제목에 '기획시리즈'라고 토를 달아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번호 7면 기획시리즈는 1158호에 실렸던 것이 오랜만에 실렸으나 '원효관에서 자연관까지'라는 제목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끝으로 8면 문화면에 있는 메아리는 너무나 은유적인 표현과 일괄성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사의 주제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신뢰성 있는 동대 신문으로 거듭나 주기를 바란다.

김 성 원
〈불문대 불교학과 본사모니터〉

동/악/광/장

목멱골

■선무부 창립40주년을 왕으로 기뻐하며 엄청난 발전을 이룩하길 …

— 76기 명희랑 은실이

■호경아 준형아 정심아 정혜야 생일 축하해 특히 오늘 생일 맞은 준형이 정심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수교과 이쁜 혜원·명자·멋진혁제가

■사랑하는 27기 김상진선배님과 29기 리용만선배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 K·U·S·A

■한국 대학생 패러글라이딩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바람소리'후배들, 축하합니다. 수고했읍니다.

— 바람소리2기

■불교학생회 동문 체육대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많이 하셨어요

— 회장

■전자공학과 동문 체육대회가 있었읍니다. 참석해주신 많은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94 재훈·정훈

■사랑스런 동기 봉금이와 현주의 마지막 방송을 축하(?)하고 3년 동안 수고했다.

— 이쁜친구가

■정치외교학과 모의국회를 무사히 마쳐서 기쁘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94 정외일동

■젊은 새이웃 일일호프 성대히 치뤄내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요

— 교육 92

■11월21일은 손사 기초반 수료식이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려요 많이 구경오셔서 '삐약 삐약'기초반 수화공연을 꼭 보세요.

— 얀이·문수…그외 9기

■가교94가 M·T간다. 우리 한번 꽈악 뭉쳐버릴까?

— 가교 94 악동대표

■국문과 힘내세요

— 동악의 한학우

■11월19일 축 '경제인의밤' 명동 로열호텔 에메랄드홀 5시

■11월17일-19일 동악의 유일한 사진 동아리 동그라미에서 정기전시회를 합니다. 명동 유네스코 10층 갤러리. 다음주엔 학생회관에서. 많이 와주…

— 회장

온방골

본 연구회에서는 94년 기획조사·통계활동으로 경주캠퍼스를 중심으로한 동대재학생들의 소비형태 및 규모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활동의 자료를 보고서형식에서 논문형식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서울캠퍼스와의 비교작업의 필요성을 느껴 도움을 구합니다.

본 연구회와 비슷한 통계활동 자료가 있으신 학회나 연구회가 계시면 경주캠 경제학과 장실(0561)-(770-2311)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 경제 사회연구회 회장

■시간이 지나겠지만 D·K·B·S의 94학년도 2학기 종료방송을 축하해 주세요. 그리고 대학 방송인으로서 몸도 건강하라구 전해주세요.

— XX

■미래진보! 희망의 광장!

제9대 자치대학의 불꽃, 인문과학대 학생회 건설을 무지무지 축하드립니다.

— 고미사 소영

■동국음악회 제28회 정기 가을콘서크에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나의 동기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더 풍요로운 내년을 기대합니다.

— 14기 수진·연희

■8기 선배님 1년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9기 새로운 임원들 내년에 열심히 해라. 나도 도와줄께.

— DUCO

■15日은 서울상경이 드디어 제2회 정기공연 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연습에 열심이었던 종웅·경애·준성·윤관이 모두 수고 많았다. 준일·금범아! 항상 말썽만 피워서 미안해

— H

■소낙비 식구들! 영화제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수한선배님과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6기들도…소낙비 화이팅!

— 志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 기금 기부자

△김정만 (불교신도)=1천만원 △이두철 (지역개발대학원동창회장)=1천만원 △박진영스님=1천만원 △연등보시금=6백67만원 △불교대학원동창회=5백만원 △곽원재 (경영대학원)=5백만원 △김용정 (철학과교수)=3백50만원 △박교수 (산림자원학과 교수)=3백만원 △이중흥 (학부모)=3백만원 △김창열 (교육대학원)=3백만원

△김진태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동영 (행정대학원)=1백만원 △강태원 (물리학과 교수)=1백만원 △김병기 (상경대학 교수)=1백만원 △김영길 (불교문화대학장)=1백만원 △박기홈 (포항병원 가정의학과장)=1백만원 △이만 (경주 불교학과 교수)=70만원 (합 1백만원) △이행구 (경주불교학과 교수)=1백만원 △박영순 (산업기술대학원)=20만원 △이범수 (총무부처장)=50만원 (합 1백만원) △석원경 (화학과교수)=50만원 △권대흥 (법정대 교학계장)=50만원 △박승필 (불교문화대교학계장)=50만원 △임상록 (지역개발대학원 계장)=50만원 △박장승 (경주도서관 계장)=50만원 △문재옥 (자연과학대 계장)=1백만원 △박용하 (경주 이부대학계장)=50만원 △서재근 (경찰행정학과 교수)=1백만원 △김수한 (불교대학원)=50만원 △송근영 (불교대학원)=50만원 △권순정 (경주 부속실)=30만원 △강윤호 (한의과 교수)=1백만원 △이진희 (경주 학적계장)=50만원 △정각원 (연등보시금)=6백67만원 △안체란 (재단이사)=3백만원 △정병조 (교무처장)=1백만원 △김인성 (불교대학원)=30만원 △김상윤 (경주장학계장)=50만원 △김진철 (정외과 교수)=1백만원 △김성호 (행정대학원)=1백만원 △권은주 (경주 불교아동학과 교수)=1백만원 △김경자 (학부모)=20만원 △윤종안 (회계학과 교수)=1백만원 △김갑주 (경주부총장)=1백만원 (합 2백만원) △민병록 (연극영화과 교수)=1백만원 △안민수 (연극영화과 교수)=1백만원 △김흥우 (연극영화과 교수)=1백만원 △정재형 (연극영화과 교수)=50만원 △홍치유 (물리학과 교수)=50만원 △강금영 (불교대학원)=1백만원 △서한문 (불교대학원)=10만원 △서화량 (불교대학원)=5만원 △김용택 (사회복지학과 교수)=50만원 △이종찬 (문과대학장)=1백만원 (합 2백만원) △최철환 (역경원 편집부장)=50만원 (합 1백만원) △서윤길 (불교학과 교수)=1백만원 △손성 (법학과 교수)=1백만원 △박교수 (산림자원학과교수)=3백만원 △양문흠 (철학과 교수)=50만원 △정미실 (경주 가교과교수)=1백만원 △이두철 (지역개발대학동창회장)=5백만원 (합 1천만원) △최익한 (의과대학장)=1백만원 (합 2백만원) △이중흥 (학부모)=3백만원 △이선희 (의과대 조교수)=1백만원 △장정호 (행정대학원)=1백만원 △허호천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광길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성수 (행정대학원)=1백만원 △오성룡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세원 (행정대학원)=1백만원 △장학주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석휘 (행정대학원)=1백만원 △정락문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기태 (행정대학원)=1백만원 △송기원 (행정대학원)=1백만원 △이주호 (행정대학원)=1백만원 △홍진출 (행정대학원)=50만원 △김연숙 (경영대학원)=1백56만2천2백원 △박삼도 (행정대학원)=50만원 △강병탁 (학부모)=1백만원 △정성량 (의과대 교수)=50만원 △김복순 (경주 국사학과 교수)=50만원 △김승규 (경영대학원)=2백만원 △이재연 (교육대학원)=50만원 △이상강 (정보산업대학원)=20만원 △임수빈 (경영대학원)=10만원 △김찬홍 (경영대학원)=10만원 △김유석 (경영대학원)=2만원 △김형배 (물리과 교수)=50만원 △윤범대 (포항병원 사무국장)=1백만원 △강태호 (조경학과 교수)=50만원 △봉일원 (독문과 교수)=50만원 △문동연 (경영대학원)=1백만원 △손종관 (정보산업대학원)=10만원 △김대현 (경영대학원)=50만원 △소병도 (경영대학원)=1백만원 △배동수 (경영대학원)=1백50만원 △황선일 (경영대학원)=1백만원 △유서학 (경영대학원)=10만원 △홍두표 (경영대학원)=5만원 △최형주 (교육대학원)=1백만원 △김용호 (정보산업대학원)=50만원 △김용정 (철학과 교수)=3백50만원 △김행철 (경영대학원)=1백만원 △류인철 (경영대학원)=2백만원 △신일웅 (경영대학원)=20만원 △이성호 (경영대학원)=20만원 △이운용 (경영대학원)=10만원 △신오경 (경영대학원)=10만원 △강석원 (일문과 교수)=50만원 △양재묵 (경영대학원)=1백만원 △김현동 (경영대학원)=1백만원 △이호민 (불교대학원)=50만원 △박원환 (한의대 교수)=1백만원 △고복현 (의과대 교수)=1백만원 △강영수 (불교대학원)=50만원 △김문기 (행정대학원)=20만원 △민병순 (행정대학원)=1백만원 △민병순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유순 (행정대학원)=1백만원 △이미애 (경영대학원)=50만원 △김인숙 (행정대학원)=50만원 △허철 (행정대학원)=50만원 △고영택 (행정대학원)=10만원 △최하범 (행정대학원)=50만원 △이준호 (행정대학원)=10만원 △최진 (행정대학원)=20만원 △곽희범 (행정대학원)=1백만원 △문형옥 (행정대학원)=20만원 △고광주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종희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종희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찬기 (행정대학원)=30만원 △박진효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병민 (행정대학원)=1백만원 △서의영 (행정대학원)=10만원 △이선래 (행정대학원)=50만원 △홍순도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성택 (행정대학원)=10만원 △오민구 (포항병원 조교수)=50만원 △안우섭 (포항병원 조교수)=1백만원 △조의연 (영문과 교수)=50만원 △이흥수 (행정대학원)=1백만원 △윤순옥 (불교대학원)=50만원 △불교대학원동창회=5백만원 △정광시 (경영대학원)=1백만원 △공영태 (행정대학원)=1백만원 △양광산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진영 (불교대학원)=7백만원 (합 1천만원) △홍현규 (행정대학원)=2백만원 △이영현 (경주병원 교수)=50만원 △이정호 (경주병원 교수)=50만원 △성낙진 (경주병원 교수)=50만원 △서무규 (경주병원 교수)=50만원 △양창헌 (경주병원 교수)=50만원 △박익주 (총동창회 부회장)=1백만원 △정지영 (행정대학원)=1백만원 △남경수 (의대교수)=1백만원 △문일수 (의대교수)=50만원 △이봉상 (행정대학원)=1백만원 △백경임 (경주가교과 교수)=50만원 △이태균 (한의대 교수)=50만원 △황원종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정만 (불교신도)=1천만원 △조재현 (행정대학원)=1백만원 △한은석 (학부모)=10만원 △이번진=5만원 △김은자 (행정대학원)=1백만원 △박성수 (행정대학원)=50만원 △이윤심 (행정대학원)=20만원 △주재권 (한의과대학 계장)=50만원 △조현건 (행정대학원)=30만원 △조춘섭 (행정대학원)=1백만원 △원기영 (동문)=20만원 △김기태 (경영대학원)=1백만원 △김종삼 (법인사업부장)=50만원 (합 1백만원) △이광순 (경영대학원)=1백만원 △김영수 (국제부)=5만원 △김근수 (비상계획과장)=50만원 △일호일 (독문과 교수)=50만원 (합 1백만원) △정필수 (경영대학원)=1백만원 △박희부 (국회의원)=1백50만원 △문경우 (행정대학원)=1백만원 △전호은 (불교대학원)=30만원 △김판수 (행정대학원)=2백만원 △정환진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임경식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원용준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신홍균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종복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신순남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이석순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박우남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박소영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성희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문계술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한은희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한기성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류연동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박영미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박미선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이외원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조영하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윤방언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한춘섭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이재근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현수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백순자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하섭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기창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길봉준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정창석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한찬우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서진택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정옥렬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유장봉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행란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유상권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박연옥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김인홍 (의료원장)=1백만원 △하창래 (행정대학원)=1백만원 △손문호 (행정대학원)=1백만원 △엄경문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용철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손도 (행정대학원)=1백만원 △하한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원열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영화 (행정대학원)=1백만원 △전태우 (행정대학원)=1백만원 △이종철 (행정대학원)=1백만원 △반상섭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증헌 (행정대학원)=1백만원 △장시철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왕석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증석 (행정대학원)=1백만원 △차천리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왕진 (행정대학원)=1백만원 △홍현규 (행정대학원)=2백만원 △도호섭 (행정대학원)=2백만원 △노춘길 (행정대학원)=2백만원 △김창열 (교육대학원)=3백만원 △김용우 (교육대학원)=1백만원 △문형옥 (행정대학원)=20만원 △이상문 (행정대학원)=1백만원 △황대열 (체육부장)=1백만원 (합 2백만원) △김영환 (불자)=1백만원 △김계진 (불자)=1백만원 △편귀선 (불자)=1백만원 △이병준 (행정대학원)=2백만원 △이병량 (행정대학원)=1백만원 △이승영 (무역과교수)=50만원 △김광한 (행정대학원)=50만원 △하입조 (행정대학원)=1백만원 △김남진 (경영대학원)=1백만원 △유동훈 (경영대학원)=1백만원 △이영란 (경영대학원)=50만원 △김오원 (불교대학원)=2백만원 △김광호 (행정대학원)=1백만원 △최경희 (경영대학원)=30만원 △고상규 (경영대학원)=1백만원 △이승헌 (행정대학원)=1백만원 △심정근 (동문)=1백만원 △김주필 (농생과 교수)=2백만원 △양기덕 (동문)=80만원 (합 1백만원) △김용길 (동문)=2백만원 △양성수 (재학생 독문과)=10만원 △윤정현 (동문)=5만원 △최규식 (동문)=1만원 △조창현 (68경·행)=30만원 △심상우 (68경·행)=50만원 △불교대학원 4기학생회=2백만원 △이병철 (경영학과교수)=50만원 △문희웅 (동문)=10만원 △이춘근 (동문)=1백만원 △심재강=2만원 △이상헌=10만원 △박재원=10만원 △현해천=30만원 △조남진=50만원 △윤부성=2백만원 △문형옥 (행정대학원)=20만원 △현경희=5만원 △백웅기 (61경제)=10만원 △서재영=5만원 △김충남=1백만원 △구자춘=50만원 △옥봉규=1백만원 △송환철 (62입학과)=5만원 △김영호 (75경찰행정)=10만원 △최안웅 (70경제)=5만원 △이종열=10만원 △정종선=1만원 △문형옥 (행정대학원)=40만원 △정승석 (인도철학과 교수)=1백만원 △김형상 (물리학과 교수)=50만원 △이영면 (경영학과 교수)=50만원 △권영근 (88·교육)=3만원 △김대성 (교육대학원)=50만원 △조진희 (교육대학원)=26만4천9백60원 △석상훈 (사회·93졸)=1백만원 △이성수 (경영대학원)=50만원 △고정남 (68·경제)=10만원 △곽원재 (경영대학원)=5백만원 △한규상 (불교대학원)=10만원 △박용국 (산업기술대학원)=1백만원 △송영규 (산업기술대학원)=1백만원 △이정구 (산업기술대학원)=50만원 △김정석 (산업기술대학원)=50만원 △김성열 (산업기술대학원)=50만원 △김덕수 (65·행정)=2백만원 △김법기 (경영대학원)=26만4천9백60원 △곽재염=20만원 △정지천 (한의대교수)=50만원 △박연기 (산업기술대학원)=1백만원 △함덕상 (전 의대교수)=1백만원 △김상숙=5만원 △박종훈 (국민윤리학과 교수)=1백만원 △교육학과학생회 (회장=이창재)=50만원 △권수자 (불교대학원)=50만원 △이은흥 (불교대학원)=1백만원 △심재철 (의과대교수)=50만원 △현평호 (전 제주대증정)=1백만원 △이지수 (인도철학과교수)=1백만원 △이호영 (지역개발대학원)=1백만원 △최안웅 (동문)=5만원 △정종섭 (동문)=5만원 △정두석 (대한불교태고종총장)=20만원 △송영인 (동문)=1백만원 △오태갑 (동문)=2만원 △심상현 (동문)=10만원 △정병익 (동문)=1만원 △정순기 (동문)=3만원 △박성희 (동문)=5만원 △김동길 (동문)=2백만원 △김희배 (동문)=10만원 △곽준영 (동문)=5만원 △이종열 (동문)=10만원 △정종선 (동문)=1만원 △문형옥 (동문)=40만원 △이흥남 (동문)=1백만원 △류수택 (동문)=1백만원 △채순애 (행정대학원)=1백만원 △안성현 (수학과교수)=50만원 △한대현 (동문)=20만원 △어재식 (동문)=10만원

소계=2억6천6백83만7백60원 (330명)
누계=13억3천1백22만1천6백30원 (1,208명)

알림 이번주 동문칼럼과 초대는 지면관계상 쉬게됨점 양해바랍니다.

12·12기소유예 판결

법정신 구현되어야할 정치적사건

시사논단

김 진 철

사회대 정외과교수

12·12사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이 두 전직대통령을 포함한 34명의 주모자들에 대해 형법상 군사반란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내림으로써, 공소시효를 1개월여 앞둔 12·12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사법처리 여부가 다시 지대한 국민적 관심속에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헌, 이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기소하면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는 점, 대다수 국민은 그러한 갈등반복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점, 현재는 국민화합을 위해 매진하여야 할 때라는 점등을 기소유예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은 정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이 사건의 성격규정과 사법처리에 정치적 판단이 강하게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작년 5월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이 사건의 성격규정과 일치한다. 당시 김대통령은 "12·12는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관련자처벌은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했었다.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의 이면에는 이러한 대통령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제도를 십분활용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소권의 남용이란 비난을 자초했으며, 12·12사태의 해결은 다시 국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어 정치적 타결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최근 정국의 모습이다.

상식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는 범죄인의 사회조기 복귀 등 특별예방적인 목적이나 극히 경미한 범죄에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또한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엄히 훈계하고 개과전선할 것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더욱이 검찰이 규정한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죄는 법정형이 사형뿐인 죄목들로서 원천적으로 기소유예에 해당되지 않는 중죄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정치권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나머지 형평을 잃은 법집행을 해왔던 반면 검찰의 시국사건을 비롯한 공안사범에 대한 편파적인 법집행과 편법수사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리고 검찰이 국민의 대다수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국민적 정서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제 전환기에 처한 우리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두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응분의 대가이며, 역사의 심판이다. 내란이든 반란이든 12·12사태는 우리나라의 국헌에 정면도전하고 우리나라의 정치발전과 민주화를 퇴보시킨 역사의 시계바늘을 되돌려 놓은 군사쿠데타이다. 또한 주모자들에 의한 반동적 정치는 한국현대사의 최대의 아픔이자 치욕인 광주사태에서 극에 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대역반란죄가 역사의 심판에만 치부될 성질의 것은 분명히 아닐진데 국민화합이라는 너울하에 법의 공정한 심판없이 넘겨질 수는 없는 문제일 것이다.

12·12사태의 사법적 해결을 보면서 더 우려되는 것은 작금의 김영삼정부가 취하는 보수세력과의 타협과 개혁정치의 실종으로 신공안정국이 등장하고, 여기에 5, 6공의 냉전적 보수세력의 정치세력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12·12사태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5, 6공 세력을 주축으로 하는 구기득권세력은 김영삼정부의 개혁후퇴에 맞춰 목소리를 더욱 크게 하고 있다. 12·12사태의 사법적 처리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고 '전-노 회동'을 갖는 등 김영삼정부에 대해 압묵적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여당안에서 색깔론이 공공연히 제기되고 있고 김영삼 정부에 대한 '음해공작설'도 회자되어 왔다. 더 나아가 내년 지자제나 96총선을 계기로 신당을 창당하여 정치세력화를 기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고,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고 사상공세를 펴 신보수세력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정세변화는 현 정권의 개혁실종과 신보수주의와의 타협으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김영삼정부의 '중단없는 개혁'은 개혁 표류와 개혁실종을 거쳐 이제 개혁붕괴까지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출범 당시의 '위로부터의 개혁'은 3당합당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총체적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옆으로' 그리고 '아래로' 확산되지 못했다.

김대통령은 지난 10월 24일 대국민 사과담화에서 총체적 개혁을 또다시 언급했다. 현 시점에서 총체적 개혁이 반복되는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그 요체가 단순히 총체적 개각만으로 한정되어서는 더더구나 안될 것이다. 현 정국의 총체적 위기는 단순히 개각을 통한 정국돌파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정권안정보다는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사정개혁의 지속과 보수세력과의 타협을 지향하는 선상에서 재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적 인기에 집착하여 극우보수세력과 타협하고 개혁보다는 정권안정에 몰두할 때, 김영삼정부는 구 기득권세력과 타합하여 신 기득권세력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광범위한 국민적 이탈을 피할 수 없으리라 본다.

집권 2기를 채 지나지 않아 현 정권이 당면한 총체적 위기의 돌파구는 바로 12·12사태의 공정한 사법처리에서부터 그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정서와 역사적 정의에 부합하는 올바른 사법처리에서부터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역사적 사건의 사법적 성격규정과 처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역사적 재출발의 의미를 지니는 문제이다. 불행했던 역사적 과오가 다시는 이 땅에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엄중한 메시지이며, 준엄한 법의 심판으로 향후 이 땅의 정치사에 반동과 광란의 재발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법의 정신으로 구현되어야 할 정치적 사건이다.

사설

과거청산과 의회민주주의

역사는 우리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가장 소중한 거울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정치를 보면서 반역사적인 도전이 항상 반동의 기회를 노리고 있고, 올바른 역사를 수립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뼈져리게 느끼게 한다.

그것은 단순히 권위주의와 성장일변도의 국가정책 연장선상에서 탄생된 문민정부로서 피할 수 없는 총체적 국가관리체계의 난맥상 때문만이 아니다. 오히려 온 국민을 좌절감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민"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과거청산의 한계로 인한 국가적 딜레마 때문이다.

얼마전 12·12사태에 대한 검찰의 발표를 보면서 불행하게도 해방후 일제잔재의 청산에 실패했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검찰 스스로 12·12사태를 가리켜 "명백한 군사반란"이라고 단정하면서도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반란행위자에 대한 법률적 소추를 유보함으로써 국민감정과는 이반된 국가관리의 한계와 아무것도 못하는 현정권의 무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바람에 정치권 내외에서 김영삼정부 들어 처음보는 본질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기소유예조치의 부당성을 들어 야당이 반발함에 따라 국회공전이라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있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여당에서는 노선갈등시비가 계속되고 있고 구여권의 보수목소리와 옛 군사정권 세력의 의혹적 행보까지 나타나는 반역사적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간단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당하지 못한 과거청산의 문제 때문이며, 따라서 정치권의 해결노력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역사적 오류는 반드시 척결하되 여러가지 과거청산의 방법중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국회차원에서 의회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완성일이 다가오는 지금 군사반란행위가 법률적인 한계로 인하여 희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정치권에서는 시간적으로 단호하게 "민주적 단절"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과 타협을 통한 "점진적 과거청산"을 시도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정치력이 필요하고 의회민주주의가 절실해진다.

과거청산을 의회민주주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편의주의에 "충성서약"이라도 하듯 검찰이 스스로 법치주의를 포기한 것에 대하여,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여당이 먼저 과거청산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은 역사적 관점에서 "과거청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사반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관철시킨다는 차원에서 당당하게 의회민주주의를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과거청산을 분명히하여 올바른 역사를 수립해야 하고, 동시에 이를 거울삼아 정치권은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두번째 사회봉사·교수영역

사회봉사영역

이 영역은 8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5백점중 30점이 배당돼 평가항목중 가장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항목이다.

첫번째 평가 항목으로 사회봉사 부분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적절성(6) △교수의 사회봉사 참여(4)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실적(2) △사회봉사 행정체제(2)등 총1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번째 평가항목은 대외협동으로 △산학연 협동 계획과 실적(8) △국내 대학간협력(2) △외국대학과의 국제협력(4) △대외협등 담당 기구와 운영상황(2) 등 총 16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봉사 부분중 사회교육프로그램 부분에서 본교는 실질적인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형편이며 그것을 담당할만한 적절한 담당기구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문대학원이나 각종 연구소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에 일반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평생교육원등의 신설로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수나 학생의 사회봉사 참여 정도는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각 개인의 봉사에 대한 관심이 평가의 주요 관건이 될 듯 싶다.

대외협력부분에서는 산학연 협동계획은 부실한 편이며 이의 극복을 위해 연구교류를 위한 부서의 신설과 각 연구소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대학간의 협력은 얼마전 원광대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하는등 일정정도 노력이 있었으나 보다많은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의 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외국대학과의 협력역시 최근 많은 노력은 보이나 보다 적극적인 교류가 요구되고 있다.

교수영역

교수영역은 대학 평가항목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부분은 △교수의 구성(32) △수업부담 및 복지(12) △교수인사(20) △교수개발(16) 등 4개항목 총7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평가 영역인 교수구성 부분은 전임교수 확보정도, 전임교수 박사학위 취득정도, 전임교수 출신교의 다양성, 시간강사 의존도, 시간강사 관리 및 처우상태, 조교확보의 적절성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먼저 전임 교수 확보 정도는 94년 1학기 현재 교수 1인당 학생 35.46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95학년도 신규교수 영입이 끝나고 나면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0명정도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임 교수의 박사학위 취득정도와 전임교수 출신교 다양성등의 상황은 좋은 평점를 기대할수 있을 정도인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본교의 시간강사 의존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높은 비율을 보이는과는 국문과, 지교과, 정외과 등으로 이들과는 시간강사의 강의 비율이 60%선을 넘고있다. 이부분 역시 95학년도 신규교수초빙이 끝나면 25%선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두번째 평가영역인 수업부담및 복지부분에서는 우선 교수의 강의부담이 11. 6시간으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고 교수의 처우나 후생복지 시설역시 좋은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의 개선을 위해 교수회관의 정비, 회의실, 세미나실 확보, 교수충원등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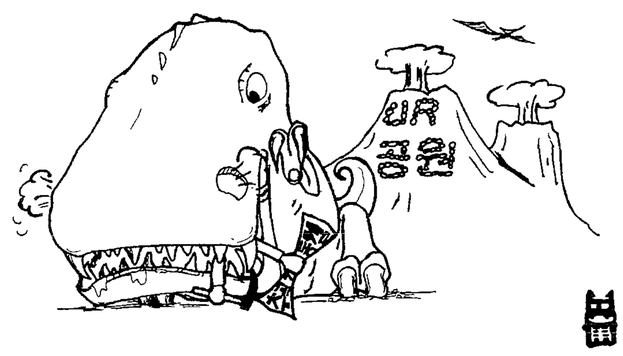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수인사 부분은 교수채용에서 최소 2개월이상의 채용공고와 함께 평가기준의 명료화, 구체화와 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개강의 등을 제도화해야하며, 승진 및 재임용에 있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하고 강의평가 결과의 반영등을 통한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것이다.

교수영역의 마지막 평가부분인 교수개발은 교수 개인의 발전이자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의 입장에서는 대학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이부분의 첫번째 항목은 국내외 연수참여 실적인데 이는 과거 3년간 꾸준한 증가가 있어왔으며 그 수치 또한 양호한 편이다. 두번째 항목인 교수개발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신규임용교수 오리엔테이션을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마지막 평가대상인 연구년제는 고대, 서강대, 연대등의 1/3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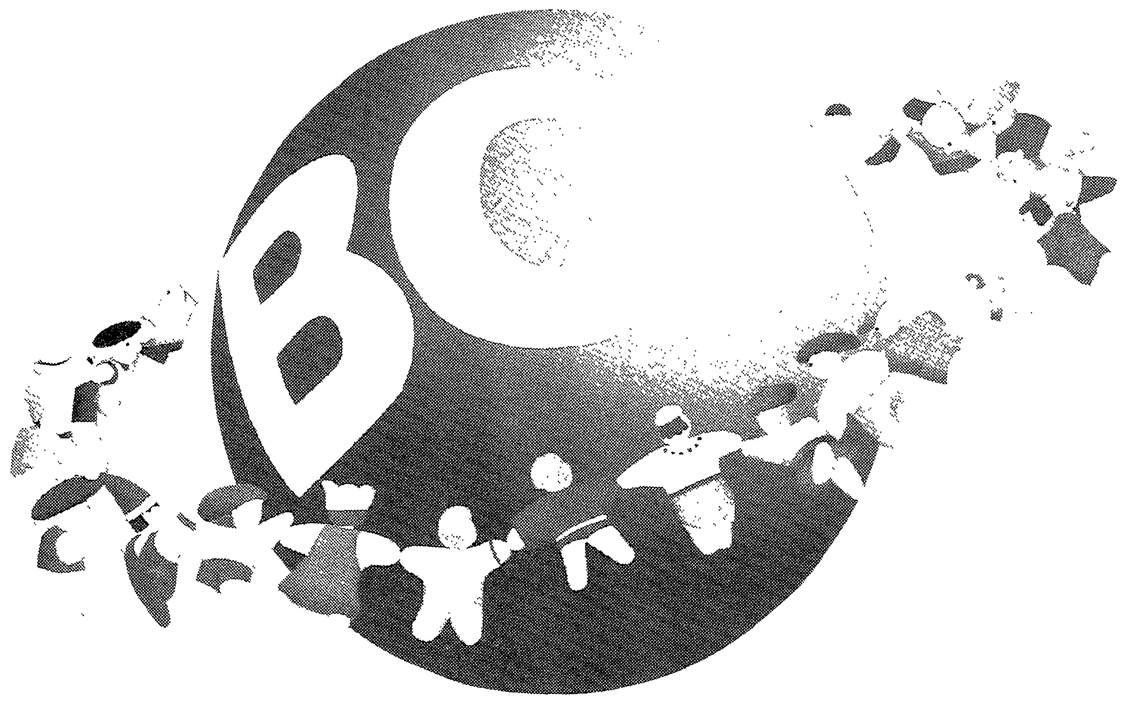
〈이석종 기자〉

동국만평

박 현 진



제4회 비씨카드 논문현상공모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열어가는 비씨카드"

꿈이있는 신용사회 — 당신의 비젼을 보여주십시오.

신용사회의 주역은 바로 여러분 — 날카로운 지성, 뜨거운 가슴으로 꿈이있는 신용사회를 위한 당신의 주장을 펼쳐보십시오.

1. 응모자격
- 제한없음

2. 논문주제
-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신용카드와 통화량증가의 실증적 관계
-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신용카드의 역할과 기능
- 신용카드의 이용률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
- 정보통신화 사회에서의 신용카드 산업의 발전방안
- 신용카드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
- 신용카드와 고객만족 경영
- 신용카드관련 법률적 문제와 그 특징
- 신용카드사의 효율적인 고객 D/B 구축 및 활용방안
-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서의 신용카드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3. 공모일정
- 공모기간 : '94. 11. 28 ~ '95. 2. 25
- 입선작 발표 : '95. 3. 31
- 우편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4. 응모요령
-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 분량(10매 정도의 요약문 첨부)
- 논문작성요령 : A4규격용지(워드프로세서) 사용
- 제 출 처 : 비씨카드주식회사 종합기획부 논문현상공모 담당자앞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우편번호 137-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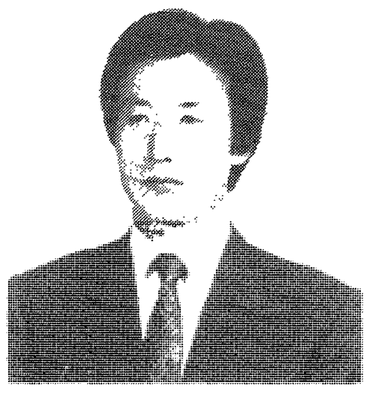
5. 입선작 발표 및 시상
- 입선작발표 : 1995. 3. 31(한국경제신문 공고 및 개별통지)
- 시 상 : - 최우수작(1편) / 상금 300만원, 상패
  - 우 수 작(2편) / 상금 각 200만원, 상패
  - 가 작(3편) / 상금 각 100만원, 상패
  - 입 선(5편) / 상금 각 50만원, 상패
  - 참 가 상(응모작전부) / 기념품 증정

6. 기타사항
-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입선작이 없을 수 있음
- 논문응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명기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선작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종합기획부로 문의(전화 : 02/520-4871~3)

비씨카드

일불승설을 중심으로 한 '백제 의영 유식사상'

백제교학 중국 못지않게 융성해 첨예한 교의형성
불교대의에 어긋난 통불교적 관점 정면에서 논박



이 만
〈불교문화대 불교학과 교수〉

신라 발전 기반다진 고구려 백제시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우리나라의 불교사상에 있어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인 성격에서나 자료적인 면에서 신라시대의 그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이보다 일찍 불교를 받아들여서 어느정도 교학적인 발전과 수행의 기반을 다졌던 것으로 알려진 고구려와 백제시대의 그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하자면 기록상으로 신라보다 약 150년 가량 먼저 이를 전수해와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교학체계와 교단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두 나라의 불교계였기 때문에, 당시 승려들의 교화활동도 신라보다 훨씬 앞섰던 것이 사실로 여겨지는 것이다. 즉 고구려에 있어서는 일찍이 장수왕(413~491) 무렵에 승랑이 중국으로 가서 신삼론종의 교학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담징도 일본에 여러가지의 문화유물을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하게 하는 등 큰 기여를 했고, 혜편과 혜자 및 혜관 등이 당시에 낙후된 일본 불교계를 이끌어 갔던 것이다. 백제에서도 겸익이 일찍이 직접 인도에 가서 범본 아비담장과 오부율 등을 가져와서 이를 번역하여 널리 보급하였으며, 관륵도 일본에 문서문화와 의료기술 등을 전수해주고 또한 최초의 승정이 되어서 일본 불교계를 지도했고, 이밖에 혜총과 도장 등의 활동도 일본에서 두드러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기록들에 의하면 고구려나 백제의 승려들은 거의가 다 국내에서의 활동 보다는 국외에서의 그것이 더 활발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까닭은 무엇보다도 이들에 관한 제반 기록이 국내의 관계자료에는 거의 언급이 없고 간혹 중국이나 일본의 제전적에서 그나마라도 보이기 때문에 이에 의거한 데서 자연 그와 같이 인식된 것 같다.

백제 패망으로 의영의 출신은 백제에서 신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백제시대의 교학사상을 보완해주고 국내에서는 활동사실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승려가 있으니, 그가 바로 의영이 아닌가 한다. 의영이 언제 활동하고 그 출신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의 저작으로 알려진 약사본원경소의 주석에, "백제 의영사술" '영초집, 동역전등목록(대정 55·1152·中)' 이라고 표기되고 있어서 그가 백제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전적에서는 의영을 신라인으로 밝히고 있는데 '최징찬, 수호국계장 권하치중(대정 74·224·上)', 이와같은 다른 사실은 백제가 의자왕 20년(660)에 신라에게 망하자 자연 그의 출신도 백제에서 신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대개 7세기의 후반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국내·외의 활동 여부에 관해서는 의영을 신라인으로 불렀던 일본의 최징(767-822)이 그의 법화수구에서 의영의 교설내용을 인용할 때에 "외국의영법사조장운…"이라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은 일찍이 중국에 유학한 적이 있어서 비교적 그 나라의 사정에 밝았던 그가 같은 장소에서 중국인들을 가리킬 때에는 '당조'라고 하거나 '대당'이라고 한 것과는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는 점에서 의영이 국내에서만 교화활동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간혹 신라 사람들이 중국 등에 유학했을 적에 이를 잘 모르고서 그들을 당나라의 출신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의영에게서는 이와 같은 표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동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신빙성 있게 뒷받침해주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의영에게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또다른 저술이 밝혀지고 있어서 관심이 가는 것이다. 즉 그의 저작은 오늘날 모두가 일실되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약사본원경소와 유가사지론의림의 두 서명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데, 일본의 연강이 찬술한 정촌론에 보면, "영윤이 화신론장(1권)을 지어서 현장 등이 설하는 신유가의 교의와 전제등의 구유식과의 상위설을 열 네가지로 나누어서 변별하고, 법보도 또한 현장삼장이 번역한 경론의 많은 부분이 도리에 어긋남을 보고서 일승불성구경론(6권)과 열반경소(15권)을 지어서 그의 신의를 파척했으며, 의영법사도 신구쟁(20권)을 저술하여 현장의 뜻을 논파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의영이 신구쟁이라는 장소를 지어서 당시의 신·구식가를 사이에서 논쟁이 되고 있던 일부 무불성 중생의 성불에 관한 문제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변별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의 발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전혀 몰랐던 그의 교학사상의 일부라도 유추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특히 백제시대의 불교교학이 중국의 그것 못지않게 융성하여 최첨예한 교의 등을 숙지하고는,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불교의 대의에 어긋나는 저들의 주장을 정면에서 논박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을 뿐이며, 백제불교가 그들의 예술만큼이나 찬란했던 과거가 있었다는 흔적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새로운 관심거리로 등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의영의 이와같은 교학태도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출신의 승려들 사이에서 주창되었던 이념으로써 비록 법상종에 소속된 경우라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현장의 신유식에서는 핵심본경과 유가사지론 등의 교설이 의거하여 오성각별설을 주장하는데, 이러한 근거는 중생들의 실상을 여실하게 관찰해 보면 성불할 수 있는 보살이나 성문연각의 부류와는 달리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무불성장성이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대승불교가 일체중생실유불성설을 표방하는 이념과도 어긋나기 때문에 일반 대승교학자들은 물론이고, 중국 내의 법상종에 소속되어 있던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 갈등이 심했던 것이다.

특히 신라계 출신의 승려들 사이에서는 이 무불성인 단선천제에 관한 이념이 중국의 그들의 주장과 상이해서 법계로 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를 보면, 핵심밀경소와 인왕경소를 남긴 원측이나 도증·태현 및 유가론기를 지은 도륜 등 신라출신들은 일승사상을 주장했는데, 이 점에서 삼승진실과 오성각별을 설하는 중국 법상종과 구별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신라인들의 불성관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먼저 원효는 그의 법화경종요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이승은 절대로 성불할 수 없다거나 불성이 없는 유정등을 설했지만, 이들은 모두가 방편으로써 요의교설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만약에 일승만을 설하고 제이승은 없으며 일체중생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교설하는 경전은 진실로 요의경인 것이다"라고 해서, 철저한 일승가의 입장을 취하는 한편으로 일반경에서 교설하는 불성의 유무에 관한 사구의 해석에 심혈을 기울여 전체성불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원측도 역시 일불승사상을 주장했음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즉, "자은이 개립한 유식종에서는 오상각별설을 고집하여 일성개성설을 극력 반대하지만, 서멍은 이러한 5성각별설에 구애받지 않고 해심밀경 등에서 무성유정과 정성이승을 거론한 것은 근기미숙일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결정코 성불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회통한다. 오히려 화엄과 천태의 일승가에 찬동하여 일성개성설을 고취한 것은 가장 주의할만하다"고 했으며, 태현은 대반열반경(담무창열) 고귀덕왕품의 해석에 있어서 6난을 들어서 주석하는 가운데 일천제도 천제심을 버리면 바야흐르 성불할 수 있고 버리지 못하면 성불할 수 없으며, 정법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간에 마땅히 무상정등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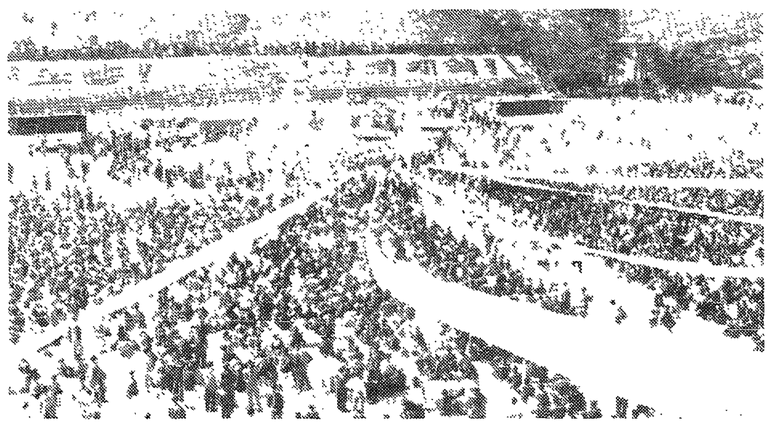
그리하여 의영은 자주 영윤, 법보, 원효, 지주, 현응 등과 함께 불성문제에 있어서 일승가로 불리워져 그의 주석내용의 일부가 후세의 여러 장소에서 산견되고 있는데, 그는 특히 삼승가로 알려진 신태의 설을 반박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으며, 법상종조인 자은의 불성에 관한 오류에 대해서도 이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서 주목되는 것이다. 즉, "자은 규기가 비록 번경을 집필한 문장의 대가였지만 승만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어찌 그렇게 졸렬했는지 모르겠다. 승만경을 다보아도 사승이 실교이고, 일승이 권교란 내용은 없다. 오류를 범한 것이다"라고 논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인데, 의영은 자은이 승만경을 잘못 해석하여 사승이 실교이고, 일승이 권교라고 함에 따라 그 후학들도 이에 동조하여 교학사상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영의 논박내용 등을 본다면 그는 분명히 일승가로서 그 방면의 교학의 천착에 있어서는 이미 상당한 견지에 이르렀던 학승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것이다.

고대 불교사상연구위해 백제교학사상 연구해야

우리나라의 고대 불교사상을 논할 때면 우리는 흔히 신라시대의 그것을 가지고 천착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백제 의영의 새로운 저술내용이 일부나마 발견되고, 또한 거기에서 그가 첨단의 문제를 가지고 본래 그것을 제기했던 중국인들과 저작 등을 통하여 격렬하게 논쟁했다는 사실은, 백제시대의 불교교학사상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시사 초점

노동자 대회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발족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가 해체된 이후 노동운동권에 '이렇다' 할 조직없이 민주노총건설추진활동이 계속됐다.

노동계에선 이 활동의 결실을 지난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얻었다.

단지 출발점에 불과하다하더라도 산별민주노총건설을 위한 '민주노총준비위원회'가 발족된 것이다.

민주노총건설은 군사정권의 유물인 한국노총독점체제의 개혁을 이끌어 내고 제3자개입금지, 복수노조금지, 노동조합 정치참여금지 등의 법적조항으로 인해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1천만노동자들의 직업적 자율성과 인권의 신장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각계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그동안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등을 기본단위로 활동한 '민주노총추진위'등 여러 민주노동계의 민주화를 향한 노력으로 민주노총건설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이 시대 자율적 개혁을 불러일으키며 민주의 꽃을 피울 민주노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

동악로

선거 전·후

"안녕하세요. 오늘은 총(여)학생회 선거 마지막입니다. 000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찌렁찌렁 울리는 외침.

"투표하셨어요. 투표하고 가세요" 애처로운 목소리.

투표마감시간 1시간을 남겨놓고 투표율 50%를 넘지못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쯤엔 애처러운 목소리도 사그라들고 "너 투표했어 안했어 빨리해"였다.

가까스로 선거무효화는 막아내 총학생회선거 54% 투표율, 총여학생회선거 63.5%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총 여학생회선거 투표율이 더 높은걸 보니 여학우의 학생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걸까(?)

총학생회선거 투표를 하기위해 기표소로간 한 여학우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던진 한마디 "왜 같이줘요 난 총여선거 안할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의 예산낭비를 막고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선거를 한꺼번에 치뤄냈다.

그럼으로써 여학우들에게는 투표용지 두장이 건네졌다.

선거에서 단독출마일 경우 당선의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투표율인데 투표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투표용지를 나눠주는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선관위원 "하지 않겠다는 학생에게는 주지않았다. 오히려 총학투표 안하겠다는 학생도 있었는데…"라고 맞섰다.

일반학우 입장에선 투표하겠다고 기표소에 가서 "총학선거는 투표하고 총여선거는 안하겠다는 말이 나오냐"는 반문이다.

'63.5%' 이 또한 별로 높지 않은 투표율인데도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투표를 했다"는 말이 나오다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학생회에 등을 돌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건 분명 잘못되었건만 딱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건 올해 학생회가 보여준 불신의 싹이 너무 깊기 때문이 아닐까. 〈양수정 기자〉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는 국민기업 – 삼성

작은 사랑을 나누는 일 –
참다운 젊음의 몫입니다.

전공 공부에의 몰두, 미래에 대한 준비 –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대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을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참된 젊음이라면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사회에 대한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 봅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키워가는 근로 청소년을 위한
야학, 좁디 좁은 운동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고아원
아이들, 당신의 입으로는 험한 것을 드시면서도 자식을
먼저 걱정하시는 양로원의 노인분들 –
모두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랑을 나누어 가는 일,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젊음이라는
값진 시간을 소중히 채워나가는 가치있는 일이 아닐까요?

삼성은 이웃 사랑의 작은 실천에 앞장서는
이 땅의 젊은이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SAMSUNG 삼성

제12대 총학생회 정·부 입후보자에게 듣는다

기호 1번 — 배문석(철3)·고희철(경제3)조

네트워크식 학생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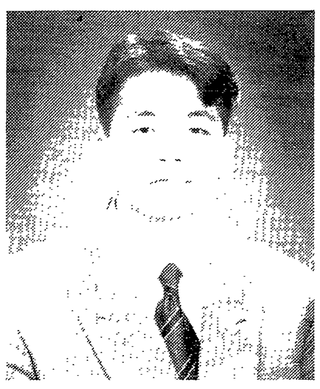
P.C통신등으로 한정된 연결고리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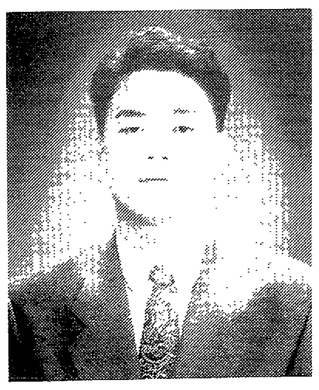
으뜸구호

통일시대를 맞이하는 벅찬함성
1만과 함께 건설한다. 자주 온방골.

주요공약

1. 학생회 강화를 위하여.
— 간부의 혁신
— 열린공동체 학생회 건설
— 온방골 일으키기 운동 전개
2. 물적토대 확보
— 교육재정 확보
— 공간확보투쟁
3. 교육의 질적 내용적 확립을 위하여
— 민족적·민중적 교육내용 확립
중교위 강화→참여강의제 실시
학문사상의 자유쟁취— 진보강좌 개최
4. 진보와 통일시대를 맞이하자.
— 통일논의의 자유화
— 민주노총 건설투쟁
5. 생활·복지·문화를 위하여
— 학술·문화 아카데미 개최
— 각건물 입구 취업전용 모뎀 설치





— 제12대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동기는.

= 요즘 '학생회에는 학생이 없다'는 말을 한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예전까지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생회는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학생들과 함께 하겠다고 해왔지만 사업은 몇가지 하지도 못하고 학생들과 괴리된 채 관성과 타성에 젖어 있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할 수 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학원내의 여러 산적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낼 힘이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들과 함께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 제11대 총학생회 사업을 평가한다면.

= 첫째, 지킬 것은 지켜나간다고 했는데 지난해 선거속에서 내걸었던 많은 공약들을 얼마나 지켜나갔는지 궁금하다. 학우들과의 연계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에 치중했다. 둘째 홍보부족, 참여부족으로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퇴폐향락적인 문화사업 일괄로 올바른 대학문화 창출을 이뤄내질 못했다. 셋째, 간부들의 자질 문제로 학생들과의 괴리감을 더욱 증대시켰다.

— 제11대 총학생회장 사퇴에 대해.

= 사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었다는 것이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학생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감을 갖게 하고 단순한 파벌싸움으로 비춰지게 됐다. 사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사퇴하게 됐느냐와 그 이후에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가지 답들을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사퇴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만이 컸다고 생각한다.

— 내년 총학생회의 운영방안은,

= 제11대 총학생회는 근시안적으로 한해만 바라보고 주먹구구식으로 치뤄왔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고 하나하나 이뤄나가야 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시급히 해나가야 할 부분과 멀리 내다보아야 할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획하고 있다. 종적인 하달식 학생회 구조는 과, 단대, 총학생회로 이어지는 횡적인 네트워크식 구조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한 이벤트행사나 깜짝쇼가 아닌 전학대회의 상설화, 모니터 제도, P·C통신등을 활용해 자보로 한정된 연결 고리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대학문화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한 몫 하고자 한다.

—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의 방안은 .

— '경주 분교'가 아닌 '경주캠퍼스'로 당당히 나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모든 행정체계가 서울에 예속되어 있고 하달식 전달 수행으로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은 일방적인 해결책 모색이 아닌 학생, 교수, 교직원 학원 3주체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계속적인 연대를 이뤄나갈 때만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윤전화 기자〉

◇언론협의회 주최 공청회

기호 1번 교육환경개선으로 온방골 개혁

기호 2번 기층단위 속에서 총학생회 강화

— 97년 경주캠퍼스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대비책은.

= **배문석·고희철조:** 본질적으로 전국의 대학들을 차별화 하는 대학평가인정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산술적 수치에 따른 각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차별화 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말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일이다. 하지만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준비 또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정보가 학교측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보들이 학생회와 일반학우들과 공유되어 대책위가 함께 꾸려지는 것이 급선무다. 이는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수 있는 열린창구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전현철·김민철조:** 사립학교법 개악 이후 수익자 부담원칙의 미명아래 학부모들의 재정적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현 대학들의 위기속에서 문민정부의 5% 교육재정확보는 보이지 않고 또다시 적은 교육재정을 대학평가인정제라는 명목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몇 개의 대학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립대학들 중에서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의 목소리를 재우는 억압이라 생각된다. 이런 제도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행될 것을 전제로 제1캠과 비교하여 특화될 수 있는 학과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영남권 제일의 대학이라는 의식개혁운동과 교육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기호1번 개별질문

— 총학생회 간부의 상을 바꾸고, 열린공동체 학생회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어떻게 학생들의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

= 우선 제11대총학생회를 비판하고 싶었던것은 간부혁신 문제다. 진정 이학원의 주체인 학우들을 주인으로 내세우지 못했던 원인은 제11대 총학간부들의 헌신성, 자질의 부족때문이다. 이전 총학이 보여줬던 상부하달식의 종적인 학생회가 아닌 하부구조의 의견이 위로 전달될 수 있는 횡적인 학생회 즉 개개인이 만날수 있는 유기체적인 총학생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 교육재정확보, 교육과정혁신등 교육부분에 관한 공약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다. 이에대한 구체적 방안은.

= 교육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을 내세운 이유는 실질적으로 대학사회속에서 경주캠퍼스 교육환경이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이의 해결은 교육재정확보와 사립학교법 철폐의 재논의와 함께 서명운동 및 민주세력과의 연대투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속에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만학우와 함께 하는 온방골 개혁의 상이다.

기호2번 개별질문

— 제11대 총학생회의 경우 조직관리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실패한 경우라는 여론이 높다. 이에 조직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은.

= 제11대 총학생회 집행부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총회장 사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총회장과 집부들의 의견의 불소통과 각 단대와 각 단과위 의견수렴의 불충분등은 그 예일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내세운 총학생회 강화는 강력하게 모든것을 집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작은 단위에서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미이다.

— 총학생회사업은 등록금투쟁으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 등록금투쟁의 효과와 투쟁방향에 대한 계획은.

= 우선 등록금투쟁을 위해서 학생자치추진회를 구성해내고 관련서류를 구비한 가운데 학교측과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한 단체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결과만을 보고식으로 학우들에게 알려냈던 기존의 등록금투쟁과정에서 벗어나 등록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방중에 각 학우들의 집으로 알려내고 이에대한 평가와 각 학우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등록금투쟁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기록·정리= 김태성기자〉

기호 2번 — 전현철(야간법3)·김민철(수교3)조

학우대중 학생회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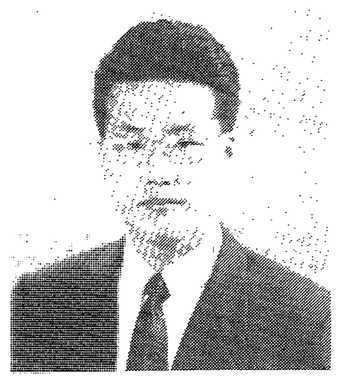
1인1요구안 의견 개진운동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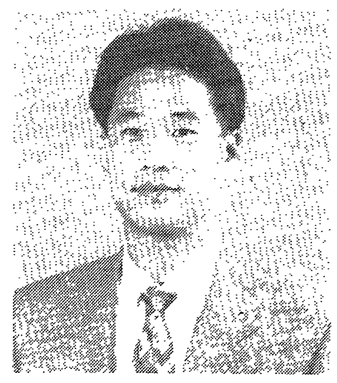
으뜸구호

학우들의 개성과 가치창조를 목표로 지혜와 실천으로 웅비하는 제12대 학우사랑 총학생회 건설.

주요공약

이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개성의 90년대를 창조하고 21C를 준비하겠습니다. 제2캠퍼스의 한계를 딛고 동국을 과학적 사회진출의 요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선정보와 면학분위기 안착화로 상아탑의 위상을 재정립해 가겠습니다. 학원 제주체의 참여로 낙점총장 거부하고 민주총장, 부총장 선출해 가겠습니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생활문화혁신을 통해 안락한 학원을 건설하겠습니다. 물가인상률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저지하고 질적, 양적 후진성을 극복하여 경쟁우위적 학원을 건설해 가겠습니다.





— 총학생회 후보로 출마한 동기는.

= 도서관과 강의실을 오가며 묵묵히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절대다수의 온방골 학우들. 다시 말해 침묵의 다수의 대변자가 지금까지 온방골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운동에 참여하는 학우들의 대변자만이 있었을 뿐이라는 판단으로 제12대 학우사랑 총학생회 건준위를 구성, 학우들의 생활 문화 및 학문등 전반에 걸친 폭넓은 시각으로 학우들의 권리에 민감하고 소모적 장외투쟁이나 정치투쟁에서 벗어나 학원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학우대중의 학생회를 건설하기 위해 출마했다.

— 제11대 총학생회 사업을 평가한다면.

= 총운위 과정등에서 정파이기주의등으로 소위 비운동권을 표방한 제11대 총학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으며 정책과 집행력의 미약점을 보여줬다.

시간의 부족, 혹은 여론수렴에 소홀히 한것등의 오류로 몇가지 사업외엔 미완성단계에서 사업이 마무리된 것 같다.

학우사랑 12대 총학생회는 제11대총학의 미해결 사업을 받아안아 수정·보완하여 사업을 풀어나갈수 있도록 하겠다.

— 제11대 총학생회장 사퇴에 대해.

= 총회장 사퇴건의 경우 먼저 공인으로서의 책무를 버리고 연수에 참여한 점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문제의 제기과정에서 보여준 문제제기측의 행동역시 올바른것은 아니었다.

또한 문제 해결에서도 운영위, 다시말해 상층의 권고형태의 사퇴요구가 들어가고 관철됨으로써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점 역시 양쪽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 내년 총학생회의 운영방안은.

먼저 동국을 살려야 겠다는 생각이다. 교수폭행사건등으로 동국이 사회의 지탄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대학 본연의 위치를 바로 잡고 교육과정등에서 학우들의 인성, 덕성, 도덕성 회복을 위한 사업들을 벌일 생각이다. 또한 상시적인 의견개진운동과 등투과정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1인1요구안 조사를 실시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로 만들것이다.

또, 총학산하 교과과정위원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취업대책국을 강화, 총학생회의 집행력을 강제할수 있는 총학생회 강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에 문제됐은 총운위등에서의 집행력 부족을 극복하고 학우들에게 큰힘이 될수있는 총학생회를 건설하겠다.

— 경주캠퍼스 자치권 확보의 방안은.

= 가장 중요한것은 학내주체들의 경주캠 자치권 확보를 위한 의지와 단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총장선거와 내년도 등록금투쟁과정에서 자치권확보의 실천방안들을 내올것이다. 이를위해 1인1요구안 의견개진운동과 학내 민주적세력들을 포괄하는 경주캠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재환기자〉

무·한·책·임·주·의
서비스/품질/환경

"할 수 없는 일이란 없다"

태평양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을 잊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도전정신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도전한다는 것은 기업이 지녀야 할 첫번째 자세입니다.
도전이 있어야 성취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도전정신속에는 풍요로운
사회를 위한 책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태평양의 성취 역시 사회에 대한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아름다움의 실현을 위한 화장품 사업,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가정용품과
건강식품 사업, 그리고 미래를 겨냥한 정보통신
사업과 고객만족을 위한 아낌없는 서비스 정신.
이제 다가올 미래는 변화와 도전의 21C -
태평양의 도전정신과 사회를 향한 책임의식은
무한책임주의 실천을 통해 보다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도전정신이 있는 기업 -
지금 태평양이 누구보다 뛰어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

평론…작품의 의미창조·수필…관조통한 삶의 반성
아동문학…끊임없는 자기확인·희곡…역동적인 문학체험

시·소설성가에 걸맞게 균형있는 장르별 성과 집적 시급

한국근대문학의 산실인 동국문학에서, 그 빛나는 시와 소설의 위상을 떠올린다면 비평, 수필, 아동문학, 희곡 등 여타 장르의 성과는 이제 마악 쌓아가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말해야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다. 시의 빛나는 전통이나 소설의 성가에 걸맞게 균형있는 문학장르별 성과의 집적은 그만큼 시급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들 비평, 수필, 아동문학, 희곡분야의 노력이 가일층 요구되어야 할 이유는 실상 다른 곳에 있다. 비평이 작품에 대한 1차적 평가와 더불어 작품의 미덕을 발견하는 창조적인 인식행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창작과 서로 보완적인 사이이며, 나아가서는 작품의 의미창조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행위인 것이다. 관조를 통한 삶의 반성, 그리고 자아확인과 그 충전이야말로 주체의 마멸을 겪는 현대사회속의 개인적 위기에 매우 필요하고(수필) 동화가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어른들에게 역시 동화적 천진함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동화), 삶의 의미를 행위화시켜 그것을 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가장 역동적인 문학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희곡) 시도들은, 오늘날 시와 소설만이 문학의 전부라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게 만든다. 이는 물론 산업사회의 다양한 경험이 장르의 분화와 전문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현실과도 관련이 깊다.

비평의 전통은 아무래도 1920년대 중반부터 카프와 국민문학파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는 절충주의적 문학론을 주창했던 무애 양주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주동은 식민지 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창진평(小倉辰平)의 향가해석을 극복하고, 나아가 풍전등화에 처한 민족정체성을 고양하기 위해 고도로 실증적인 어석작업을 통한 향가연구로 방향전환하면서 비평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조연현에게 대물림한다. 해방 이후 격심했던 좌우대립기에 김동리와 함께 민족문학론을 주창하면서 주로 순수문학의 이론적 기반을 고양하는 데 힘썼던 조연현은 '현대문학'을 주관하면서 새로운 한국현대문학의 전통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는 시의 미당 서정주, 소설의 김동리, 황순원 등과 함께 해방 이후 작고하는 80년대 초반까지 비평계의 명실상부한 수장(首長)으로 동국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한국문학의 발전에 헌신한다. 그밖에 상식과 중용에 바탕을 둔 정태용, 일제하의 저항과 역사의식, 정치적 현실속의 모순상에 주목하고 실존주의적 논리를 전개한 이철범,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독특한 문학론을 전개한 김운학, 전후문학의 논의에 활동한 정봉래 등이 있다. 60년대에 이르면 홍기삼(현 국문과 교수)을 필두로 김시태, 조병무, 박진환, 장문평, 최광렬등이 1950년대 동국비평의 전통을 이어받는다. 특히 홍기삼은 감각적이면서도 유려한 문체로 조연현 이후 침체된 동국문학 비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한다. 70·80년대 중반까지 강상천, 김병택, 유한근, 이래수, 채수영, 김선학, 홍정운, 정신재등이 배출되고 특히 김선학, 유한근, 채수영등이 왕성하게 활동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박혜경, 송희복, 한만수, 채명식, 윤재웅, 황종연, 김춘식, 장영우, 박찬두 등 일군의 이론과 건강한 문학관을 겸비한 비평가들이 가세하면서 동국문학은 가히 비평의 중흥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이들 30대의 젊은 비평가들은 90년대 이후 동국문학이 비평을 통한 새로운 전통 수립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이들인 셈이다.

수필의 경우, 상대적으로는 문학전통에서 조망되지 못한 감이 있으나 만만하지 않은 내력을 갖고 있다. 이병주(본교 명예교수), 이상보(국민대교수), 이창배(본교 영문과 퇴임교수), 이종찬(본교 국문과교수), 정태영등은 학문의 여기(餘技)로서 깊이 있는 사색의 결정을, 윤형두(범우사대표), 이철호, 유혜자, 유필근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동문들이 전문인으로서 지혜로운 잠언을 활발하게 발표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윤형두는 범우에세이문고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한국수필문학의 결집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아동문학의 경우 70년대 등단한 이후 '오세암' '초승달과 밤배'등 20여년간 꾸준하게 동화의 세계를 천착해오고있는 정채봉은 한국아동문학계의 보석과 같은 존재이다. 그는 아이들만의 동화가 아닌, 어른들에게도 생각하는 동화에 주력함으로써 아동문학의 영역 확대와 쇄신에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박춘희, 손복원, 권순하, 엄기원, 조진우, 백미숙 등의 동문이 꾸준히 아동문학의 전통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희곡문학의 경우, 1950년대 전후사회의 모순을 고발하는 실험성 짙은 영화로 이제 고전이 되어버린 '오발탄' '잉여인간'등을 감독한 유현목(영화감독), 정일택 등과 한국연극의 독보적인 위치를 고수하면서 "한국현대희곡문학에서 희곡정신의 탄생"이라는 찬사를 듣고 있는 이근삼(서강대 정년퇴임교수)외에, 연극사를 강의하는 장한기(본교 연극영화과 교수), 희곡이론을 강의하면서 '현대불교희곡선'을 편찬한 김흥우(본교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있다. 또한 희곡작가로는 최금동(예술원 회원), 박동화, 김숙현, 송성한(작고), 김숙현, 오학영(작고), 이만희, 이재현, 서순만, 신동익 등의 동문이 희곡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시와 소설에 있어서 발군의 역량을 발휘해온 동국문학은 이제 비평의 부흥만큼 수필문학의 묵묵한 정진, 동화문학의 진지한 세공(細工), 희곡문학의 적지만 알찬내력에도 눈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시의 전통에 버금가는, 더불어 소설의 적지않은 성과에 이를만큼 문학적 정진이라는 대명제 아래 비평과 수필, 아동문학, 희곡이라는 분야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에서는 결국 하나인, 뿌리로부터 만개하는 노력의 결정(結晶)들이 이들 분야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과업은 결국 지금 여기에 위치한 우리 문학도들의 뜨거운 정열의 몫이다. 전통의 확인이란 이렇듯 역사로부터 우리를 연관짓는 끈에 대한 인식에 다르지 않다. 연륜과 풍상을 겪어온 말없는 정신의 고향 동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울림은 쌓인 전통만큼 앞으로 더 많은 전통을 쌓으라는 것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유 임 하
〈문과대 국문과 강사〉

글 싣는 순서

1. 시
2. 소설
3. 평론 수필 아동문학 희곡
4. 월북작가
5. 총론—좌담

달하나 천강에

대학의 정보화

산업혁명에 의한 철도, 항만, 고속도로 등 하부구조의 정비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의 전개를 가능케 하였다. 정보혁명에 의한 컴퓨터의 성능 향상, 통신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정보 인프라의 정비로 정보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몇년 앞둔 우리 대학 앞에 개방화, 세계화, 다양화, 전문화등 많은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더 나아가 교육에 관련하여 각종 규제에 직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교직원의 욕구는 다양하고, 그 변화는 급속하게 진행되며, 경쟁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급변하는 대학 환경의 변화는 기업가적 행동 유형으로의 변모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개별 대학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혁신과 비교우위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첫째, 대학은 고유의 대학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에 해당하는 전략과 '무엇을' 의미하는 목표가 서로 연관성을 가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전략이란 대학활동의 전반적인 범위를 결정하고, 그 범위 밖에 있는 환경에 따라 대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조정·지원하는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전략은 대학의 외부환경과 적합성을 이루어야 하고, 조직 구성원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대학의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대학은 정보를 창출하며, 생산성 및 서비스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야만 한다. 이 정보기술은 업무처리 방법은 물론 의사결정 과정이나 경영구조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 양식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은 전략적 계획에 따라 정보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대학의 정보화는 국경의 벽을 뛰어넘는 개방을 가져오고 글로벌(global)화와 로컬(local)화라는 양면으로 전개된다. 정보화란 정보자원을 수집, 가공, 생산, 전달, 교환하는데 정보기술을 응용하는 것이다. 교육측면에서 지역과 세계의 균형을 가져와야 하고, 학생·교수에 대한 국제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적절한 경영시스템을 갖추어야 세계속의 대학이 된다. 이것은 대학의 정보화로 성취될 수 있다.

요컨데, 대학의 정보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이 정보기술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대학은 학생·교육중심으로 변신(Student·Education Driven Transformation)을 해야만 한다.

이 영 재 경상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동화작가 정채봉(국문 75졸) 동문을 만나

'스무살 어머니'이어 '초승달과 밤배' 3부 발간예정

"어린이 골목속에 갇힌 동화를 광장으로 끌어내고 싶었다"

'물고기를 잡으려면 도랑위나 아래를 막고 바닥이 보일때까지 물을 퍼낸후 잡는다. 그러나 만일 도랑사이에 샘이 있으면 아무리 물을 퍼내도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럴 경우엔 일부러 흙탕물을 만들면 물고기는 샘물이 나오는 곳으로 몰리게 되고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가 잡으면 되는 것이다.'

동화작가 정채봉(국문75졸)동문이 들려준 한편의 동화같은 이야기이다. 이어 정동문은 "세상이 점차 탁해지면 맑은 물을 희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동화같은 세상이 와서 내책이 신기할 것이 없게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정채봉동문은 '73년 '동아일보'에 '꽃다발'로 등단하여 '물에서 나온 새' '초승달과 밤배' '느낌표를 찾아서'등 수많은 작품집을 출간했고 얼마전 발간한 '스무살 어머니'라는 수필집으로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정채봉동문이 '독과점'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생각하는 동화'는 이미 10권이나 출간됐다. 현재는 '현대문학' 지난 4월호에 연재가 끝난 '초승달과 밤배' 3부 발간준비를 하고 있다.

'종전까지 아동문학에 국한되었던 동화의 영역을 '생각하는 동화'로 인해 성인까지 확대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 정동문은 "장르가 독자를 구획시켜서는 안된다"고 얘기한다.

"동화라면 어린이 전용으로 담이 쌓여있다. 담을 허물고 어린이 골목속으로 잡혀간 동화를 광장으로 내놓는 역할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정동문은 '아동문학가'가 아닌 '동화작가'로 불리우길 희망한다.

동화를 쓴다는 이유때문일까,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동안인 정채봉동문을 바라볼때 '그의 영혼까지 순수하다'고 얘기하는 세간의 평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어릴때 자란 환경이 커다란 영향을 미친것 같다"고 말하는 정동문은 평균치적인 시골벽촌에서 자랐지만 작은 돌풀을 보고 미세한 바람을 느끼기도 했던 평범치 않은 삶을 보냈다.

이러한 것은 수필집 '스무살 어머니'에서도 읽을 수 있는데 정동문은 "수필의 특성상 처음과 끝이 나를 벗어날수 없기 때문에 수필집을 내면서도 가장 쑥쓰럽고 내자신이 고통스러워진다"고 털어놓는다.

"동대에서 글잘쓴다고 소문나면 곧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다는 얘기와 별로 글을 잘 쓰지 못했어도 큰소리치고 다닌 사람이 많았을 만큼 그때는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회고하는 정동문은 학창시절에 대한 기억을 늘어놓는다.

'신입생 백일장때 고전소설을 가르쳤던 김기동교수가 양동이에 막걸리 한말을 붓고 시범으로 마셨던 일, 도서관에서 싸온 도시락을 난로위에 데워 먹던 일하며 버찌따러 나무에 올라갔다가 옷이 찢어진 일 등……'

자신은 금광을 발견한 광부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한다며 금이 있는지 여부를 감별하는 일은 읽는이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정채봉동문은 "짧은 글과 그림으로 이뤄진 지금까지 형식을 지양하고 소설 '어린왕자'와 같은 영양있는 동화를 쓰고 싶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글쓸거리를 찾기위해 평상시에도 늘 관찰하고 생각하며 산다는 정동문은 작은것을 넓혀보려하는 작가다. "모래 한알, 풀 꽃 하나에서도 충분히 지구를 볼 수 있다"

문득 '사소한 것이 소중하다'는 그의 동화 한편이 떠오른다. "평범한 생활을 즐기는 것 곧 적은 기쁨을 알아봄이지. 느낌표가 그치지 않아야 해. 다슬기의 감칠맛, 상쾌한 해바라기, 기막힌 노을, 총총한 별빛……"

〈김소영기자〉

문화단신

◇'참사랑 쉼터'돕기 안혜경콘서트

여성문화예술기획은 '참사랑 쉼터'를 돕기위한 기금마련 공연으로 '안혜경 콘서트'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라이브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참사랑 쉼터'는 송탄지역의 기지촌여성들과 그들의 아이들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놀이방과 공부방 운영, 어머니들의 상담과 교육을 맡고있는 공간으로 재정과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공연이 마련됐다.

안혜경은 '92년 보다 전문적이고 대중적인 여성문예운동의 필요성에 의해 '여성문화예술기획'의 설립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만든 노래 중에서 환경노래와 여성노래를 모아 음반으로 출반한 바 있다.

이번콘서트는 '누나생각' '닭쌈' 등의 동요와 '침묵의 봄' '아느냐 내 딸들아'등의 환경·여성노래, 신곡 '가던길 멈추고'등으로 구성되며 초대가수로 박은옥, 권진원, 안치환등이 참여, 연주와 노래는 '사랑과 나무'가 맡는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대학로 라이브소극장/문의는 762-6048/입장권 구입은 본사 문화부

나, 「뉴에이지」로 다시 태어난다

이제, 한 세대가 시작되는
진원지는 나
나, 뉴에이지로 다시 태어난다
신세대 겸용샴푸
뉴에이지

신세대 겸용 샴푸 「뉴에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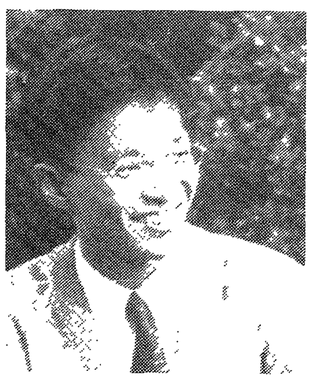
제일식품 ■● 을지병원
You & I 후문 동국대

■뉴에이지를 만날 수 있는 곳 YOU & I Tel.268-1134/제일식품 Tel.264-0694

BEST LIVING 베스트리빙
제일제당 생활사업부

◇제27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안진우(국교 4)군을 만나

"자주적 총장선출투쟁과 재단혁신 불가피"



제27대 총학생회 정·부회장으로 안진우(국교4)·곽유찬(야간영문 3)조가 당선됐다. 이에 이들을 만나 소감과 함께 내년 학생회 사업운영방안등을 들어보았다.

—제27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소감은.

=우선 선거에 참여한 모든 학우에게 감사한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학생회가 올바로 서있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해나가겠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범동국구교운동'은 재단개혁과 더불어 본교의 개혁안으로 정리될수 있겠는데, 이 운동을 풀어나갈수 있는 방안은.

=기간의 학원자주화투쟁이 쟁취와 합의의 투쟁인 반면, 그 합의한 것을 제대로 받아안지 못했다. 이제 동국대를 살리는 것은 학생들의 힘만으로는 안된다는 한계선을 명확히 그어내고, 교수·직원들과의 연대를 이끌어 내야한다. 그러나 그이전에 학생들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학생들이 변화해야 한다. 학자투를 해나가면서 학교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유하고 그것으로 학생들의 구체적인 삶까지 변화해야 진정 '개혁'이라는 것이 가능하다.

범동국 구교운동은 제국주의를 과감히 청산하고 민족정신과 민족자본으로 세워진 민족동국대학교를 살려내는 것이다.

동대인다울수있는 민족정신을 배우는 학교로 되살리는 것이며 이것을 위해 자주적 총장 선출투쟁과 재단혁신은 불가피한 것이다.

—현재 총장선출을 위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생대표로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재단, 교수만의 총장이 아니려면, 또는 학생들만의 총장이 아니려면 제주체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는 선거가 돼야한다. 그리고 무능·비리·부정으로 점철된 총장이 뽑혀서도 안되며, 교수·직원·학생 모두를 안을수 있는 총장이어야 한다.

—이번 제27대 총학생회 선거과정을 평가한다면.

=이번 선거는 과열·비방선거 또는 바람몰이식 선거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아쉬웠던 점은 올해의 총학이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했던 것처럼 선거에도 관심이 적은 것이 투표율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차기 총학생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앞으로의 각오는.

=학생회 사업을 하는 일꾼들이 먼저 변화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과대와 과학생회장들이 변화해야한다. 직접 만나면서 정책을 풀어나가는,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유리 기자〉

◇제10대 총여학생회장 당선자 김나영(교육 3)양을 만나

"여학생 소모임중심으로 단위건설에 주력"

제10대 총여학생회 후보자로 단독출마했던 김나영(교육3)·이윤수(법2)조가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당선소감과 차기 총여학생회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제10대 총여학생회장에 당선된 소감은.

=선거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총학생회 선거투표율 자체에 급급한 모습이 보여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으나 총여학생회장에 안정된 투표율로 당선돼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불안하기도 하다.

—제9대 총여학생회를 평가해 보았을 때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책은.

=단위별로 여학생회가 꾸려지지 못한 기본적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기 때문에 제9대 총여학생회의 사업은 이벤트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성문제를 '성'에만 한정시켜 생각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10대 총여학생회는 각 과나 동아리에 있는 여학생들의 학회나 소모임을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대화하는 총여학생회의 모습을 통해 단위건설에 주력하겠다.

—대화하는 총여학생회가 되기위해 정기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게시판 설치를 공약사항으로 했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은.

=제9대 총여에서 기획한 '자리찾기' 등의 간행물을 통해 모니터 모임을 열고 학교내 대학원 페미니즘 분과나 여성단체에서 강사를 초빙해 여학우들과 전 동악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겠다.

또한 토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알리고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눈에 보이고 쓸수 있는 게시판 뿐 아니라 간행물을 통해 지면상으로도 입체화시키겠다.

—지금까지의 총여학생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단위건설이 되지 않아 동악내에 여성운동이 침체되고 여학생회가 자기 색깔을 찾지못한 것이 문제였다. 여학생회가 존재해 여성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개념은 있었으나 충분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해 여학생들에게조차 외면받기도 한것 같다. 여성문제만 다루지 않고 '운동'과 남성에게 소외당하지 않는 여학생회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각오는.

=발로 뛰어야겠다. 많은 학우들을 만나 얘기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또한 내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 화장실에 여성용품판매대 설치 등 기본적인 사업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각오다.

〈곽주영 기자〉

총장선출 직원대책위 구성

"교수들만의 투표는 학교 대표할수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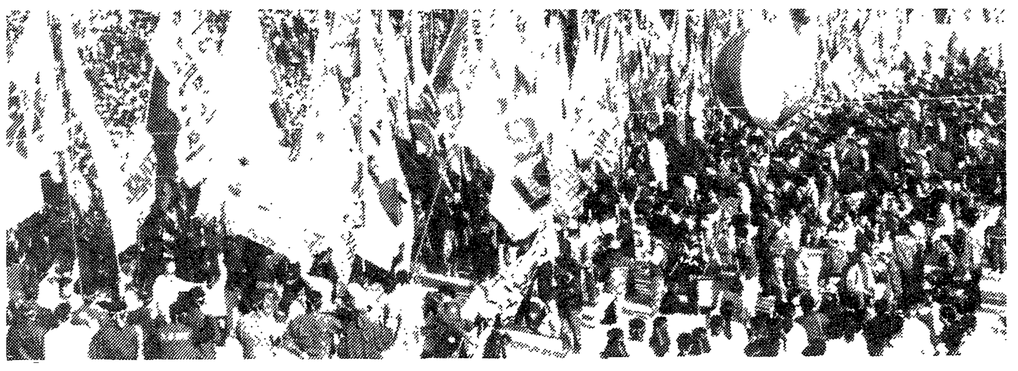
직원노동조합(위원장=김윤길 이하 노조)은 지난 10일 노동조합 비상총회를 열고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총장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열린 이날 비상 총회에서는 각 행정부서별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분임토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학생처 장운, 출판부 현명곤 직원등이 총장선출에서의 직원참여의 당위성을 밝히면서 "우리학교가 진정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총장선출에 직원이 학교구성원으로 참여하자"고 역설했다.

또한 조합원이 아닌 관리처장, 교무부처장, 공보부장등 처과장 직원들이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마치고 비상총회에 참석해 "교수회만이 뽑은 총장은 교수회장일뿐 학교를 대표하는 총장이 될 수 없다"며 "직원들도 당당하게 힘을 합쳐 총장선출에 참여하자"고 말해 처과장급 직원들도 노조와 함께 할 뜻을 밝혔다.

한편 김윤길노조위원장의 제안으로 전체직원의 동의를 얻어 발족한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김윤길노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김청옥(관재과), 김명숙(경영대학원)부위원장 및 이철교사서과장, 황래열체육부장, 선상규학생과장등의 과·부장단과 전임 노조위원장인 이건배(공관위), 문육래(구매과), 장운(학생과)등을 대책위원으로 하고 향후 총장선출에 관한 전체 직원의 뜻을 대변하고 교수회 및 학생들과 대화를 추진하게 된다.

전체 직원회의를 겸한 이날 비상총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총장선출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학사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대학 행정의 질서를 흐트리는 일체의 요구와 압력을 거부하며 총장 임후보의 뜻을 갖고 있는 보직자들은 현 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90년도 선출방식을 고수하려는 교수회의 현 입장이 대학의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학내 구성원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을 지적하며 교수회 단독선거를 명백히 반대하고 △이번 총장선출과정을 마감한 직후 재단, 학교당국은 물론 학내 제구성단체가 향후 바람직한 총장선출제도의 마련과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제의했다.



◇지난 13일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건설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 3만운집

민주노총준비위원회 발족

'민주노총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지난 13일 경희대 대운동장에서 3만여 노동자·학생들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주최측인 민주노총건설추진위원회(공동대표=양규헌등 4명)는 '건설 민주노총, 쟁취 사회개혁'의 구호를 내걸고 이날 '민주노총준비위원회'의 발족을 선언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양규헌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과거 노동운동의 한계를 냉철히 분석하여 1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담아 노동운동의 새역사를 창조하자"며 △제2노총의 건설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의 조직을 만들자 △민주노총의 강화를 통한 산업별 노동조합건설을 쟁취하자 △김영삼정권에 대응하는 노동운동의 성과를 모아 정치세력화하여 조국의 발전·통일에 기여하고 민중연대투쟁을 해나가자등의 기조를 밝혔다.

이날 노동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동계의 여러문제를 해결하기위해 △95년도 임금·단체협상및 사회개혁투쟁 △노동악법 개정투쟁 △기업별 노조체계의 타파 및 산입별노조 건설투쟁등의 추진을 다짐하고 한국노총의 통합제의를 거부했다.

한편 대회를 마친 노동자 및 학생은 경희대에서 청량리역까지 약1시간동안 시가행진을 벌인뒤 자진해산했으며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사회과학연구소 개소

사회과학연구소(소장=정용길·정치외교학)는 어제(15일) 동국관(L515)에서 민병천총장과 사회과학대 교수, 대학원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소 개소식을 치뤘다.

3세기 고분군 발굴

경주캠퍼스박물관(관장=황상주·미술학)은 지난3일 황성동 고분군 유적발굴조사를 마쳤다.

경주중심지역중 3세기때 무덤의 대규모 발굴조사로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진 이번 발굴조사는 지난 8월 17일부터 실시됐으며, △유구—토방요, 목관묘, 옹관묘등 49기(基) △토기—와전토기, 도질토기, 영질토지등 △철기 △장신구등이 출토됐다.

한편, 황상주 관장은 "이번 발굴조사는 신라묘제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제공되었고, 조사한 지역외에도 주위에 많은 유적이 밀집분포한 것이 확실하므로 앞으로 이지역 문화유적보존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하겠다"고 이번 발굴조사의 의의를 밝혔다.

농경과 교수채용문제 일단락

농업경제학과 교수채용공고 문제가 교수측과 학생측의 일부 합의에 의해 일단 마무리되었다.

지난달 교수채용공고가 나간후 학생회 산하 대책위원회(위원장=박상구4)는 교수채용공고의 파행성에 대해 농경과 교수측과 1·2차면담을 가진후 비상학생총회를 열고 질의서를 교수측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교수측의 답변이 늦어지자 지난 10일 결의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10일 오전 교수측이 답변을 통보하여 95년도 1학기 교수채용을 95년도 2학기로 연기하는 사항만 합의, 채용분야는 추후에 계속 토의하기로 결정했다.

회·전·무·대

수거된 건전지 수거하라

○…다쓴 건전지에 발등 찍힌다(?)

교내에 있는 '폐건전지'수거함이 겉만 번지르한 '폐수거함'이라는데.

폐건전지 수거함도 추세에 맞게(?) 수은건전지, 산화은 건전지, 일반건전지로 나누어 수거되도록 설계돼있으나 수거함 아래쪽에 구멍(?)이 있어 분리수거는 커녕 낙엽과 함께 쓸려 다닌다고.

건전지에 발등 찍힌 한 한우 한마디 "폐건전지, 폐수거함, 그 다음 누군가 말했듯이 폐교?"

고립

○…최근 동국관 학우들이 고립되어가고 있다는데.

이유인즉 동국관 5층 로비의 전화기는 고장난지 오래이고 1층 전화기도 말을 잘 안듣는다고.

문제는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수리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이런 이유로 동국관 학우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

이를 본 회전문대자 왈 "지난주에 동국관 전화기 수리신고하신분, 뒤에서 들었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틀

○…광고물들이 게시판이 아닌 복도나 강의실벽에 무질서하게 붙어있는데.

강의실벽에 붙어 있는 광고물은 학생들의 수업집중을 흐트릴 뿐만아니라, 떼고나면 지저분해서 학생들의 눈길을 찡그리게 한다고.

단대에는 과학생들의 정보전달을 위해서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이 적다는데.

이에 한 광고부착자 "요즘 X세대(?)들은 틀에 박혀 있는 것을 싫어해요."

눈을 크게 뜨고!

○…'사기꾼잡는 경찰도 사기꾼(?)'

'나, 믿어주세요'란 말의 주인공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요즘, 정말 믿어야 하는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

다름아니라, 충남 경찰서에서 무려 8억5천이나 되는 돈을 경사가 횡령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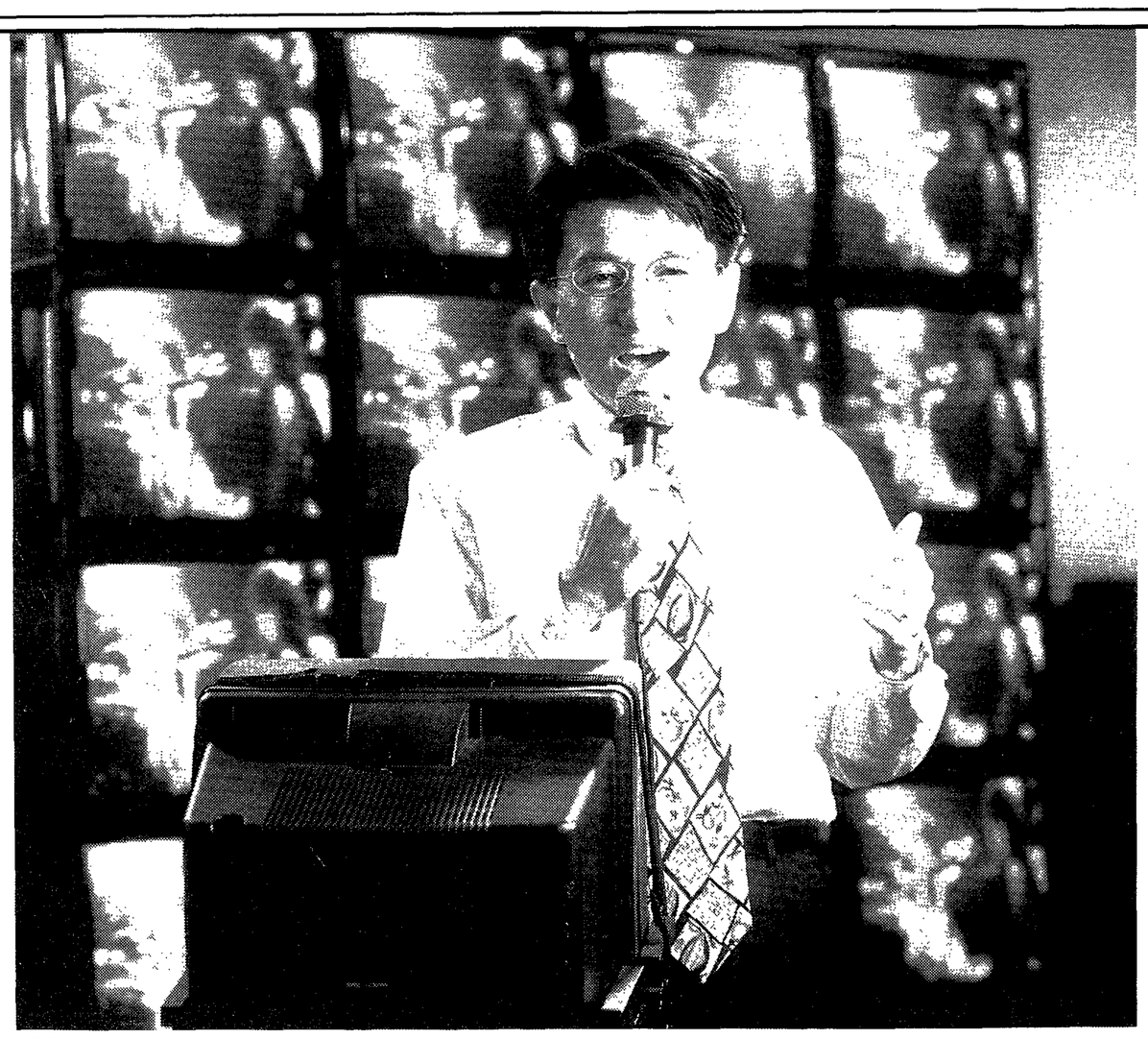
더욱이, 사건의 주인공이 20년이나 근무한 사람이라 더 충격이 크다는데.

이 본 회전 무대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경찰에서 벗어나 눈 크게 떠서 못 본 것도 다시 보는 경찰이 됨은 어떨런지"

젊은 금성, 젊은 마인드①

New…ing

GoldStar



■李誠昱
'62년 서울에서 태어나
'88년 서강대 전자피 졸업
20여 차례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으며
취미는 볼링(애버리지 190)*
현재 (주)금성사 하이미디어실 과장

60%의 과장은 신세대!

「백일째 만남」으로 가수왕에 도전한다.

금성의 과장급 직원 130명에게 물었습니다.
룰라의 최신곡 「백일째 만남」으로 가수왕에 도전할 수 있다는 사람이 60%!
사내에서 조사한 비공식 통계이긴 하지만, 그들의 나이가 대개 30대라는 걸 감안하면 다소 뜻밖이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은 금성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년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하는 지금, 금성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스스로 달라져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금성,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갑니다.

GoldStar

우리말 바로알고 바로쓰기

'의' '으로부터'등 일본·영어식 언어종속 심각

바른 국어사용으로 겨레정신 살려야

세종대왕 때의 최만리도당은 철저한 모화사대주의 사상으로 훈민정음을 부정했는데, 현대판 최만리 무리들은 철저한 친일, 친미사상으로, 국어를 일어 영어에 종속시키고 있다. 구체적인 보기를 늘어놓으면 천태만상이지만 지면이 극히 좁으므로 몇 가지만 적는다.

일어에 종속한 말

△① 타고난 ②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국민교육헌장)

①·②은 팔의 상·하박골을 바꿔 맞춰 놓은 것같은 구조고,'의'는 일본말식 속격조사다.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고' 라고 해야 국어다워진다.

△한국방문의 해 (금년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정한 표어)

일어식 속격 조사 '의'를 쓴 일어식 표어다.

이 표어를 지은 사람도 등교시간, 출근시간, 귀성길을 등교하는 시간, 출근하는 시간, 귀성하는 길이라고 하겠지만 '등교의 시간' '출근의 시간' '귀성의 길'이라고는 안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방문의 해'를 '한국방문하는 해'라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새로운 도약에의 길 (1993, 대전박람회 주제)

길을 물을 때 "이게 어디에의 길입니까" 하고, 대답할 때 "대전에의 길입니다."하면 그사람을 누가 한국인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말을 배워 쓰는 일본인 중에도 그런 얼간이는 없다.

영어 종속어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대통령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4항)

영어를 중3 학생 만큼만 아는 사람이면 밑줄 그은 부분이 영문 직역투라는 것을 곧 알 것이다. 나라 망신이다.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는'이라고 고쳐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똑똑한 중2학생이면, 밑줄 그은 부분을 훌륭하게 영역 (英譯) 하리라.

'으로부터'를 이렇게 아무렇게 쓰면 영어식 국어가 된다.

'ㅡ국민에게서', 'ㅡ국민한테서'로 고쳐야 한다.

△피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연행됐다. (고질이 돼 만연한 신문글, 방송말) 영어의 by구문식 표현이다.

'피의자를 경찰이 연행했다' 또는 '경찰이 피의자를 연행했다'로 고쳐야 한다.

△철수에 의해서 바위에 구멍이 뚫렸다.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글학회, 교육부에 계신 국어학 태두들께서 지으신 교과서에 있는 예문이다. 세종대왕께서 살아 계셨더라면 기절낙담을 하셨으리라.

'철수가 바위에 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대통령은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말씀)

영어의 기초지식을 지닌 학생이면 From구문 직역형 표현임을 곧 알 것이다. '으로부터'를 빼어버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 손색이 없다.

△신문 역시 광고주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모신문 사설)

'신문 역시 광고주의 압력을 피할 수 없다'로 해야 한다.

현명한 국민중에서 학교교육을 모르고 늙은 분들이나 국민학교 3·4학년 학생에게서는 위에 든 보기 같은 괴상망측한 말을 들을 수 없다. 일어식, 영어식 말에 오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정자와 대학교수를 비롯한 모든 고등지식인들은 오염한 말로 꽉 찬 속을 깨끗이 비우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어를 말답게 다시 배워 자라는 세대를 바로 가르쳐야 겨레정신을 지키고 문화의 꽃을 피울수 있다.

이 수 열

〈국어학자·'우리말 우리글 바로알고 바로쓰기'저자〉

영화의 패러독스

영화 '해적'공윤심의 파동

사전심의 '가위질'횡포 영화사측 반발

시대·가치관 변화에 적용할 제도마련 필요

◇영화 '해적'의 과잉삭제에 반발한 영화사측과 삭제부분 상영의 불법을 주장하는 공윤측이 맞서고 있다.

영화 '해적'을 둘러싼 공윤과 영화사와의 시비가 영화계안팎에서 시끄럽다. 시비의 발단은 영화사측에 의하면, 공윤이 가한 화면의 과잉삭제에 의해 영화사가 납득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우리나라의 현 심의제도에 의하면 모든 영화는 완성후 개봉하기 전에 공윤의 필름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필름 심의 곧 컷팅이라는 등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공윤심의의 가위질은 그 '악명'이 높다. 그러나 심의 본래의 의미가 곧 컷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심의만 할 뿐인데, 통례상 우리의 공윤은 가위질을 즐겨해왔다. 무수정삭제로 원본 그대로 통과되는 사례도 가끔 있긴 하다. 하지만 영화만드는 사람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윤의 처사에 대해 은근한 공포감, 위축감을 느끼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번 '해적' 사건은 그러한 공포감이 강한 반발심으로 이어진 사건이다. 공윤은 영화 '해적'을 심의한 결과 잔혹한 폭력살상 장면과 반사회적인 대사 일부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윤의 다수의 심의위원들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런데 결과는 지적받은 장면외에도 더많은 장면을 추가로 삭제한 것이다. 이에 영화사는 반발하고 나섰다. 지적받은 장면 이외의 장면을 자른 것은 있을 수 없는 횡포라는 것이다. 공윤은 컷팅의 기술에 대한 미묘한 점을 들어 불가피한 점을 영화사에 설명했다. 그러한 해명이 납득할만한 것이 아닌 변명이라 판단한 영화사는 횡포에 대항한 반발을 기도했다. 그들은 공윤이 과잉삭제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붙여서 일부 극장에서 상영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공윤은 영화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 상영중지를 위한 사법적 고소를 하게 되었다. 영화사 역시 만만히 물러서지 않고 있다. 공윤에 대해 맞고소를 함으로서 이 문제는 사법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의 정당성이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지도 궁금하지만 이미 그 문제와 해답은 분명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내용보다도 우리나라 심의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있으며, 구제도의 개선이 목전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중요한 사례인 것이다.

영화예술은 시대의 변화와 풍속, 유행에 가장 민감하게 변화한다. 현재의 심의기준에서도 중시하는 시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에 적용한다는 취지는 실제 영화를 심의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다. 현행 심의제도는 그러한 민감한 사안이 닥칠때마다 심의를 완화한다든가, 강화한다든가 하는 식의 조처로만 해결해나가고 있다. 그건 현재의 대중심리를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덮어버리는 기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제도 자체가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빨리 자각해야 한다. '해적'이 주는 교훈도 바로 그런 것이다. 요즘 '지존파' 사건이후로 폭력에 대한 논의가 무성해졌다. 그래서 공윤의 폭력부분 심의도 강화되었다. 하지만 영화속의 폭력은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사회가 폭력화되면서, 외국폭력영화의 무분별한 수용이후로 영화속의 폭력 모방은 오래전에 시작된 변화이다.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다. 현실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는 제도는 점검되고 전환되어야 한다. 이제 그 대안을 세우고 실천할 때가 온 것이다.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교수·영화평론가〉

◇극단 민예 월북작가 창작극 '어머니' '산(山)사람들'공연

힘겨운 삶속에도 따뜻한 정 나누던 우리네 모습 그려

원작자 이태준, '단편소설의 완성자'로 뒤늦은 주목받아

'전통 예술의 현대적 조화와 연극을 통한 인간성 회복'을 좌표로 하는 극단 민예는 월북작가 창작극 부활시리즈 '어머니'와 '산(山)사람들'을 무대에 올렸다. 오는 30일까지 마로니에 극장에서 상연되는 이 공연은 월북작가 상허 이태준의 작품이라는데 우리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1925년 '조선문단'에 '오몽녀'로 등단, 박태원 이효석과 '구인회'를 조직하기도 하고 '문장'지 편집자, 문학가 동맹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던 이태준은 '46년 월북, '88년 월북작가 작품에 대한 해금조치이후 주옥같은 수많은 그의 작품들이 문학계의 주목을 끌며 뒤늦게야 새로이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는 김동인, 현진건을 이어 한국 단편 소설의 완성자로 불리는데 대표작으로 '꽃나무는 심어놓고' '밤길' '달밤' '농토' 등 다양한 소재로

◇'산사람들'은 화전을 일궈 하루를 연명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일상의 삶을 그리고 있다.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기름장수로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를 편히 모시기위해 많은 빚을 진 만기, 그 빚을 갚기위해 외삼촌의 권유로 부잣집에 팔려 가려는 동생 만옥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뒤늦게야 내막을 알게된 어머니는 그동안 편히 산것에 족하다며 자식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준다.

무대위의 조명이 꺼지고 희미함 속에서 한 남자가 허공에 걸려있던 벽시계를 떼내어 감으로써 이미 극이 시작된다. 다시 무대가 환해졌을 때 벽시계가 없어졌음을 알게된 관객들은 저당잡힌 시계로인해 갈등이 시작되는 연출가의 의도를 짐작할 것이다. 힘겹게 살아가지만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게 하고 더불어 조선인을 욕하며 일본인에게 아첨하는 복덕방주인에게 호통치는 만기의 모습은 일제시대 진정한 조선인의 모습이다.

'산 사람들' 역시도 그당시 고산지대에서 힘겨운 삶을 사는 화전민의 이야기를 담고있는데 기자들을 일본 순검으로 착각하고 도망가는 순박한 마을남자들, 화전민의 생활을 신기하게 여기고 취재거리로 삼는 두기자, 읍으로 돈을 구걸하러 가는 불구자 용길, 약이 없어 죽는 쾌석, 가난하지만 이웃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동순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때로는 눈물겹게 펼쳐진다.

'어머니' '산사람들'들은 일제침략시대에 살기위해 몸부림치는 우리네의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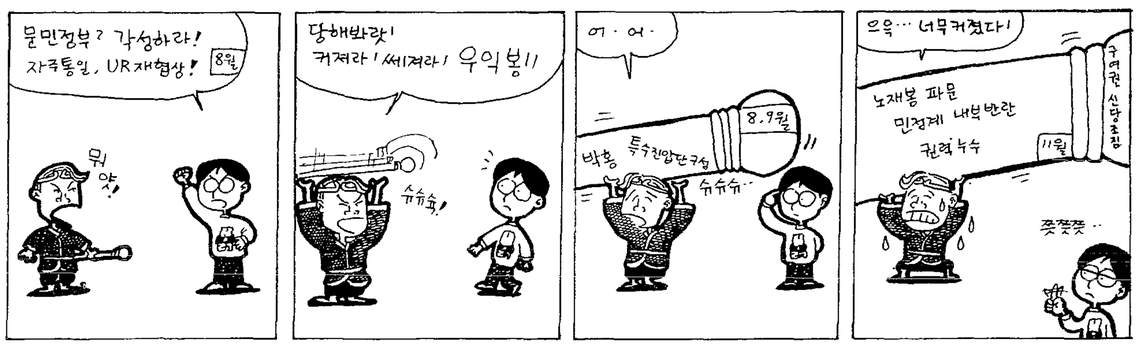
'나의 살던 고향은…' 노래가 흐르며 공연이 끝날때 관객들은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벗기기 연극'등 대중적이고 상업적인 연극이 범람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정을 느낄 수 있는 단막극 '어머니' '산사람들'을 감상하는 것은 의미있는 자리가 될듯하다.

〈김소영 기자〉

최 경 인

〈59〉



메아리

총장의 자격

▲총장의 자격이란 어떤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 되는 지금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국의 구성원이라면 다들 한번씩은 가져보았을 것이다. 학교행정의 수반, 교육자로서의 위치 그리고 동료교수들로부터 뽑혔다면 교수사회의 대표까지 대학총장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은 폭넓게 이야기되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서는 총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연세대 송자 총장에 대한 총장자격 부적격 판결은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대학 총장이란 어떤 자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송 총장은 92년 취임직후부터 이중국적 혹은 무국적 시비로 학교 안밖에서 논란을 빚어왔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비록 1심이지만 그의 총장 취임이 무효라고 결정했다. 대학총장은 교육자로서의 책임중 하나가 도덕성이라 말한다면 그가 총장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한편 대학총장이 행정의 책임자로서 역할이 강조된다면 그의 학교발전업적을 생각해봐야 할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듯 우리의 총장에 대한 개념은 한마디로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총장이라는 명칭의 역사는 1946년 미 군정하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총장은 46년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이태리계 미 해군대위였고 이렇게 시작한 우리의 총장역사는 기껏 50년에도 못미치는 형편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우리의 총장은 최고수준의 고등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기자리를 올바로 찾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일 것이고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의 총장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않된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총장은 첫째 학문적 권위와 도덕적, 인격적 표상으로 대학을 통솔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경쟁시대의 대학을 경영할 수 있는 유능한 경영자이어야 하며, 셋째 대학발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수도 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고한 자기신념을 가지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않는 개성이 강한 인물이어야 할것이다. 한마디로 대학의 어른노릇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錫〉

1995학년도 (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원 (야간) ☎260-3097·8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연구과정
   가. 불교학과 : 불교학·선학
   나 불교사학과 : 불교사 예술사
   다. 불교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학·포교학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7일(월)~11월 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1월 24일(목) 14:00
   석사과정: 영어·전공·면접
   연구과정: 서류전형·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 관리자과정 (야간) ■

1. **지원자격** : 조계종의 대덕법계품수승려·각 종단의 간부·각 신행단체의 간부 및 대표·신심이 돈독한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7일(월)~11월 21일(월)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1월 25일(금)13: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은 소정의 장학금 지급

행정대학원 (야간) ☎260-3101·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연구과정
   가. 행정학과 : 일반행정·공공정책·관광행정·언론홍보·환경행정
   나. 안보행정학과 : 외교국방·방위산업·군사전략·안보정책
   다 공안행정학과 : 경찰행정·소방행정·교도행정·사법행정 사경비
   라. 복지행정학과 : 사회복지
   마. 북한학과·북한체제·북한행정 북한사회·통일정책
   바 지방자치학과 : 지방행정·지방의회·지방재정·지역개발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0일(목)~11월 22일(화)
3. **전형일시** : 1994년 11월 26일(토) 동국관 14:00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행정학·구술시험·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면접
5. 특 전 : 석사과정 사회복지 전공자는 1급 복지사 자격증 취득

■ 행정관리자과정 (야간) ■

1. **지원자격**
   가. 정부 각 기관의 5급이상 공무원 나. 각 군의 영관급이상 장교
   다. 정부투자기관의 임원 라 사기업체의 임원 마. 사회 지도급인사
   바.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0일(목)~12월 2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2월 10일(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경영대학원 (야간) ☎260-3106·7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경제학과 : 산업경제·금융 및 재정
   나. 무역학과 : 무역이론·무역실무·무역보험 및 해운·무역경영
   다. 경영학과 : 조직 및 인사관리·생산관리 및 계량경영·마아케팅 재무관리·국제경영
   라. 회계학과·관리회계 재무회계 세무회계
   마 경영정보학과 : 정보시스템·경영정보시스템
   바. 노사관리학과 : 노사관리
   사. 부동산학과 : 부동산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6일(수)~11월 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2월 3일(토)14:00
   논술(경영학원론)·면접
4. 특 전 : 조계종재적승려·공무원·교직원·공인회계사등에게 장학금 지급

■ 경영관리자과정 (야간) ■

1. **지원자격**
   가. 회사, 사회단체의 대표 및 간부 나. 노조간부
   다 군 고급장교 라. 정부 각 기관 5급이상 공무원
   마.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6일(수)~11월 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2월 3일(토) 10:00 서류전형 및 면접

교육대학원 (야간) ☎260-3109·10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교육학과 : 교육행정·교육경영·상담교육·유아교육
   나. 교과교육학과 : 국어·지리 역사 수학 윤리·철학 미술·한문·체육·영어·물리·화학·생물·가정·선자계산·종교·중국어교육 전공(신설)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4일(월)~11월 25일(금)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2월 3일(토) 14:00
   서류전형·면접 및 전공구술
4. 특 전 : 교육기관의 교사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력을 감안하여 전형시 가산점 부여

정보산업대학원 (야간) ☎260-3113·5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정보관리학과·정보관리 나 전자계산학과: 전자계산
   다. 신문방송학과 : 신문방송·출판잡지 라. 광고홍보학과: 광고홍보
   마. 정보통신학과 : 정보통신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21일(월)~12월 2일(금)
3. **전형일시** : 1994년 12월 10일 14:00
4. **전형방법** : 석사과정은 전공필기시험 및 면접(구술시험)
   연구과정은 서류전형 및 면접
   가. 정보관리·전자계산학과: 컴퓨터개론
   나. 신문방송·광고홍보학과: 논술고사
   다. 정보통신학과 : 정보통신개론
5. 특 전 : 공무원 언론인·교직원·군인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하며 해당분야 경력자는 우대함

■ 정보산업관리자과정 ■

1. **지원자격** : 언론계·기업체·국가기관·군인·사회단체의 중견관리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산업기술대학원 (야간) ☎260-3602·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산업과학과 : 전자, 전기공학·컴퓨터공학·기계공학·건설공학·화학공학·재료공학·식품공학·산업공학·농림자원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6일(수)~11월 30일(수)
3. **전형일시 및 방법** : 1994년 12월 3일(토) 14:00 서류전형 및 면접
4. 특 전
   가. 공무원·군인·교직원·국가산업체 및 유수한 기업체 중견간부 등에게 각종 장학금 지급
   나. 국가기관 및 기업체의 중견간부와 장기 실무경험자는 우대전형

■ 산업관리자과정 (야간) ■

1. **지원자격** : 기업체 임원 및 중견간부·고급공무원 및 장교·개인사업자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 연구과정과 동일

지역개발대학원 (경주·야간) ☎(0561)770-2091·3

1. **모집과정 및 전공** : 석사 및 연구과정
   가 개발행정학과 : 개발행정·지방자치·지역사회개발
   나. 지역경제학과 : 지역경제개발·산업경영
2. **원서교부 및 접수** : 1994년 11월 14일(월)~11월 24일(목)
3. **전형일시 및 장소** : 1994년 11월 26일(토)14:00 경주캠퍼스 진흥관
4. **전형방법**
   가. 석사과정 논문·서류전형 및 면접
   나. 연구과정 서류전형 및 면접
5. 특 전 기업체 및 국가기관 실무경험자는 우대 전형하며 공무원 등에게 장학금 지급

■ 관리자과정 (경주·야간) ■

1 **지원자격** : 정부 각 기관의 관리자급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사기업체의 간부, 공공 및 사회단체의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연구과정과 동일

문화예술대학원(신설·야간) ☎260-3605~7

1. **모집과정 및 전공**:석사과정 및 연구과정
   가. 문예창작학과:문예창작
   나. 연극영화학과:연극·영화영상
   다.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불교음악·문화재
2. **원서교부 및 접수**:1994년 11월28일(월)~12월 9일(금)
3. **전형일시**:1994년 12월16일(금)
4. **특전**
   가. 총장장학금, 동문회장학금, 우등장학금등 각종 장학금이 있음
   나. 공무원, 조계종재적승려에게는 장학금 지급함 (수업료 30%)
   다. 해외자매대학등의 연수에 참가할 기회있음
5. 기타 전형방법등 상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문화예술관리자과정■

1. **지원자격**:중진작가·연예인·불교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 간부
2. **원서교부 및 접수, 전형일시 및 방법**: 연구과정과 동일
3. **전형방법**:서류전형, 면접

동국대학교

금주일언 비록 저 높은 하늘이니 신, 악마, 범천, 제석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신을 이기는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 〈법구경·술천품 285절〉

東大新聞

발행인 민병천 / 편집인 겸 심의실장 익섭 / 주간 이만성 / 편집국장 이익석

펴 낸 곳 :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57)

제 1163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13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4년(불기2538년)11월23일 (수요일) 1

장내순씨 12억 상당 임야기증

병원 건립·장학사업 당부

독실한 불교신자인 장내순(70·서울 성북구 장위1동)할머니가 후학양성을위한 발전기금으로 써 달라며 시가 12억원 상당의 임야 4천평을 본교에 기증했다.

지난 18일 총장실에서 임야 등기를 기증하고 민병천(정치외교학)총장으로부터 감사패 및 우황청심환 한 상자를 수여받은 장내순 할머니는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살 수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다"며 "자신을 대신해 임야에 병원을 건립하거나 장학사업으로 써 달라"고 당부했다.

장할머니가 기증한 임야는 충남 아산군 영인면 신운리 소재로 야체장사, 밥장사 등 30년간 행상을 하면서 장내순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으로서 평소 장할머니가 다니던 수월암 효성스님과 의논이후 본교에 기증하게 된것이다.

한편 본교에 기증된 임야는 현재 공장부지로서 이후 구체적 논의를 통해 병원을 짓거나 기타 장학사업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장내순할머니의 임야기증에 관해 학교의 한 관계자는 "불자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계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며 "장할머니가 평생 동국한방병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신입생 입학시험 1월 9일

등록포기각서등으로 합격자등록 수월

95학년도 본교 신입생모집을 위한 면접고사가 특차모집 오는 12월 29일, 전기모집, 내년 1월9일에 각각 실시된다.

이번 입시에서 본교는 대학본고사로 서울캠퍼스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실시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과 다른 계열에 지원시 감점처리하던 작년과는 달리 예·체능학계학과 지망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계열에 구분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계열은 교차지원을 할 수 없다.

서울 캠퍼스 10개학과(불교, 국문, 영문, 법, 경찰행정, 경제, 정보관리, 전자공, 컴공, 건축공) 63명, 경주캠퍼스 2개학과(한의예, 의예) 13명을 뽑는 특차모집은 12월 20일부터 원서교부를 시작해 △원서접수는12월 29일이며 12월 31일이전에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총 4천7백24명을 뽑는 전기모집은 오는 12월 20일부터 원서 교부를 하고 △원서접수=95년 1월 2일~4일 △예비소집=인문·자연계(서울 1월 8일, 경주 1월9일), 예·체능계(서울 1월 7일, 경주 1월8일) △대학본고사='95년 1월 9일(서울캠퍼스) △면접고사='95년 1월9일이고 1월 12일부터 1월15일까지 논술고사 체점을 하여 내년 1월 25일 이전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

한편, 예·체능계 실기고사는 △체육교육과='95년 1월 8~9일 △미술학과='95년 1월 10~11일 △연극영화학과='95년 1월9~11일 경주캠퍼스 △국악과='95년 1월 10~11일 △사회체육학과='95년 1월 10~11일에 각각 실시한다.

면접고사가 타대학과 달라 복수지원이 많아 미등록자 증원이 힘들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엔 20여개 대학과 같은날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함께 발표한 후 '95년 2월 4일 3시 예비합격자의 등록희망원이나 등록포기각서를 제출케 해 '95년 2월 6일 1차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고 이후 2차부터 추가합격자는 개별통보하는 등 합격자 등록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규교원 총3백54명 응모

경쟁률 평균 7대1

'95학년도 1학기 신규교원 초빙에 총3백54명이 응모해 오는 12월6일까지 학과심사에 들어간다.

서울캠퍼스 38명, 경주캠퍼스 41명의 신규교수를 초빙할 계획으로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16일 마감된 이번 신규교원 초빙에 서울캠퍼스 일반계열에는 △불교학과=7 △국문과=2 △영문과=영어학6, 영미소설4 △독문과=1 △수학과=5 △전산통계학군=4 △반도체과학과=9 △경찰행정학과=2 △사회학과=10 △경제학과=13 △무역학과=국제통상분야 9, 영어분야 1 △회계학과=8 △정보관리학과=5 △생명자원경제학과=농업경제학2, 농업정보체계4 △전자공학과=12 △컴퓨터공학과=14 △전기공학과=8 △기계공학과=기계공작법10, 동역학9 △토목공학과=8 △건축공학과=10 △산업공학과=수리계획론4, 제조기술·설계6 △국교과=5 △교육학과=3 △지교과=6 △가교과=18 △미술학과=조소4, 한국화3 △연영과=8명 등 총 2백53명이 지원해 평균 7.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한 69명이 지원한 경주캠퍼스 일문계열에는 △불교아동학과=1 △국악과=9 △일문과=3 △국사학과=3 △화학과=16 △생화학과=15 △전산통계학과=1 △전자계산학과=6 △경영학과=13 △정보산업학과=2명으로 응모현황이 집계됐으며 한의학계1명, 의학계14명과 포항병원17명 등 의학계에 총 32명이 응모했다.

이번 신규교원은 12월6일까지 학과심사를 마친후 총장및 학과장 등 관련인사와의 면담을 거쳐 재단이 사회에서 최종 결정해 초빙하게 된다.

학생처장·문과대학장 사표수리

지난달 31일 있었던 국문과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부총장 이하 모든 보직교수들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학생처장과 문과대학장의 사표만이 지난 21일 수리됐다.

한편 이부대학장은 병환으로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 리 수

신앙적 주체성

우리나라의 불교역사와 문화에 있어서 신라인들의 주체성은 단연 돋보인다. 그들은 불교를 수용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인도·중국과의 연관 속에서도 철저하게 신라 본위적 사상과 그에 대한 긍지를 잃지 않고 있다.

불교의 본격적인 흥륭에 나섰던 진흥왕은 신라 최대의 국립사찰 황룡사를 세운 다음 이곳에 일장육척의 석가모니불상을 조성해 모시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이 장육존상에 관한 연기설화가 실려 전한다.

인도의 아쇼카왕이 나라 안의 황금과 철을 모아 석가삼존상을 주성하려다 끝내 이루지 못하자 '인연있는 나라에 이르러 존용이 이루어 질 것'을 축원하면서, 사연을 적은 글과 함께 모형 삼존상을 큰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다 한다. 이 배가 1천3백여년을 떠돈 끝에 마침내 신라 남쪽 아곡현 사포(지금의 울산 미포)에 닿음에 진흥왕이 사연을 읽고 금철을 경주로 옮겨 훌륭한 존용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이 설화에는 신라가 부처님의 탄생지 인도보다 더한 불연국토임을 자부하는 신앙심이 담겨 있으며, 진흥왕의 불교적 위치가 아쇼카보다 더 뛰어나다는 자긍심을 보여준다.

이같은 신앙의 주체성은 선덕왕대의 고승 자장에게서도 잘 나타난다. 자장은 율사인 동시에 실천적인 화엄신앙가였다.

그런 자장이 문수성지로 널리 소문난 중국 오대산을 참방코자 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는 선덕왕 5년에 당으로 건너가 오대산을 찾았고, 여기서 기도 끝에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할 수 있었다 한다.

그런데 한 이승(異僧)의 모습으로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자장은 "그대 나라 동북방 명주 땅에도 오대산이 있고 그곳에 일만의 문수가 상주하고 있으니 가서 보도록 하라"는 말을 듣는다. 우리나라 강원도 오대산은 이렇게 해서 자장에 의해 설정된 문수도량이다.

화엄경에서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그리고 지혜(prajna) 그것은 곧 실상을 깨달음이며 보편타당한 진리에 대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자장의 문수보살 친견은 그대로 보편타당한 진리와의 만남인 것이다. 따라서 그런 문수보살이 신라엔들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신라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적 주체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마음 밖에 진리가 따로 없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구하랴(心外無法 胡用別求)'라고 말하며 당 유학을 그만 둔 원효에게서도 나타나고, 찬연한 불교문화 예술의 곳곳에서도 그 향기를 짙게 느낄 수 있다.

국제화, 문화개방 등 이 시대의 이슈에 비추어, 새삼 음미해 보아야 할 한국불교의 신앙적 주체성인 것이다.

李 逢 春

전학과 대상 계열군통합추진

95년 교육과정은 현행대로

교무처(처장=정병조·국민윤리학)는 본교 학군·계열군 통합작업과 관련해 '95학년도 교육과정을 현행태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교양교육과정은 매 해마다 부분적 개정이 되고 5년마다 전반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개편시기를 맞아 현행 교양교과과정은 대학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처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고 또한 95학년도에 있을 대학종합평가에 대비하기위해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무처는 올 7월부터 "95학년도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교수 연구팀을 구성해 전면적인 교양교육과정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그 구체적 실시를 위한 본교 교육시설 및 강의여건 등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러던 중 올 7월 교육부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대전환 추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군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추진이 계획되어 본교의 교과과정개정 유보가 결정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현행의 세분화된 학과구조로는 △세계적 학문 조류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의 중복성 △학문 영역별 폐쇄운영 △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의 제한 △졸업자의 취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학과군 또는 계열군으로의 통합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대학지원정책의 일대전환을 예상함에 따라 본교는 내년부터 '전산통계학군'을 학군개념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고 96학년도에는 학내 여론수렴을 통하여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학군 또는 계열군으로서 통합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한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학과조정작업과 더불어 교육과정도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므로 학군 통합과 교과개정의 연계적 추진도 구성하고 단과대학별 교육과정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영구제안토록 결정했다.

원광대학원과 학점교류추진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는 원광대학원과 학술교류차원에서 학점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원광대학교는 지난 7월 22일 국내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본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대학으로 15개 단과대와 86개 학과, 5개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점교류가 체결되면 원광대학원생과 본교 대학원생은 상대 대학원의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다.

국제부의 한 관계자는 "원광대와는 같은 불교대라는 특성때문에 교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제부는 영문책자발간, 동양대, 서북대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총장 방문등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알 림

이번호(제1163호)로 94년 2학기 동대신문은 종강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32회 학술상 및 제9회 동대문학상 공모

제32회 학술상 작품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사 학술상이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학문연구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동국의 학풍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인문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사회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자연과학상: 본상및 가작(본상 50만원, 가작 25만원)

◇응모요령
3개분야 모두 2백자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입상작과 함께 발표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입상작 발표
1995년 1월1일자 본지지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람
전화 (02) 260-3491·2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동국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인재를 발굴하고자 제9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평론부문: 2백자 원고지 60매내외

◇응모자격
서울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4년 11월10일~30일까지

◇시상
시 부문: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발표
1995년 1월1이자 본지 지상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지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람.

모니터 요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1. 어학특강 5명
2. 기능강좌 5명
3. 도서관 5명
4. 식당 5명
5. 기타 매점 5명
6. 기타 시설 5명
7. 연구활동 1 5명
8. 연구활동 2 5명
9. 연구활동 3 5명
10. 연구활동 4 5명
(총 계 50명)

목적
1. 학우들의 요구 직접 수렴
2. 생협의 기초토대인 직접 민주주의 구현의 기초 ☜자발적 참여, 자신의 의사 반영
3.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제와 협조

역할
1. 주1회 모임을 갖고 1주에 대한 평가
2. 월별/분기별(설문을 통한)학우 의사수렴
3. 분기별/학기별 프로젝트 연구
4. 학복위/공관위(향후 생협)에 대한 학우들의 홍보/교육

자격
1. 본교 재학중인 학생
2. 1년정도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자
3. 본 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

혜택
1. 학복위에서 실시하는 특강 무료 수강(임의 조정)
2. 정기 모임시 자료/연구비지원
3. 기타 지원은 요원 선발후 공지함

모집일자: 94. 11. 23~11. 30.

학생복지위원회

공 고

교수회규정 제 44조, 동국대학교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13조, 제 14조 및 제 15조에 근거하여 제 13대 총장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다 음

-선거일:1995년 1월 15일(일)
(선거장소, 시간 및 기타 선거관련 사안은 추후 공고함)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1995년 1월 3일 부터 1995년 1월 5일까지(09:00~17:00)
·등록장소: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입후보자 등록 확정공고:1995년 1월 6일 09:00

※입후보자 등록기간 마감전까지는 일체의 사전 선거운동을 금하며, 위반시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총장후보추천에 관한 규정 제 5조에 의거 후보자격 심의시 이를 반영할 것임.

1994년 11월 15일

제13대 총장후보추천선거관리위원회

조대 시

다시 지리산에서

전 남 진
〈경주국문 94졸·동국문학회 7기〉

산이 보이지 않는다
돌과 나무와 공기, 소음 몇개만 있다
길에 선명하게 찍힌 세월을 밟고 간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의 차이는 남아 있지 않다
늙어가는 생각과 싸운다
얼마나 더 긴 세월을 보내야
산이 보일까
밤까지 산행하기로 하고
랜턴을 미리 꺼내 불빛을 확인한다
지금은 조그만 불빛만 있다
그러나 곧 길을 보여주는 빛을 만들 것이므로
내가 살아 있고
우리가 살아 있는 까닭이다
산에 길이 있고
길에 산이 산다
길을 가다 보면 산에 내가 있고
내 속에 산이 생긴다
새벽이 저기 길을 만드는 회색작업
거기 우리가 산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선거, 신문·방송역할 커

지난 제1162호 동대신문은 요즘의 선거열기를 반영하듯이 선거기사로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5면의 경주 선거특집은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제1160호)과는 큰 차이를 볼 수 있다. 우선 지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인터뷰형식이 주를 이룬 서울캠퍼스의 선거특집과는 달리 구호와 주요공약이 눈에 보이기 쉽게 만들어 인상깊었다.

4면의 동악로에 실린 "선거전·후"에서 서울캠퍼스의 투표마감 1시간전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신문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선거자금의 축소와 선거열의의 축소로 투표율저조는 예상되었던 일이다.

유세취재를 하며 보았듯이 선거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것은 선거운동원뿐만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의 역할도 크다고 보겠다. 매주 신문을 보는 학생들에게 투표율저조라는 기성신문의 보도형식보다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기사를 실었으면한다.

김 정 식
〈공과대 산공과·본사모니터〉

경주선거특집 적절

지난주 동대신문(1162호)1면, 7면 학내보도면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와 각단대회장 선거의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투표율과 공약사항등의 기사가 실렸다. 신문의 보도와 같이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게 기록했는데 학우들이 학내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무관심한지 여실히보여준 기사였다. 학우들이 주인된 권리를 하루 빨리 찾아주었으면 한다.

경주 선거특집 후보자들의 약력공약사항을 다룬 기사는 진정한 알권리충족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보도'의 측면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다.

그리고 여론매체면에 '연가'라는 제목의 투고시가 실렸는데 재미는 있었으나 그 작품에서 흥미 이상의 다른 것은 기대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좀더 신중한 선정과정을 거쳐 작품을 기재 했으면 한다.

또 한가지 개교1백주년 기념사업 기금 기부자 명단이 2면의 반 정도를 메우고 있다. 광고면을 이용해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사인데, 지면 메꾸기 식의 이러한 기재는 지양 했으면 한다.

김 필 중
〈법정대 법학과·본사모니터〉

열린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만화를 보내주십시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노동자대회 통해 새로운 시각 형성 어려운 현실에 관심 가지게

많은 선배들과 함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경희대에 들어섰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여기저기 흩날리는 전단들은 나의 가슴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대운동장에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운집한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보고 처음에는 어리둥절 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모였을까? 어려서부터 보아온 대중매체에서는 노조를 나쁜쪽으로 많이 보도를 했기때문에 솔직히 이런 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선배들과 동기들의 꼬임(?)에 빠져 참가한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대회에 왜 학생이 참가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 나에게 있던 거부감이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다.

화려한 문선대의 공연과 많은 연사들의 약간은 딱딱하지만 힘찬 연설은 거기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강한 감동과 인상을 남겨주었다. 연사들의 연설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노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다시 새로운 생각들이 내머리속에 억지가 아닌 강한 설득력과 올바른 당위성으로 인해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것들을 개선하려고 많은 난관과 고통을 이겨나가며 민주노총건설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노동자들의 권익과 서민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는 노총이 없기때문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고 모순된 사회속에서 대학1년을 보내던 나는 이제 노학연대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방관자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변혁의 주체로서 미래의 노동자인 우리 대학생은 어려운 노동자들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정 수 경
〈공과대 컴공과〉

동/문/칼/럼

대학의 지성과 도덕성 결핍증 불교정신으로 나서서 회복하자

오 규 석
〈한의학 94졸·경남 양산군 기장한의원장〉

한나라의 어제를 보려거든 박물관을 찾고 오늘과 내일을 보려거든 대학을 보라고 말해진다. 대학은 시대의 체온계요 나침반과도 같다. 대학은 스스로 역사와 시대의 아픔을 먼저 앓는다. 그리고 대학은 한편으로 시대와 역사의 웃음을 먼저 피워낸다. 대학은 좁은 현실에서 보다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들을 제시할 책무를 지닌다. 학문사상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도 그 책무의 반사로 요구되는 제도의 보장에 다름니다. 대학자치는 왜 자생했는가? 그것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외풍(外風)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의 훔볼트가 베를린 대학을 설립하면서 총장을 교수회에서 선출토록 했던 전철은 그 대표적인 선례이다. 교육정책과 학사행정 및 재정 인사에 이르기까지 대학에 있어서 오늘날 교수회의 자치역량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생도 물론 대학시설의 이용자이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대학주체로서의 평등권과 함께 교수의 자유와 대등하게 학습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긍정적인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에 의한 '교수평가제'는 머지않아 각 대학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가에 앞서 학생들의 자신이 교수이상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은사'라는 이름이 고귀하듯이 '제자'라는 이름또한 고귀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제자'였음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모로 보나 오늘의 대학은 그가서 있어야 할 '제자리'에 제위치에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의 제자리 이탈은 과연 대학만의 잘못인가 아니다. 대학이 빼앗긴 제자리는 이 사회의 제자리 이탈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이 시대의 모든 사회계층들이 두루 제자리에 돌아갈때 대학도 대학다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대학이 제자리를 되찾아야만 주체인 대학인들도 누려야할 제자리를 누리게 된다.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진 대학인들이 더이상 시대의 속죄양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성과 도덕성과 제구실의 면역결핍증이 오늘의 대학에 더욱 저항력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다. 지해와 자비에 의거한 인간의 자기완성과 불국정토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불교정신에 입각한 우리 동국인들이 선도적으로 나서 오늘날 실추된 대학의 면역결핍증을 회복해야 되지않을까 한다.

자유발언대

학생회관은 쥐들의 왕국

공간부족, 시설낙후 등 문제심각

총여학생회 선거를 준비하면서 학생회관출입이 잦아진지도 한달이 되어간다.

올해 동아리연합회의 공간문제에 대한 투쟁을 지켜보면서 막연하게 느끼던 학생회관의 문제점들이 이제는 피부에 와 닿는 걸 느낀다.

나를 처음 가장 놀라게 한것은 학생회관에서 길러지고(?)있는 쥐들이었다. 이제는 웬만해서는 쥐들을 보아도 그리 크게 놀라지 않을 정도이다.

학생회관은 가장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목적하에 출입하고 있다.

현재 우리학교의 학생회관에는 1층에 총학생회실과 총대의원회실이 있고 몇개의 동아리방도 있다. 2층에는 가정교육과 실습실인 연화원이 있고 세미나실, 총여학생회실, 동아리방, 3층에는 동아리연합회실, 상설전시장, 동아리방들, 4층에는 방송국과 동아리방들, 5층에는 소극장과 동아리방들이 있다.

그리고 지하에는 동대신문사와 영자신문사, 6층옥상에는 백상응원단이 있다.

주로 동아리방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실제로 공간이 매우 부족하기에 세미나실, 동연실 등이 제 역할을 못하고 동아리방으로 쓰여지고있다.

동악의 공간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 현상이지만 특히 학생회관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그래서 올 1994년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투쟁을 벌여나갔다. 이에대해서 학교측도-특히 95년 있을 대학평가에 맞추어서-학생회관의 공간재배치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회관은 동아리방들이 모여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설전시장과 세미나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너무 낙후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전시장, 이곳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못했던 것같다.

현재 동아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미나실도 공간재배치 속에서 꼭 확인되어야 할 부분이다. 동아리방들을 들어가 보면 각 동아리마다 방의 크기 차이가 존재한다. 물론 기간의 활동 속에서 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동아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간부족의 문제하에서 어느정도의 규격화는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재배치시 분과끼리 모이게 함으로써 서로의 특성을 활용하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동벽의 설치의 이야기가 학교측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부분도 공간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안이라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것은 처음에도 언급했지만 쥐들이 득실될 정도로 더럽고 낡은 시설과 환경이다. 이제 깨끗한 학생회관의 모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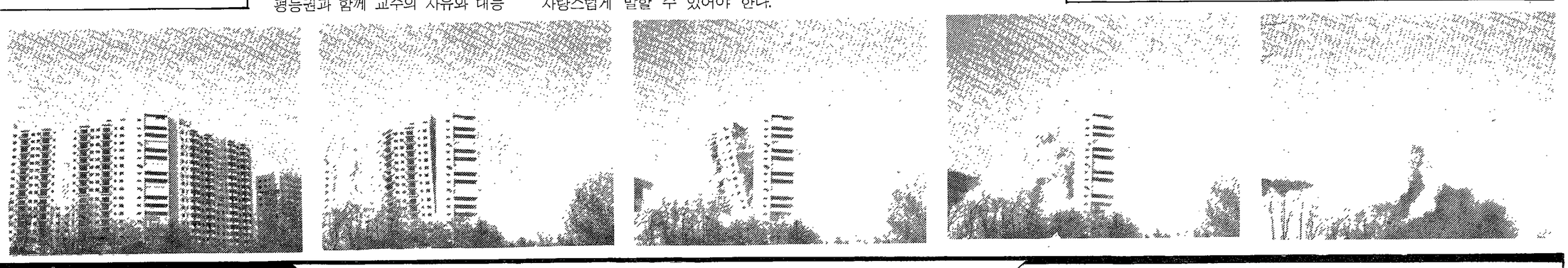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학생회관 이전에 쾌적하고 깨끗한 그래서 기분이 좋은 학생회관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우리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일임을 잊지말자.

김 나 영
〈사범대 교육학과·제10대총여학생회장〉

◇남산 외인아파트 철거

와우!

윤 용 민
〈사범대 지교과〉



동/악/광/장

목멱골

◇축하합니다

■D.U.C.A프로그램전시회가 계산관 2층에서 합니다. 축하합니다.!!
-두카를 사랑하는 '94재순

■비구니회 기숙사개원식을 축하드립니다.
-불교학생회

■드디어 동대합창단이 정기공연을 하게 되었네요.

■손짓사랑회 9기 수료를 축하합니다.
-강사님 일동

■KCC의 카니발 음청 축하한다. 12月3日. 어디라고?
-88같은 94기록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Youth-Hostel이 방송됐습니다. 하하하
-15기 학우

■나우누리 백상(통신) 12월1일에 작은모임 백상이 드디어 동아리로 승격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백상지기 올림

■상윤이형(12·4), 선경아(12·1) 생일 축하해.
-S.K

■선영아(11월28일) 생일 축하해
-JOKA

■경문5기 백승권선배(정·외), 아기(다마)백일 축하합니다. 형수님 생일도요.
-경문 후배 일동

■지리교육과 학예지 '지표공간'의 발행을 추카합니다!
-'94 일동

■체교 25대 학생회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구요. 26대 학생회 탄생을 축하해용!
-동수

■2학기동안 과대표로 수고한 우리의 hope곰(유환)의 생일을 축하하며 그동안 고마웠다.
-화학과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석종·유리·주영·수정·소영이형! 1년동안 신문 만드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36기 일동

■1년동안 수고한 과대표 진근아! 수고많이했다.
-'94 지교동기

■경인아 수고했다. 내년에도 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동기 성국

■머릿돌 1년동안 수고했수.
-영?

■올 한해 수고하신 사우회 15대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떨어진 똥

■AD-RUSH전시회가 잘 끝나서 기뻐요. 특히 이수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계 범수

■C.A.P.S 1년동안 열심히 활동한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말고사 잘들보세요.
-짱

■"경축 통·조인의밤"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Fighting!
-자근방 식구

■1년동안 수고한 DUBS36기 일동 모두 몸 건강히 지낼 수 있도록
-K·H·S

◇그리고

■법94 여러분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

■지리교육과 글패'하구언'이 정기총회를 가졌고, 새로 다시 시작한대요. 무한한 발전이 있길…
-慧

■정윤(무역 94)아! 군대잘가라! 꿀에 날 파리는. 비오는 날 활주로에서 미끄러지지 말고 잘 지내라.
-OSBISIOS (무역과 Outsider일동)

■"한국고대사연구회" 張님(?) 1년동안 수고많이 하셨어요. 군대 잘다녀오시구요, 탈영하면 안돼요.
-your 1004

온방골

◇축하합니다

■박상옥, 네 20번째 생일을 백골난망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태묵

■무정이와 미화의 생일을 축하하고, time4학년 선배님들의 사회생활이 순탄하시길 빕니다.
-time人

■불휘 15기 기장 멋진세환이 생일이 11월19일 이래요. 같은 생일인 진실이가 축하한다.

■세환아, 진식아 생일 축하해!
-자아탕 희야가

■스무해전 신세계교향곡과 함께 울음을 터뜨린 태영이 오빠의 생일을 축하해요!!
-Y·L

■태묵, 넌 역시 좋은 놈이다. 20번째 맞는 생일 멋있게 보내길 바란다. 사랑한다.
-친구로부터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정기전시회(15회)무사히 마쳤걸랑요, 수고 많이한 집행부이하 선배님·후배님 내년엔 더 열심히…그리고 전시회 찾아주신 학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영상人

■창단기념식 및 졸업생환송회 하느라 고생많으셨고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호우회 15기산에

■여보게 주군! 공연하느라 한해 동안 애썼네
-?

■제13회 동목서예전시회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회원님, 그리고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시한번 동목회의 무한한 발전을…
-동목을 사랑하는 人

■형호야·일옥아·명화야·지형아·강덕아 이제 L·T도 끝났구나. 1년동안 수고했다.
-8기가

◇열심히 합시다

■효성아! 네가 왔다가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앞으로 네 생활 열심히 해라
-T·M

■환익아! 시험잘봐
-산·안·공

■제12대 총학생회 건설을 위해 입후보한 배문석·고희철의 열정을 믿으면서 꼭 승리하기를…
-광춘

■연극회 2학기 워크샵이 아쉬움을 남기며 끝났습니다. 더욱 열심히 연기하는 15기가 됩시다.
-동국연극회 15기長

■DUCO9기들에게 L·T도 끝났고, 이제 너희들의 1년이 시작되는 구나. 내년을 부탁할께.
-8기

◇알립니다

■국·경 귀염둥이 효식님께서 군대에 가신다네요.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길 빌며.
-전94 국·경인 일동

■솔메리아 '94 마지막 콘서트가 11월 21일 소강당 I 에서 있었습니다. 선·후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8기

■23일(수요일)원효관 소강당 II 에서 공개 오페라감상회를 갖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무료입니다)~8기·9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필하모니長

■24일 로타랙트 일일호프합니다. 할아버지·할머니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학우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로타랙트 일동

◇그리고

■인혜야. 항상 네옆에 내가 있음을 잊지마. 그리고 200일 넘은 우리만남, 앞으로도 지속적이길…
-성원

■연신아, 너에게 해줄단한마디 '사랑해'
-J·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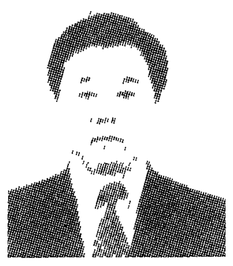
■꼭 선거일에 투표하는 자랑찬 동국학우이기를…

◇대학의 올바른 세계화란

'무국적 지성인' 부끄러워 할때 가능

시사논단

심 익 섭
사회대 행정학과 교수·본시주간



"세계화 국제화"라는 말은 여전히 만병통치 약처럼 작용하고 있다.

금년초 대통령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국제화 바람은, 기회있을 때마다 정부와 언론에 의해서 강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일면 무한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현 국제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구호로 작용하기도 하였고, 다른 면에서는 정국의 위기를 타개하고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연말을 앞둔 지금 한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화 보다는 세계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본다.

한마디로 국가간의 경쟁에 초점이 맞춰진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보다는 좀더 범위가 넓은 거시적 개념을 세계화(Globalization)라고 할수 있다. 즉 세계화란 국내적으로는 모든 부문에 합리성과 경쟁이 정착되게 하고, 국외적으로는 국제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활동하고 협력한다는 뜻이다. 이말은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모든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국가단위를 전제로하는 국제화와는 달리 세계화는 좀더 넓은 "지구촌개념"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그만큼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뜻이라고 할수 있다.

1년 내내 "세계인"이 되자고 떠들던 정·관·언론계가 대통령의 APEC 순방기간중 밝힌 "세계화 구상"으로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선언에 맞추어 발빠르게 세계화전략 구상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제화를 단순히 세계화로 대치시키는 이름바꾸기식의 전략으로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세계를 향한 미래개척의 의미를 지닌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으로는 내실화를 견고히 해야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화를 착실하게 구현할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세계화가 중요하기는 하나 코스모폴리탄 정신을 부각시키는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구체적인 전략이 나올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기에는 세계화의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국가간의 무한경쟁시대와 함께 UR등에 따라 대학에도 국제화와 세계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미 일부대학에서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좌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터네트처럼 세계적인 학술정보망의 구축을 많은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국제정보 관련 강좌를 강화하고 있고, 나아가 외국대학과의 자매결연이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바야흐로 대학도 경쟁시대를 맞아 내부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생존경쟁을 벌여야할 단계에 와있는듯 하다. 본격적으로 국제화시대를 선도하고 세계화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변신의 폭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구습에 젖어있는 한국의 대학들은 실제보다는 형식으로 만족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대부분의 자매결연 대학과의 교류내용을 보면 체결당시의 화려한 선전과는 달리 내용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극히 일부에서 교수교류와 학생교류 또는 정보교환이 있었을 뿐, 거의 모든 자매결연관계가 '형식적인 관계' 자체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얼마전 사회문제화 되었던 대학총장의 무국적 문제는 묘한 대조를 남겼다. 나아가 법원에 의한 무국적자인 총장의 선임무효 판결이후, 외국국적을 포기안하고 있는 현직교수가 4백명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고는 과연 무엇이 국제화이고 세계화인지 오늘의 대학인들에게 묻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물론 대학은 최고의 학문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국적만을 갖고 무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대비한 대학이 저마다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금 대학교수의 국적문제는 자칫 쇄국적인 망상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만의 전달로 전문인을 양성한다는 차원 이상의 의미가 우리대학교육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이는 실정법 위반 이전에 도의적 문제가 깔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혹시 무국적 지성인들이 개인적인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외국국적을 포기안한 것이라면, 이것은 세계화 이전에 심각한 교육위기를 불러올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UR타결이다, WTO출범이다 하는 세계화시대가 바로 우리앞에 놓인 현실임을 직시할때 "가장 지방적인 것이야 말로 가장 국제적인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 말로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다시한번 음미할 때이다. 어학처럼 분야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의 대학 역시 세계화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무국적 지성인'들이 부끄러워 할 때라야 가능할 듯 하다.

사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자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만들고 있다. 각자가 자기가 살아온 지난 한 학기의 생활들을 생각 해볼 만한 시기 인것같다. 바로 종강을 준비할 때가 다시 찾아왔다. 언제나 2학기 종강이 다가오면 마찬가지이겠지만 한해를 정리하는 마음과 학년이 올라가고 또 사회로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공연히 마음이 바빠지고 어수선해 지기 마련이다.

올 여름 유난히도 뜨거운 태양이 비추었다. 그리고 박홍 서강대 총장의 발언과 주사파 논쟁, 신 공안 정국, 사회 전반의 보수 회귀 현상이 뜨겁게 달아올랐었다.

이어 우리에게 커다란 파문을 던져 주었던 총장 직선제 폐단과 관련한 일련의 발표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2학기를 시작하기전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개강을 맞이하였다. 학사보고회 자리에서 이사장의 직선제의 폐단 및 더 좋은 방식 고려 발언은 우리의 시작을 혼란으로 이끌었고 이는 지난 한 학기 동안 꾸준히 학내 주체들의 주요 논란 대상이 되어 왔었다. 어찌됐든 이 문제는 교수회의 현 규정에 의한 총장 선출 결정으로 그 논점이 다른 곳으로 옮아간 상태이다.

이런 총장 선출과 관련한 일련의 논란들이 이번 학기 학내에서 주되게 이야기되었다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국문과 학생 7명의 '교수 폭행 사태'는 동국인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안겨주었다.

우선 이번 사태가 기성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나서 가지는 상실감이 그 위기 의식의 시작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위기 의식이었을 것이다. 그 동안 잊고 살아왔던 동국에 대한 자긍심, 기억 저편으로 멀어져간 동국의 학풍 등 우리 자신에 대한 위기의식은 아직도 해결해야될 과제로 남겨져 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전개되는 과정속에서 가장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학생회였을 것이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내의 정세가 총장 선출 방식 논란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학생회는 발빠르게 움직이는 듯 하였으나 '직선제 사수와 자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총궐기'이후 학생회 선거로 돌입하면서 학생회는 제 목소리를 잃어 갔다. 선거 공간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책화, 공약화 해내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학생회 체계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로 자리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물론 학생회 체계 역시 이월단계에 돌입해 있었기 때문일것 이라는 위안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이라면 진정 학생들을 책임진다고 할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뿐 아니다. 국문과 사태이후 학생회가 보였던 학내 관련 주체들의 모습은 대외적 성명서 하나 제대로 못내는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총학생회 선거의 높은 투표율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의 결과물로 54%라는 사상 최악의 투표율이 나왔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지난 한학기를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준비를 위한 기간인 종강을 맞이해야 할것이다.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가 남아있다면 깨끗이 마무리 짓고 한학기를 마감하자. 이것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닐까.

대학순위보도와 종합평가 인정제

마지막—시설설비·재정경영 평가

이번주에는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평가항목중 마지막 항목인 시설·설비 영역과 재정·경영 영역의 실태와 평가, 대책을 살펴본다.

시설·설비 영역

이 영역은 총 5백점중 1백점이 배정된 평가비중이 교육영역 다음으로 높은 부분으로 △교육기본시설(24) △교육지원시설(32) △실험실습설비(26) △후생복지시설(18)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평가 항목인 교육기본 시설부분에서 강의실 확보 정도는 현재로써는 별 무리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실험실습실의 확보 정도는 70~80%선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의 보완을 위해 동국학술문화관 건립이후 이루어질 공간 배치에서 실험실습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교육 지원시설 부분에는 도서확보의 적절성, 열람좌석의 확보, 국·내외 정기간행학술지 구독, 교육매체 제작 시설의 확보 및 실적, 교육용 컴퓨터의 확보상태, 정보처리시설의 구축 및 운영, 체육시설의 적절성 등 7개 평가 항목이 있다.

이중 도서관의 도서확보율은 1인당 40~50권 정도로 타대학에 비해 뒤떨어 지는 형편이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장서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도서 확충과정에서 현재 동양문헌에 편중되있는 도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서양문헌 위주의 확충도 고려해 볼만한 일이다.

실험 실습 설비 부분은 실험실습설비 종수의 확보정도, 실험실습 설비 점수의 확보정도, 실험실습 설비 관리, 어학실습실의 적절성 등을 평가 받게된다. 이중 필수설비를 기준으로 종수와 점수 모두 양호한 실정이며 이의 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의 확보와 과학관기구 확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후생복지시설부분은 기숙사의 규모, 학생회관의 활용상태, 학생식당 및 편의시설 구비상태, 교직원 식당 및 편의시설 적절성, 대학수련원의 시설 및 활용도, 의료지원 실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기숙사부분은 수용율 5% 미만으로 최악의 상태이다. 또 학생회관의 확충도 시급히 요구되어지며 학생회관내의 학생편의시설 설치도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의 관리도 공동관리위원회로 일임, 관리하도록 해야하며 식당의 음식종류도 다양하게 공급해야 할것이다.

재정·경영 영역

이 영역은 시설·설비 영역과 마찬가지의 1백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확보 △예산편성및 운영 △기획 및 평가 △인사 및 행정 △대학의 의사결정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하게 된다.

재정확보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 1인당 교육비는 2백84만5천원으로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대 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생 등록금 의존도 역시 80%선으로 등록금의존도가 높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명확하게 확정된 장·단기 재정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3년간 기부금 비율은 총 수입의 2%선 이며 법인 전입금 역시 불량한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여진다.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고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하며 등록금 협상 등의 문제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의 세출중 인건비의 비율은 57.91%로 대교협의 평가자료에 의하면 불량한 상태이나 실제 본교의 임금수준이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단정내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기획 및 평가에서는 공식적인 장단기 대학 발전 계획이 필요하며 기획업부를 전담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체평가를 위한 상설적 평가기구의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행정 및 인사, 대학의 의사결정 등의 항목은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특별한 평가의 척도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이 부분은 평가항목만을 정리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행정 및 인사부분에서는 △대학총장의 지도성 △행정조직의 합리성 △행정업무의 효율성 △갈등관리의 체제와 능력 △직원인사의 적절성 △지원의 학내외 연수 실적 등이며, 대학의 의사결정 부분은 △대학정책과정의 합리성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의사결정부서의 자율성 △이사회 구성과 운영의 합리성 등의 항목에서 평가를 받게된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대학종합평가 인정제의 평가항목에 따른 학교의 현실과 이에따른 대책을 제시해 보았다. 아무쪼록 이번기사로 대학종합평가 인정제 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석종 기자〉

동국만평

박현진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기간산업에
온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일꾼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키 위해
그들, 18만 現代人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現代

현대자동차
세계 171개국 총 300만여대 수출

현대건설
세계 29개국 총 250억 달러 공사 완공
건설도급순위 1위

현대전자
연간 매출성장률 1위
2000년 세계 10대 우량기업달성 목표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93년 매출액대비 공익투자 1위
(총 누계 2,615억원)

◇조계종 총무원장선거와 이후 불교계 방향

월주스님 향후 4년간 불교개혁 지속적으로 이끌어야

이사회 개편·전입금 확대 기대 속단·학내주체 뜻모아 발전계획 요구 필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지난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의 투표로 끝이났다. 송월주스님이 향후 4년간 총무원을 이끌고 나갈 총무원장에 피선됨으로써 불교개혁도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듯하다.

올해 초 서의현전총무원장의 3선연임기도와 정권이 일으킨 3·29, 4·10법란을 계기로 불같이 솟아났던 종단개혁은 명실공히 불교의 자주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도도한 역사적 흐름의 반영이었다.

정치권력과 일부의 부패정치승들에 의해 장악되어 뒤틀렸던 한국불교에 있어 자주화는 민족을 위한 종교로 거듭남이요, 민주화는 전종도의 품으로 종단을 되돌려 받고 승가의 청정가풍 수립과 사부대중의 주인된 참여를 이룩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전국 사찰에 정권반대의 현수막이 일제히 걸리고, 소장과 노장을 망라한 개혁회의의 구성활동은 이러한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초석이었다.

개혁회의의 성과를 꼽으라면 가장 먼저 새로운 종헌·종법의 통과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총무원장에게로의 권력집중이 분산되고 기복신앙으로 왜소화되었던 불교가 21세기 민족종교로 자리매김질한 마스터플랜의 광범위한 수렴이 보장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새로운 선거법에 의한 종회구성과 총무원장 선출은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비록 직선제 관철이 안되고 재가불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헛점이 노출되긴 하였지만 이는 차기 종단의 과제로 해결할 문제이다.

제도적 개혁이 제자리를 잡기위해서는 인적·물적·정책적 개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속적인 개혁의 첫걸음이 바로 이번 총무원장 선출이었다.

각 교구별 직선으로 뽑힌 종회의원과 24개 교구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함께 투표로 선출한 총무원장 선거는 몇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로 개혁을 앞당기는 장이 되었다는 점이다. 총무원장후보로 나선 월주스님이나 월탄스님 모두 공히 개혁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21세기 문명사의 대전환과 민족통일을 앞 둔 시점에서 한국불교의 나갈 방향을 개혁으로 맞추면서 나름대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지 못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이후 극복되리라 본다.

둘째로 선거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아직까지도 계파와 인맥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물론 두후보자가 같은 문중의 사형사제간이라는 점이 작용하긴 했지만 '중도온건개혁'대 '보수라 불리워도 좋다'라는 차별성속에 진행된 정책대결의 양상은 앞으로 발전전망의 제시 없이는 종교집안 안에서도 버티기 힘들다는 교훈을 남긴 것이다.

세째, 선거과정속에서 특이할 양상은 공히 불교자주화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한국불교의 쇄락이 결국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독재정권과 야합하여 국민의 의사를 저버린데 있음을 이제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설령 이것이 선거에서만 표현되는 빌공자 공약이라 하더라는 이 속에는 전종도와 출가스님들의 여망이 '자주화'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총무원장 선거가 끝남으로 인해 곧 개혁회의가 해산하고 차기 총무원이 구성된다. 투표가 끝나자 월주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화합 조치와 신탕평책을 실시할 것'임을 밝힌바 있다.

선거에서의 입장에 관계없이 또 승가와 재가의 구분없이 널리 인재를 등용할 것임을 천명한것이다. 명실공히 새로운 종단이 개혁종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 인적개혁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통일을 여는 불교,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선도하는 불교, 경제적 자립을 갖춘 '생산불교', 전문인력을 고루 등용하는 불교로 거듭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앞으로 새로운 종단이 이렇게 된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불교집안 전체가 가야 할 좌표이다. 이러한 좌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이 불교계에 있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이다. 여기서 우리는 종립대학이 가져야 할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조계종 산하에는 현재 20여개의 종립학교가 있지만, 4년제 종합대학은 동국대학교가 유일하다. 한국사학이 처한 현실속에서 나타나는 모순이 동국대학교에서도 관철이 된다. 그러나 차기종단이 시작되면서 종립학교 개혁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전망이다. 재단이사회의 개편이나 재단전입금의 확대가 급속히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는 물론 속단이다. 하지만 동국대학교 차원에서 학교·교수·학생·직원들이 뜻을 모아 학교발전계획을 종단에 강력히 요청한다면 포교의 활성화와 인력계발을 도모하는 종단의 방향과도 일치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불교발전, 차기개혁종단의 사업은 특히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다. 불교 또한 종교인 바종립학교에서 배출한 인력을 등용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동국대학교의 현재 모습은 이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문제나 종립대학의 특성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21세기 민족종교로 도약하기 위한 불교계의 흐름속에 이번 총무원장 선거가 전환점이 되었다면, 종립대학으로서 동국대학교의 전환은 더더욱이 요구된다하겠다.

정 한 신
〈실천불교승가회간사〉

시사 초점

12·12국회파행 해결국면안보여

12·12관련자 처리문제로 국회는 18일째 정국파행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민자당이 지난 22일 단독으로 국회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여 국회는 다시 긴장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자당의 이러한 결정은 상임위에서 본격적 법안심의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번주말부터 전국 주요 도시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또한 이기택 대표는 24일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장외투쟁을 선언할 방침이다.

그동안 여야는 이 문제로 기인된 정국파행상태를 영수회담을 통해 푼다는 방침이었으나 현 상황은 여야가 각각 단독 국회운영과 장외투쟁을 공언하고 있어 강경대치로 인한 정국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영수회담에서 국정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고 있으나 회담의제에 관한 견해차가 워낙 커서 영수회담의 성사자체부터 불투명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부〉

◇전국대학 총학생회선거 결과 분석

공안파동 후유증으로 선거일정 지연

비운동권 약진속 정치적 쟁점 형성 못해

전국 182개 대학의 새로운 일꾼을 선발하는 총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11월 첫주에 후보등록이 마감된 대부분의 전국 총학생회선거는 거의 모든 대학이 오는 30일까지는 투표함을 개봉하게 된다.

95년 총학생회 선거의 대외적 특징은 올 한해 대학가에 몰아닥친 공안한파에 따른 영향을 먼저 꼽을 수 있다.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을 정점으로 보수언론등의 집중표적이된 한총련으로 대표되는 학생운동진영의 학생회 선거공약이 학생 대중들의 평가를 받게되는 가시적 계기가 대내적으로는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커다란 호응을 얻고있는 경실련 학생회 및 비 운동권 학생회의 진출정도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모아졌다.

또 예년과 다른 올해 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공안파동의 후유증이라 할수 있는 기존 학생회의 위상 위축으로 인한 학생회 선거일정의 지연을 들수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전국 대학 총학생회 선거의 결과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경기대, 동국대, 성균관대, 상명여대등의 대학이 NL(민족해방)계열 총학생회가 당선

◇95년 총학생회 선거결과는 공안한파의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되었으며 항공대, 인하대, 수원대등의 PD(민중민주)계열, 외대용인캠퍼스등이 비운동권 총학생회가 당선되었다.

전국적인 분포를 살펴 볼때 현재 집계가 끝난 62개교중 △NL계열 40개(65%) △PD계열 6개(10%) △21세기 진보학생연대 3개(5%) △비운동권이 13개(21%)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의 총학생회 선거결과를 종합해볼때 작년 학생회 선거에서 보여졌던 비 운동권 학생회의 약진과 전체적으로 공약사항에 있어 정치적 사안보다 학내복지사안이 중점적으로 개진되고있는 상황을 볼수 있다.

다양한 학생대중들의 이해와 요구, 정치적 사안에 대한 무관심과 희석화등 변화된 시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는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필연적일수밖에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안정국의 여파로 올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고전하리라 예상됐던 운동권 학생회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침체의 우려를 씻어냈다.

학생운동의 총괄적 평가의 장이 되리라는 예상속에서 '주사파 파동'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논쟁이 학내에서는 재현되지 않은것이다.

이는 학생운동진영에서 학생회의 역할과 대중을 각 부문의 주체로 세우려는 다양한 논의들과 새롭게 제기되는 변화의 노력들이 이른바 '심판장'이 되리라는 올 총학생회 선거에서 유효한 결과를 낳게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및 전국 대학선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 전국 총학생회 선거의 모습은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하는 각계각색의 학생회 등장 △교육시장개방등 학내사안위주의 공약제기 △후보자나 후보자가 속한 조직에 대한 이미지가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환기자〉

동악로

몰이 투표

느즈막 선거분위기가 웬 썰렁 (?)

아침 저녁으로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후보자들의 각오와 다짐이 온방골에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들의 열기와는 상반되게 학생들의 반응은 차분하다 못해 냉랭하기까지 하다.

지난 10일 단대학생회 선거는 예상을 훨씬 상회하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당락을 결정했다. 불교문화대 82.3%, 상경대 80.7%, 의과대 87.7%의 투표율.

숫자상으로만 본다면 많은 학생들이 각 단과대 일꾼들을 찾는 일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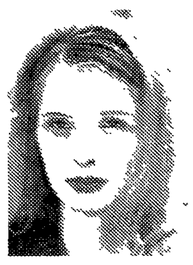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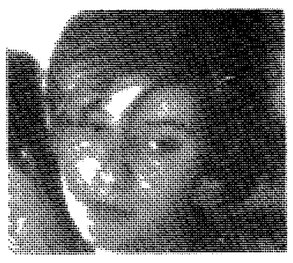
투표 당일,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던 선거유세 때와는 달리 투표장 주위는 물불 가리지않고 투표율 올리기에 급급한 선거원들의 열띤 경쟁이 눈길을 끌었다. 몰이투표, 때거리 투표.

"자꾸 해라해라 그러니까 부담이 돼요" 한 여학생의 불평이다. 물론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해가며 투표를 하지 않겠다면 누구도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권유가 아닌 강요에 의한 선거권 행사는 강요하는 측이나 행사하는 측이나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해마다 학생회 선거에 따른 무수한 정책과 공약들이 보기좋게, 듣기좋게 포장된 채 이곳저곳에서 쏟아진다. 온방골의 상황과 현실 또한 해마다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전대의 답습에만 그치고 있다. 선거를 위한 선거는 반드시 그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1년 사업을 마무리하는 학생회와 1년 사업을 준비하는 학생회가 나란히 서있다. 양면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총학생회와 각 단대학생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보고 한해의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일(24일) 총(여)학생회에 대한 마지막 한번의 선택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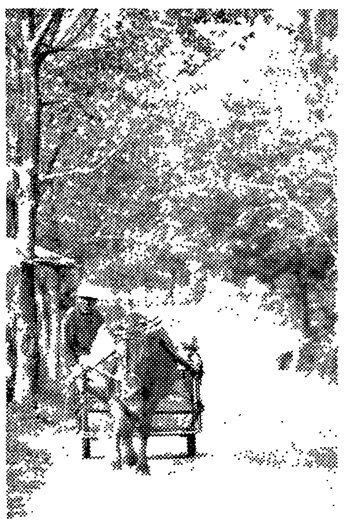
〈윤전화 기자〉

블루, 화이트, 레드
프랑스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준연기' '재협상 촉구'는 최소한의 요구이자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프랑스는 그들의 정신적 자산인 '문화산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 국민 가릴 것이 없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고향인 농촌을 지키기위해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달구지를 모는 할아버지 그리고 농촌
우리는 얼마나
지켜내고 있습니까.



새날을 여는 민족자주언론의 선봉
전국대학신문기자 연합

◇백두산 화산폭발 가능성

휴화산으로 언제든 재폭발 가능

부근 82℃ 온천상존·간헐적 가스분출

최근 백두산에 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다. 특히 중국의 신화사 통신의 백두산이 얼마있지 않아 폭발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은 후부터 더욱 그렇다.

이에 여기서는 백두산의 지형과 지질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만 해보도록 하겠다. 우리민족에게 있어서 백두산은 실체이상의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개국 설화, 그리고 옛 조상들의 활동무대였던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최고봉의 산이다. 최근까지도 화산활동을 하였던 산으로 산의 북쪽으로는 장백산맥이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며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2천미터 이상의 산들이 여러개가 있다.

백두산의 형성시기는 신생대 제3기 말경인 2백60만년전에 있었던 화산활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화산활동이 있기전에 백두산일대는 매우낮고 평평한 곳이었으며 대지의 상대적인 고도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당시의 평균고도는 1천5백미터 정도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현재와 같은 화산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신생대 제4기초의 화산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이때 가장 큰 현무암 대지를 형성하여 현재의 높이 2천7백44미터의 윤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을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화산활동이 중지되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그 이유는 백두산 부근에는 현재에도 최고 82℃ 정도의 온천이 상존하고 있고 분기공에서는 비록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있으며 소규모의 지진이나 산지 사면의 붕괴같은 현상은 현재에도 화산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려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화산이 폭발하는 형식에는 두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중심분출이고 다른하나는 열하분출이다. 백두산의 경우 이 두가지 방식의 용암분출에 의해 현재의 백두산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동, 북서, 동서 방향의 많은 단열대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교차하는 열점에서 마그마가 분출한 것이다. 또한 백두산의 지층은 상층에는 많은 화산회등이 존재한다. 연변에서 백두산까지 지형은 몇개의 계단 모양의 단을 또한 백두산에는 여러 종류의 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천지의 외륜산에 해당하는 사면에는 빙식지형의 흔적인 권곡등의 모습들이 보이고 최근에는 1천6백70미터 고도에서 빙하에 의한 퇴적물이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빙하지형내지는 주빙하지형에 속하였던 곳으로 생각할수도 있고 화산활동과 관련하여 화산지형으로 분류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백두산의 지형을 생각하는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겠다.

백두산에서 볼수 있는 또다른 지형으로는 풍식지형의 예이다. 백두산에는 강한 바람이 매우 자주 불며 주먹만한 돌들이 날라다니는 예도 있다. 그결과 풍식에 의한 구멍 풍식버섯, 풍식기둥과 같은 지형이 나타난다. 하천유수에 의한 지형의 예로는 많은 폭포와 급류등을 들수 있다. 장백폭포의 경우 수직낙차가 68미터나 되는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송화강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계곡의 형태도 보통 V자형의 곡은 물론이거니와 이 지역에서는 수직절벽과 같은 하곡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천지 주변에는 호수 침식에 의한 지형을 볼수 있다. 천지에 파도는 심한경우 1미터 이상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파도는 천지호수의 벽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호수의 많은 절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구두 지형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는 백두산 전체를 통하여 단층들이 방사성으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러 방향으로 나타나는 단층군들은 그 지역이 침식에 약하게 하는 구조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기도한다. 백두산 입구에서 비룡폭포 쪽으로 접근하는 곡의 양안에는 전형적인 애추사면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애추는 주위의 암석보다 강해서 입상붕괴가 일어나는 것보다 괴상으로 무너져내려 아랫쪽에 쌓이고 또 이동해 내는 현상이다. 지형학 쪽에서는 우리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애추의 형성시기를 옛화석지역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백두산에서 나타나는 애추사면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계곡 아랫쪽으로 무너져내리고 있으면서 산사면의 경우 안정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다음은 천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해발 2천1백55미터, 남북길이 4.55킬로미터, 동서길이 3.35킬로미터 수면면적이 9.82평방킬로미터이다. 평균수심 2백13미터이고 최고 수심은 3백44미터이다. 최저기온 영하 47.5도씨이고 최고기온은 18도씨이다. 최고풍속은 초속 60미터이고 강수량은 연평균 1천4백 밀리, 식물은 2백여종이 서식하며 주변둘레가 14킬로나 된다.

천지의 수온은 대기로부터 공급되는 강수와 강설 및 지하수에 의한 것으로 이렇게 보충되는 물과 땅속으로 스며드는 물이 균형을 이루며 수심 진폭은 1.67미터에 이른다. 천지의 형성시기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천지주위에는 16개의 봉우리가 있으며 기후가 자주 변하기 때문에 부근에는 항상 습기가 많고 순식간에 변화가 일어 바람이 일며 짙은 안개가 끼며 구름이 몰려 오기도 한다. 지금까지 천지에 관해서는 잘못 알려진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는 천지가 단순히 하나의 분화구로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본인의 관찰에 의하면 백두산의 화산폭발의 시기나 횟수등을 고려해 최소한 3~4개 이상의 화구가 연합되어 현재와 같은 화구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 이유는 천지호수의 윤곽이 지극히 불규칙적이며 용암류의 방향이나 퇴적물들의 특성, 천지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볼때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또 한가지는 천지호수에서 동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고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천지호수에서 천지 밖으로 나가는 수로는 장백폭포로 이어지는 송화강의 원류밖에는 없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른쪽사면에서 흘러내리고 있음을 분명히 해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두산은 일반적으로 휴화산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고 최근에 일어난 일본이나 필리핀등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는것이다. 백두산에는 여러 형태의 지형이 나타납니다. 즉 화산활동의 흔적이 남아있는가 하면 빙하지역의 흔적들이 존재하고 구조 현상과 관련된 지형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백두산의 지형은 종합적인 입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천지의 형성은 수차례의 화산 폭발에 의한 화구가 연합되어 무너져버린 흔적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천지가 언제 다시 폭발할런지는 몰라도 다시 폭발할 가능성은 여러가지 상황으로 비춰 충분하다고 볼수 있다.

김 주 환
〈사범대 지교과 교수〉

◇곽심의 원종문류집해

서술, 자신견해 회통형식으로 전개

인분가설 · 과분불가설 논의 필요

원종문류집해는 곽심의 찬술이다. 원종문류집해는 고려 11대 문종(1046~1083재위)의 네째 아들인 의천대각국사(1055~1101)가 찬한 원종문류를 집해한 것이다. 이책은 일본의 사학자였던 금서용박사가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때에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에 천리대학에 기증되어 현재 일본 천리대학 도서관 금서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1959년 경도대학에서 발간한 금서문고목록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책을 소개하기에 이른 것은 구택대학 불교학과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길진의영 교수가 필자에게 전해 온 것이 인연이다.

길진교수는 이 책을 읽고 '오자' 또는 '읽기 어려운 글자'는 친절하게 모두 교정을 보아 함께 기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곽심의 상세한 전기는 알 수 없지만 최선찬의 '용두산용수사개창기·고려사', 이인로의 '파한집', 최자의 '보한집'등에 의해 곽심의 연대를 추정하여 구택대학불교학부연구기요제52호에 투고했다.

길진교수의설에 따르면 곽심은 보조 지눌(1158~1210)스님보다 약간 선대의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곽심을 의천대각국사-무애지국사계응-석윤-곽심의 순서로 그 계보를 밝히고 있다.

곽심의 원종문류집해는 원래 상·중·하 전3권으로 찬한 것이나 현재는 중권만이 남아 있다. 가까운 세월에 누군가에 의해 상·하도 발견되어 모두 갖추어 완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길진교수는 곽심이 원종문류집해를 찬술한 연대에 대해 밝히기를 용두산용두수사개창기에 주지석윤이 명종3년(1172)에 입멸한 뒤 이를 계승하여 제3대 주지가 된다. 대정21년(1181)에 용두산용수사개창기의 석비가 건립될 당시 곽심은 이 절 주지에 임하고 있었다. 이 책 서두에 원종문류집해권중 해동대백산전교사문 곽심 집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백산각화사에 머물어 있던 때의 찬술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책에는 성화4년 술자세조선국간경도감본교어개성부중수라고 쓰여 있어 이조 성화4년(1468) 개성에서 간경도감에 의해 중수된 것이다. 고려 대각국사에 의해 원종문류가 찬술되어 이는다시 곽심에 의해 집해되었고, 이조 성화4년에 중수하였다면, 고려에서 이조까지 화엄에 관한 연구가 성행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간경도감은 이조제7대 세조7년신사 천순5년(1461)에 설치하여 제9대 성종2년 신묘 성화7년(1471)에 폐지될 때까지 11년간 계속되었다. 이 때에 증수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종문류 전22권을 3권에 집해한 것이라면, 이는 원종문류 22권 전체를 집해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종문류집해권중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당법장 (643~712)의 화업경탐현기 20권에 대한 집해라고 볼 수 있다. 증권 전체의 내용은 △종요의 △초회이지의 △국토해의 △종극의로 분류하여 집해했다. △종요의는 탐현기에서 보살십지품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것으로 곽심은 다른것 보다 가장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곽심 자신의 사상을 교묘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대 많은 화엄학자들이 가장 심중하게 다루었던 인분가설 과분불가설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곽심의 견해가 어떻게 표명되고 있는 가를 검토 정리함으로써 곽심의 원종문류집해가 갖는 화엄사상사상 그 위치를 알 수 있는 요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곽심의 서술방법에 있어 특이한 점은 먼저 탐현기의 원문을 제시하고 이를 해석함에 있어 증간(738~839)의 화엄경소와 연의초의 견해를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자신의 견해는 삽입형식으로 하여 회통해 간다. 그리하여 자신의 결정적 견해표명은 단호하게 내리는 확실성을 나타내고 있다. 단지 해동의 화엄초조라 할 수 있는 의상(625-702)의 견해는 삽입하지 않는 반면, 원효(617~686)의 십문화쟁론·종요 등을 인용하고 있는 점이다. 곽심은 자신의 견해를 회통형식으로 밝히기위해 원효의 논법과 사상을 중시 하였음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우리 불교문화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자료수집에 모두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신 현 숙
〈불교문화대 불교학과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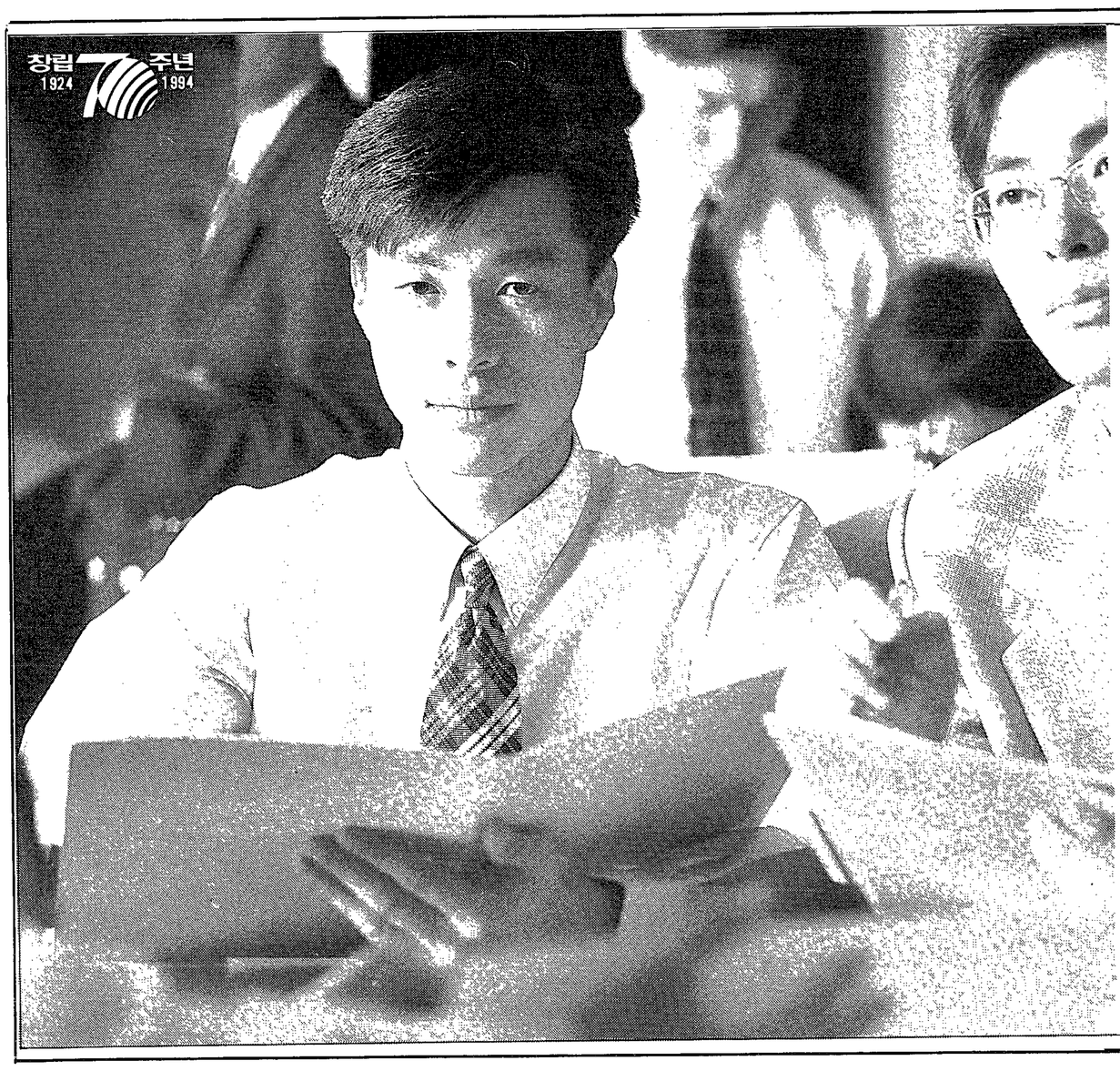
과학에세이 — 컴퓨터이야기

인터넷, 무한한 서비스 보고

지난번 과학 에세이의 내용은 인터넷의 개괄적인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실제 활용기를 써보려 한다. 내가 인터넷을 처음 접속한 것은 10월중순이었다. 꿈만 같았던 인터넷 접속이 나의 현실앞에 다가왔을 때 세상이 다 나의 손안에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 만큼 인터넷은 나를 만족 시켜 주었다. 처음으로 사용해보는 유닉스 명령어 그리고 유닉스 컴퓨터안의 작은 나만의 공간인 디렉토리 우리집의 IBMPC외에 나는 하나의 거대한 하드디스크를 갖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황홀감과 더불어 나는 또다른 황홀함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의 TELNET기능이었다. 이 명령은 내가 NASA의 슈퍼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허용해 주었다. TELNET기능을 이용해 나는 NASA의 프로젝트와 허블우주 망원경의 탐사 진행상황까지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다보니 그곳의 자료를 다운받고 싶었다. 그래서 anoy-mous-FTP라는 기능을 이용해 화일을 다운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받은 화일이 NASA의 천체사진이었다. 그리고 화일의 앞축을 풀기위해 서강대에서 유닉스용 앞축 프로그램을 FTP를 이용해 다운받았다. 이처럼 처음 며칠간은 인터넷이라는 큰바다에 빠져 허우적 거렸다. 하지만 그 허우적 거림이 결코 파멸로의 허우적 거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는 계속해서 밤을 새워 자판을 두드렸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던중에 11월1일부터 한달간 나우콤과 아이넷이라는 인터넷 전문 서비스업체에서 인터넷을 무료로 한달간 서비스 한다는 것이었다. 마침 나우콤을 사용하던 나에게 있어서는 더할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었다. 왜냐하면 인터넷의 거의 모든 기능을 서비스한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처음으로 접속한 나우콤안의 인터넷, 거기에서 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처음 대화에서 나는 나의 영어실력에 기죽지 않을수 없었다. 그래서 다음부터 영어 사전을 준비해 놓고 채팅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쓰는 속어나 줄임말은 알아볼 길이 없었다. 그래서 상대에게 되묻곤 했던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렇게 몇번을 대하니 이제는 얼마간의 요령이 붙었다. 그래서 말도 줄여서 간단히 하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는 POM이라는 nickname을 갖은 lyes kious라는 프랑스인과의 대화였다. 처음에는 서로의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았다. 그러다가 서로의 나이에 대해서 물었다.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학생이고 25살인데 high school에 다니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프랑스의 교육제도가 우리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 하다가 이번에는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었다. 자기는 한국 여성을 좋아한다고 말하고는 바로 그쪽에서 여자친구의 sex매너는 어떠냐고 물어왔다. 이내 나는 이사람이 안좋은 부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는 기분이 나빠 인사만 하고 바로 접속을 끊어 버렸다. 하지만 접속을 끊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프랑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외국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다른나라의 문화를 배울수도 있고 영어 실력도 늘릴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 외에도 인터넷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WWW라는 기능을 이용해 인터넷을 더 편리하게 사용 한다던가 예전의 한달씩 기다리던 해외 펜팔 편지를 이제는 전자메일을 이용해 하루에도 몇번이고 보내고 받을수가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수많은 인터넷의 기능들이 있다. 하지만 이시간에 그것들을 다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 서점이나 국내 통신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인터넷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와같은 인터넷 사용에서 나 자신이 가장 기쁘고 황홀한 것은 내가 서강대의 컴퓨터를 이용해 NASA의 자료를 검색했던 것처럼 인터넷상의 세계 모든 컴퓨터를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인터넷은 우리에게 무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루 빨리 인터넷에 접속한다면 그 사람의 삶도 또한 그만큼 넓어지고 무한해 진다고 할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것을 만족시키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중에서 대학이라는 곳 조차도 학생들의 이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니 참으로 문제가 아닐수 없다. 그나마 우리 학교의 교수나 대학원생들은 자유로이 인터넷을 사용할수 있다는데에 한가닥 희망을 가져본다.

유 상 현
〈이과대 물리학과·자연과학연구회〉



인재를 찾으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인재를 키워냅니다

추천,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등 수많은 과정끝에 옥석을 가려내지만
때론 기업 스스로의 무관심이 애써 찾은 인재를 오히려 도태시켜 버립니다.
인재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열을 가지고 기업 스스로 키워내야 합니다.
삼양그룹의 신입사원은 사회인 입문을 위해 해외연수를 비롯,
6개월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기계발과 자신의 적성 재발견을 도모합니다.
또한 2년차 이상의 사원들은 3개월간 현업에서 완전히 떠나 본인이 계획한
교육과정 (Future Leader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시대를 앞서갈
21세기 미래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삼양그룹은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매년 〈대학생 하계 어학연수 및 기업연수〉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89년부터 2년마다 〈전국대학생 논문현상공모〉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양사(化纖, 식품, 사료, 化成, 환경사업) ●삼양중기주식회사 ●선일포도당주식회사 ●삼남석유화학주식회사 ●삼양화성주식회사
●신한제분주식회사 ●삼양종합금융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양메디케어 ●디완 살만 파이버 ●삼양그룹연구소 ●양영회 ●수당장학회

삼양그룹

미당 서정주시인 팔순기념행사 '인생 여든 해, 시 예순 해'

시세계 재조명 학술회의·장수기원 축하연 열릴 예정

"시작(詩作)인생 환갑잔치마련 후배에게 감사하고 오감할 뿐"

'미당의 모습에는 신(神)적인 풍모가 엿보인다'고 누군가 말했다. 어느덧 올해로 팔순을 맞는 미당 서정주시인을 축하하는 자리가 될 '인생 여든해, 시 예순해'행사가 동국문학인회, 총동창회주최로 오는 12월2일 인터콘티넨탈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팔순축하연 준비위원회의 한국문학연구소장 홍기삼(국문학)교수는 "우리 문학계 전반에 원로문인을 존경·우대하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본교출신으로 현재 종신명예교수로 계시기까지 본교와 뗄 수 없는 인연을 지니며 한편으로 학교명예를 드높인 선배문인에 대한 후배들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미당 서정주시인은 이 행사를 맞아 "후배동문들이 이 알량한 사람의 팔순잔치를 마련해준데 대해 나로서는 오감하고 감사할 뿐"이라며 "나보다 더 뛰어난 실력을 지닌 후배가 배출되기를 바란다"는 말도 아울러 덧붙였다. 스스로 건강관리에도 철저하다는 서정주시인은 앞으로도 숨이 다할때까지 글을 꾸준히 쓸 생각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노시인의 숨은 열정을 볼 수 있었다.

◇미당은 팔순의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창작의욕을 불태우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1935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재학시절의 미당.

중앙불교전문학교로 본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미당은 우리대학을 '우리고향중의 고향이여'라는 시로 표현한다.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 들어가 살던/그 연꽃 내음새가 나고/목을 베니/젖이 나 솟았다는/성(聖)이차돈의 강의소리가 늘 들리고…….'

'인생 여든해, 시 예순해'행사는 미당 시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될 1부 학술회의와 2부 축하연으로 진행된다.

본교 한국문학연구소가 주관하는 학술회의는 '미당 시의 영원과 현실'에 대해 발표할 서울대 오세영교수 등 4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홍신선등 4명의 질의및 토론이 있다.

윤재웅 국문과강사는 '바람과 풍류'에서 "미당 시에서 바람은 이미지이자 모티브이고 미당 자신의 생명충동의 형이상학이다"라며 "미당의 바람과 풍류는 한국시의 역설과 비전을 동시에 체현한다"고 밝힌다.

'서정주의 초기 시에 나타난 미적 특성'을 발표하는 이승훈 한양대교수는 "서정주의 초기 시가 보여주는 미적특성은 한마디로 갈등의 구조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갈등이란 단순히 이질적인 두요소의 대립·모순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이 끊임없이 지양되는, 그러면서 또한 갈등을 생산하는 특이한 변증법적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갈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그 예로 '문'을 들고 있다.

한편 황현산 고려대교수는 '서정주 농경사회의 모더니즘'을 통해 "미당의 문학사적 위치는 그 정서의 깊은 뿌리를 농경사회에 두고 있으면서 근대적 시의 개념을 깊이 이해한 사람의 처지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구 근대시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에 힘입어 전통적·농경적 세계의 정한에 새로운 표현양식을 부여하고 그 깊이를 되살려내는 한편 이이입된 근대시의 정서에 민족적 감수성의 일단을 부여하여 그 육체로 삼았다"고 밝힌다.

2부의 축하연에서는 박제천동문시인의 '시로 읽는 인생 여든 해' 낭송에 이어 미당시 '자화상', '귀촉도', '추천사'등을 연극인 손숙씨등이 낭송한다. 이외에도 이길주교수의 춤, 가수 송창식씨의 '푸르른 날'노래, 안숙선씨의 축하판소리가 이어진다. 한편 축하연 참석자에게는 한국문학연구소가 편찬한 논문집 '미당연구'를 증정한다.

1936년 동아일보에 시 '벽'으로 등단한 이래 시작(詩作)나이로만 쳐도 환갑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간 그의 문학적 업적을 되새기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노시인에 대한 장수를 축수함과 아울러 동국문학발전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김소영기자〉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아서

'동국문학회' '시선' 동인통해 문학적 열의 발산

짧은 역사에도 불구 한국문학의 동량이 될 가능성 지녀

경주캠퍼스 동국문학은 15년이란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그동안 적지 않은 문인들을 배출했습니다.

동국문학의 거대한 산에 비해 아직은 발아한 싹에 지나지 않으나 앞으로 경주캠퍼스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볼 때 '동국문학의 현주소'를 찾는 이 시점에서 경주캠 문학의 전통을 되새기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자

동국문학의 빛나는 전통, 그 거대한 뿌리는 불교문화가 1천년간이나 만개, 현재까지 그 잔영이 생생한 경주교정에까지 뻗어내렸다.

1979년 첫 신입생을 받은 이래 교수와 학생들은 동국문학의 영예로웠던 한때와 현재를 늘 짊어지고 다녔다.

동국문학에 대한 자랑스러움과 경주교정도 동국문학의 한편을 떠받쳐야 한다는 부담감은 곧 문학에 대한 열의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보겠다는 학생들은 전부 '동국문학회'로 몰렸다.

초기 몇년동안 서울교정과 같이 절을 옮겨가며 가졌던 '여름창작교실'에서 경주교정 문학지망생들은 동문선배들로 부터 동국문학의 전통을 수혈받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81년 윤성근이 '월간문학'을 통해 첫 발을 문단안으로 들여놓았다.

그후 몇년간 소득이 없는채 80년대 중반을 맞게 되었다. 졸업생이 생기고 학생수가 늘어나면서 계급과 권력으로부터 비롯된 한국적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자각이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경주교정에 전염되었다.

이러한 기류는 지금까지 내려온 것, 당시 상황 모든 것에 대한 현실적 반성을 요구했으며, 기존의 동국문학전통까지 의심케 했다. 종래의 것만으로는 현실을 감당해 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깃들인 시대적 반성이었다. 이러한 위기감과 의심을 갖기 시작할 무렵, 하성훈이 시로 '한국문학'을 통해 덜커덕 문단에 진입했다.

이 기회에 명멸해가는 문학의 전통을 다시 찾아야겠다는 뜻을 모아 녹야원에 몇몇이 모여 '시선'이란 동인을 만들었다.

모이고보니 구성원들은 쓸데없이 나이를 먹어서 진학했거나 한구석이 모자란 불구자(?)가 태반이었다. 도서관 영인본을 뒤져 지나간 좌파문학을 복사하고 술판과 싸움질, 방만한 자취생활, 형골만 남은 허허벌판 유적지에서 기행등 졸업 후 취업과 무관한 생활과 학업을 계속해일화만 숱하게 뿌리고 다니는 문학적 치기만 계속했다.

그러다 86년 필자가 '동서문학'에 시를, 87년 백규홍이 '소설문학'에 시를, 88년 정병근 송종욱이 시와 시조를 '불교문학'에, 89년 남효선이 '문학사상'에 시를, 90년 이윤학이 '한국문학'에 시를 발표하며 문단에 적을 두게 되었다. 모두 '녹야원의 결의'를 다짐했던 동인들이다.

이에 앞서 희곡으로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한기철이 있었고, 조증의가 대구매일 신춘문예 소설로, 박경화(시조), 윤희순(시), 김명석(시)등이 문예지를 통해 얼굴을 내밀었다.

현재 시작활동이 가장 활발한 윤성근은 이미 여러권의 시집으로 광역화된 인식세계와 변화무쌍하고 어지러운 상상력으로 예리하게 현실을 요리해내는 특유의 시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평단에서는 일찍부터 윤성근에게 일상성과 시대에 대한 '폭넓은 시선'을 가진 시인으로 '날카롭고 비범한 상상력을 과시'하고 있는 탁월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산 등 자연의 외양들, '자연과의 친화력, 또는 근접성'을 통해 인간사의 서정을 '정갈하게 투영'해내고 있는 백기홍의 시 역시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바다. '어두운 풍경의 자아'를 친숙한 자연을 매개로 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백규홍의 시는 서정의 백미다.

낮고 하찮은 대상과 삶, 집단적 삶에 따뜻한 시선을 던지고, 그들의 희망과 '기다림을 위하여 끝없는 몸놀림'을 하는 남효선의 시편들은 절박하고 날카로우면서도 독자에게 희망을 보여준다.

삶에 대한 진지하고도 쓸쓸한 성찰을 담고 있는 이윤학의 시는 '유연한 상상력의 반추'를 통하여 아름답게 삶의 주변을 변주하고 있다. 활발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학은 첫시집을 통해 '동물의 상징, 혹은 비유의 탁월한 효과'를 알레고리를 통해 '삶의 왜곡된 부분을 상기'시켜 준다. '동물 알레고리의 가능성'을 독특하게 탐지해내는 이윤학은 내밀한 일상의 성찰을 통해 자아와 세계 사이를 내면고백으로 찬찬히 비춰주는 미덕을 시에서 보여준다.

폭넓은 시어와 현란한 이미지로 '독특한 상징공간을 재창조'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정병근이나 정형이라는 전통적 형식에다 현실성을 얻기 위하여 '시대의 예민한 삶의 현장'에 눈을 돌리는 송종욱의 시조도 볼만하다. 송철수는 '자연과의 교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불교적 직관세계를 가꾸고자 노력한다.

전통은 쌓아가는 것이다. 이들의 작품 하나하나는 분명히 동국문학에 벽돌 한장씩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도 아쉬움이 많다. 이미 문단에 얼굴을 내민 사람들이 각고로 자기를 갈아내고 닦아내는 노력을 덜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며, 후배들의 문학에 대한 열의가 예전같지 않다는 소문이 들리기 때문이다. 또 문학특기생이나 문예장학제도 등 전통에 걸맞는 학교당국의 정책적 노력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희망 때문이다. 그럴때만이 동국문학이라는 큰산에서 빛나는 전통을 자양분으로 우람한 나무가 많이 자랄수 있을 것이다.

공 광 규
(시인·국문 88졸)

알 림

'동국문학의 현주소 찾기'는 지면관계상 한주 쉽니다. 다음 신년호(제1164호)에서 월북작가와 총론을 함께 싣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문화단신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가 없는 나라'

올해로 6회째 맞는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양심수가 없는 나라'가 민주화 실천가족운동협의회 주최로 오는12월10일 한양대 율림픽 체육관에서 열린다.

정태춘, 안치환, 노래마을등이 참여 양심수를 생각하는 노래를 부르며 특히 12·12군사반란자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 '시민청문회'를 손무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한다. 또한 김선명선생의 44년 옥중생활을 형상화한 연극 '44년째 겨울'을 문성근씨 주연으로 공연한다.

오는 12월10일 오후5시/한양대 올림픽 체육관/문의는 민가협 763-2606

달하나 천강에

사람답게 사는 법

약 3년전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나는 우연히 "번디"라고하는 사형집행 실황중계를 볼 기회가 있었다. 번디는 3명의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목으로 사형되었다. 몇십년만에 처음있는 교수형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관심있게 다루었다. 번디 자신은 사형집행 하루전까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거절하다가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야 비로소 인터뷰에 응했었다.

왜 어린이들을 살해했느냐 라는 질문에 죽음의 앞에 선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그 자신의 불우했던 삶을 이야기했다. 결손가정에서의 그의 불행했던 어린시절, 그의 왜소한 신체와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위의 친구들로 부터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무언가 자신의 존재를 느끼고 싶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는 그때 이 사형수와 내자신이 과연 크게 다른가 하고 스스로 반문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솔직히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었다. 그처럼 행동으로 옮기진 못했지만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자신이 그러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더라면 나자신도 그처럼 되지않는다는 자신이 없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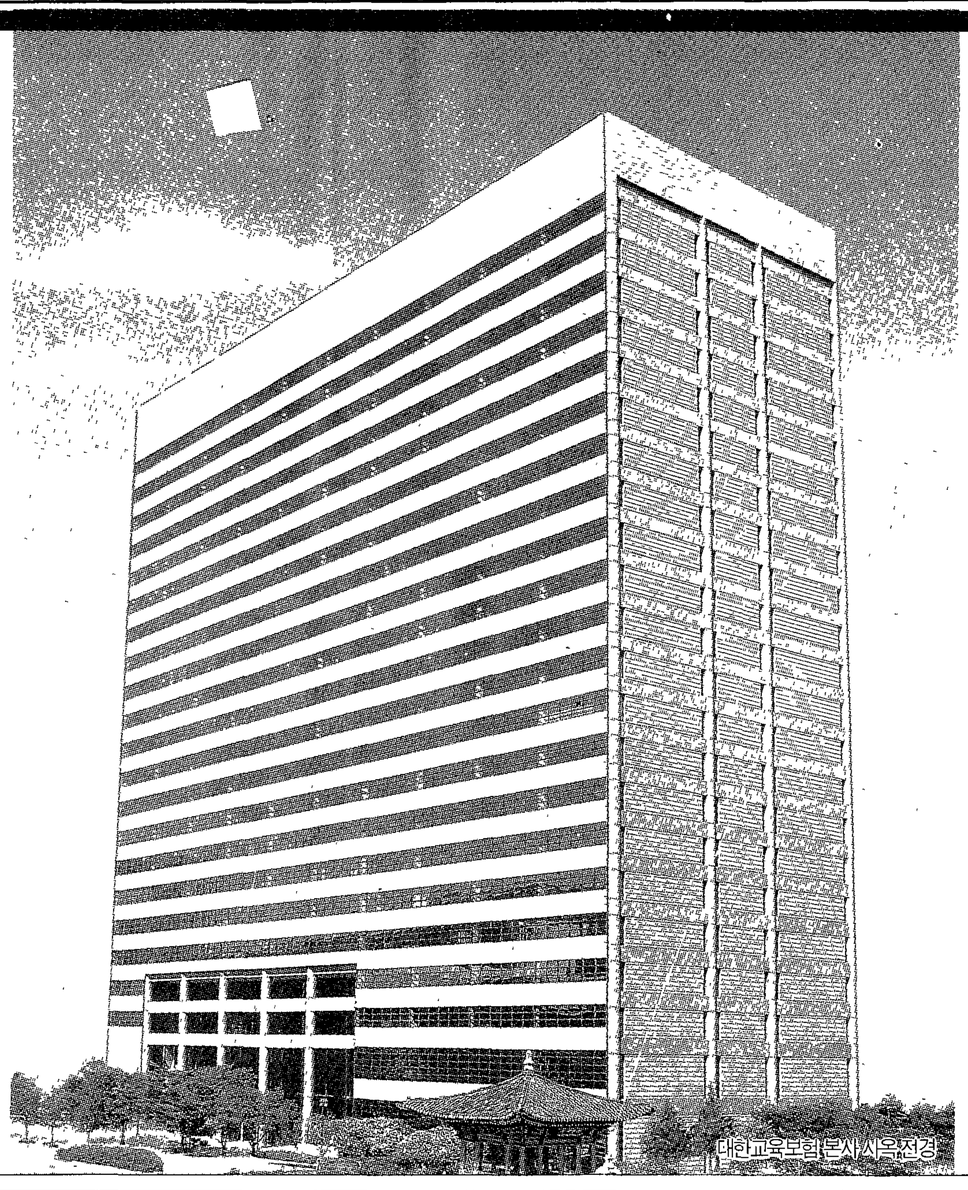
수많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고 한다. 첫번째 종류는 공동체에 누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며, 두번째 종류는 겨우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한다. 세번째는 자신과 자신가족에게도 충실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한다. 진실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번째 유형에 있는 그룹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이 세번째 유형의 사람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먼저 스스로 자신의 권리나 사회적인 지위를 포기하고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서 낮아지는 겸손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이 사회에 빚진 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않될 것이다. 두번째는, 격려하는 사람(encourager)이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주변에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아이디어에 쉽게 냉소하고, 심지어는 남의 결점만을 보려는 사람들로 가득차 있다.

종종 격려의 말 한마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힘들고 험한 이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세번째는, 자신의 주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종 우리의 관계는 미움과 증오 혹은 갈등으로 가득차있다. 네번째는 창작하며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더욱 병들어 가는 것은 상식이 통하지 않고 진실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실을 따르고 진실앞에서 약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올바른 신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돕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자아를 방어하는데 그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남에 의하여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은 순수하게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돕는 것일 수도 있다.

박 종 희 상경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21세기 종합금융그룹 —— 대한교육보험이 선도합니다



대한교육보험 본사 사옥전경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교보문고매장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출범한 대한교육보험 —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알찬 경영으로 한국보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최초로 교육보험제도 창안,
국내최초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1인당 최고의 이익배당금 적립,
94년 국내보험회사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
11조원에 달하는 튼튼한 보험자산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교육보험은 금융국제화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 종합금융그룹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교육보험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회사 : (주) 교보문고/ (주) 교보증권 /교보투자자문(주) / (주) 교보실업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재단 : 대산재단/대산농촌문화재단

◇대학신학풍운동은 무엇인가

교수·학생 대화시간 정례화—인성교육강화 포함

출석·과제 등 엄격한 지도·관리 될수있어

동악인에 쌓여있는 불신과 비교육적인학원풍토를 바로잡아 명랑하고 깨끗하며 충실한 강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신동국건설'을 위한 '대학신학풍운동'이 전개된다.

신학풍운동은 교수, 직원,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학운동으로서 지금까지 누적된 비정상적인 대학풍토를 정상화시키는데 중점을 두면서 △명랑한 학교 △깨끗하고 정숙한 학원 △충실한 교육 △실천하는 건학정신을 표어로 세우고 있다.

신학풍운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명랑한 학교'의 건설을 위해 올해부터 △사실무근의 모략성 유인물 제작과 부착, 유포를 방지하며 '95학년부터는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시간 정례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윤리과목(불교와 윤리, 불교와 인간등)들을 확대 개설 △신입생 교양강좌에 인성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Pass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깨끗하고 정숙한 학원'조성을 위해서 올해부터 △매월 첫째금요일을 청소의 날로 정하여, 교수, 직원, 학생이 교정과 교사 주변청소 △부서별, 지역별 책임관리제로 쓰레기 줄이기와 분리수거 및 환경정화운동전개 △지정장소외와 규격화되지 않은 게시물 부착 금지(부착시 즉시 철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족구등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생의 확성기와 사물놀이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학생회관에 각 실을 정리하고 강의실 및 교정에서 휴지 안버리기 운동 등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충실한 교육'의 실시 운동으로는 '95학년부터 △교수는 엄격한 출석과 과제물을 부과, 충분한 강의준비와 열성어린 학문지도 및 엄정한 성적관리를 하고 △다양한 교양교육과 실용적인 교과목(외국어와 컴퓨터)의 개설로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며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독서운동(불전 등 고전을 필독서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성실한 근무'확립과 '실천하는 건학정신'구현을 위해 △행정담당자는 교육을 위한 봉사자로서 항상 친절과 열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성상과 스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을 교육하고 생활화하며 △크고 작은 행사는 불교의식에 따라 집행할 뿐 아니라 △불교와 유관한 학생써클 및 모임을 권장하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신학풍운동을 전개 하기 위해 총장, 부총장, 각처실장 교수회장, 학생회간부 등으로 구성되어진 신학풍운동본부(본부장=부총장)는 오는 28일 본관에서 현판식을 갖고 구체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한번의 '푸닥거리'가 아닌 학내 전구성원의 단합아래 자비와 존중이 넘치고 시간만 채우는 적당주의 수업에서 벗어난 동국이 될 수도 있도록 동악의 전 가족이 대화와 협력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곽주영 기자〉

◇'12·12 군사반란자 기소촉구 시민대회'가 전국연합 주최로 지난 19일 탑골공원에서 2백여명의 시민, 학생이 모인 가운데 열려 38명의 반란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요구했다. 사진은 탑골공원앞에서 본교학생들이 시민들에게 홍보활동을 벌이는 장면. 〈이석종 기자〉

학과조정연구위 발족해

96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 모집

본교는 지난 7월 교육부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확정발표에 따라 '학군체계및 학과조정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17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1차모임을 가졌다.

각 단과대 관련교수등으로 구성되어진 위원회는 이번 1차모임을 통해 교육부관련자료 및 학과·학문체계 자료등을 가지고 12월3일까지 해당학문분야 및 전 학문분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학문체계 및 학과조정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10일부터 주1회 4번 정기적인 회의를 가진후 올해 말까지 전체적인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한편 본교는 내년도부터 '전산통계학군'에서 신입생을 학군개념으로 모집하고 학내 여론수렴을 통하여 전체학과를 대상으로 학군 또는 계열군으로서 통합을 추진해 96학년도부터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학복위 겨울방학특강실시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임시위원장=강희순·불교4, 이하 학복위)는 동계방학특강으로 어학강좌와 기능강좌를 실시한다.

동계특강은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학우들의 학구성을 고취 △적정수준비용으로 질높은 강의보장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춘 대학인양성에 도움등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강좌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사토익고급강좌=60명정원제, 강사—피터슨, 교재—엘리트 토익, 대상—3·4학년 △시사토익=교재—안박사토익, 강사—김미숙 △시사토플=교재—종합 토플테스트, 강사—권병도 △일본어뱅크초급=교재—일본어뱅크, 강사—안원실 △일본어뱅크회화=교재—일본어뱅크회화, 강사—안원실 △고려원영어순해=교재—영어순해, 강사—김신범 △유니언 영어회화=교재—Success Ⅰ, Ⅱ, Ⅲ, 강사—Native Speaker △ECC 영어회화=강사—Native Speaker △아카데미 토플=강사—송철호 △Graduate English=강사—송대범 △AFKN청취=강사—송강흠 △시스템토익 △거로 VOCA, 토플, Idom 특강 △매킨토시 방중특강 △OA기술 △C언어특강 △편집실무특강 △포너교육 △운전면허특강.

강희순 임시위원장은 "올해 특강은 예전부터 문제시되어온 강사의 질을 높였고 그에 따라 수강료가 인상되었으며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원제 교육을 실시한다"며 "또 강좌수가 증가, 강좌사이의 비교평가가 가능해졌고 다양한 강좌의 개설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의의를 밝혔다.

최법혜교수 역 '율장' 발행

불교 출가교단 규범 담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최법혜(경주불교학과) 교수가 번역한 책 '율장'을 지난 9월 발행했다.

'율장'은 일본의 사토미쯔오가 고려대장경중 율에 관한 부분을 요약한 책으로 불교 출가교단의 여러가지 규범을 담고 있다.

최교수가 2년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번역한 '율장'은 총설편, 비구계편, 비구니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설편에는 율장의 성질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또, 현재 전하고 있는 여섯 종류의 율장과 계본, 그리고 율장연구를 위한 지침서도 소개하고 있다.

비구계편에는 '사분승계본'과 '과거현재칠불계계경'을 번역하고 자세한 역주와 해설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비구니계편에는 사분율에서 '비구니팔중법'과 '사분비구니계본'을 번역하여 비구니계를 내용별로 팔파라이법등 9가지로 나누어서 번역하고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최교수는 "이 책으로 인해 젊은 학인스님들이 '율장'의 올바른 이해로 승단의 자율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총장선거일정 조정 촉구

입시 겹쳐 채점작업 지장줄듯

민주적 총장선출을 위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윤길·노조위원장)는 교수회의 총장후보 선거일정 결정에 대해 선거일정이 '95학년도 입시일정과 중복되어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내년 1월3일부터 5일까지 총장입후보자 등록, 1월15일(일요일)을 선거일로 정하고 지난 15일 이를 발표했는데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이에 대해 선거일이 논술고사 채점기간 중이거나 그 직후가 됨으로써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채점작업에 직간접적인 지장을 초래할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했다.

또한 직원비상대책위원회는 총장선거기간이 입시기간으로 학교행정력이 총동원되는 비상기간이기 때문에 교수회에서 후보자심사, 공청회, 후보자 유세및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된 인원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며,그동안 교수회가 '무리없는 선거일정수행'이라는 이유로 학내구성원들의 총장선출과정 참여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더이상 명분을 갖지 못한다고 밝히고 교수회에 선거 일정의 조정과 민주적 총장선출방식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구내서점 공관위 직영운영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가능

본교 구내서점을 복지사업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배형·경제학 이하 공관위)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다.

공관위 산하 서점운영소위원회는 지난 6월부터 서점운영의 임대와 직영을 검토해 오다가 수익성과 학생들의 혜택을 고려하여 직영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낸것이다.

현재 외부업자가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 만해서점은 93년 9월1일부터 95년 2월28일까지가 계약기간이므로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공관위 직영운영이 실시된다.

공관위는 서점을 도서관의 역할을 보충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관위는 현재 수험생등 빠른 정보가 필요한 사람과 95년 신입생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직영 운영할 수 있도록 만해서점 업자와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구니수행원 입주식

본교 비구니수행원이 지난 토요일(19일) 해광사에서 현판식및 입주식을 가졌다.

본교 재학중인 비구니전원(23명)이 기거하게될 기숙사는 옛 각진선원을 총무원이 매입, 해광사로 바꿔 보수·수리 한것으로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면적 5천6백15평의 부지위에 세워져있고 주지겸 사감은 전호련(불교학)교수이다.

이날 현판식에는 총무원장, 재단이사장의 격려사와 함께 석림회 동문 명예회장 월탄스님, 민병천총장, 전국비구니회(회장=혜춘)교무부장 일법스님의 축사도 있었다.

회·전·무·대

선거여파

○…큰 일일수록 여파가 오래 남는다(?)

차기 총학생회를 이끌어 갈 총학생회장을 뽑는 큰 행사인 총학생회 선거가 끝난 지금 그 여파가 도서관 앞과 대운동장에 남아 있다는데.

도서관 앞에는 유세때 쓰이던 강단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대운동장에도 커다란 플래카드가 여전히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선거도 중요하지만 선거 뒷처리에도 신경을…".

1:1

○…학생회 사업은 이미 끝(?)

지금 각 학생회에 남아 있는 임원수와 그만둔 임원수의 비율은 1:1(?)

엄연히 임기가 내년 초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있는 임원이 그렇게 많지만은 않다는데.

이에따라 실질적인 사업도 이미 끝난지 오래라고.

이에 옛 성인께서 한 말씀 "하다가 마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하니라".

武民정부

○…드디어 문민정부의 참을성이 한계에 도달했는가?

서울경찰청은 극악무도한(?) 폭력시위세력진압을 위해 최첨단 장비를 마련했다는 데.

선진국형 시위문화를 정착시키기위해서라며 새로 마련한 장비는 더욱 길어진 진압봉, 다량의 물대포차량구입, 액화가스 분사기등이라고.

이를 본 회전무대자 왈 "경찰도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는데 이른바 文民정부로 武民정부로 바꿈이 어떠지?"

대학의 주체

○…수강신청을 하려고해도 21학점을 다 채우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는데.

다름아니라 강의시간이 교수위주로 짜여져서 대부분의 교양강의가 전공수업과 겹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 그래서 교양은 잘해야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학우들은 야간강좌로 학점을 보충한다고.

이에 한 학우 "강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한 학교에서 그나마 있는 강의마저 들을 수 없으니, 대학의 주체가 학생맞아요?"

럭키금성의 실제변혁

인사기록부에 학력난이 없다?

학벌,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자격요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학력의 벽"

사원들의 불신과 의심
인간 존중의 경영이 이 인재개발위원회를 통해 전파되고,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많은 징후를 발견하면서도, 그에 못지않게 사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고졸자가 대부분인 기능직 사원들의 반응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과 기능직
"인간 존중의 경영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봐야 뭐, 별수 있습니까? 기능직 사원으로 시작해서 기능직 사원으로 끝날 텐데 ……. 우리한테 인재개발 같은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뭐 월급이나 좀 더 주고, 복지에 더 신경 써 주면 그게 바로 인간 존중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들의 진의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엄청나게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평균 근무년수가 같을 경우 이제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차는 거의 없어졌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사무직보다 나으면 나았지 뒤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능직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물어 보면, '나이도 있고, 자식도 크고 하니 관리자가 되어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얘기이다.

편견은 깨부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해오면서 바위처럼 굳어진 몇 개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나? 대학을 나와야지."
"명문대학 출신이 비명문대학 출신보다는 뭐가 나아도 낫다."
"여사원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타이프나 치고 차 심부름이나 잘하면 되지 …".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비상식적인 상식들을 깨부수어야 한다.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고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면 얼마든지 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될 수 있고, 여사원도 평가를 통해 대외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외국어 실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해외 근무를 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력, 학벌없는 기업
일본의 후지전기에서는 인사자료에 학벌란이 없다. 사장이나 경영자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실력을 객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선입관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 역시 사원들에게 그들의 학벌, 학력,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그리고 자격 요건에 따라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의 경영이며, 이런 풍토에서 신바람이 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자경회장 저〈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94 한국프로야구우승 LG 트윈스

◇평생모은 재산 본교에 기증한 장내순할머니를 만나

"행상보따리 안 해본 장사 없어"

지극한 불심으로 하루 세차례 향불공

"지극한 불심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평소 장내순할머니와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류승철씨는 말한다.

장내순할머니는 그간 갖은 행상으로 마련한 충남 아산군 영인면소재 임야4천평을 지난 18일 본교에 기증했다. 시가로는 12억상당에 달하는 이땅은 불우노인의 거처를 마련고자 했던 것이나 갑작스레 건강이 악화돼 평소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장내순할머니는 종립대학인 본교에 장학금으로 내놓은 것이다.

동국한방병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들고 장학과 관계자와 함께 할머니 혼자 거처하는 조그만 연립주택을 방문했다. 장위동에 위치한 할머니 집을 찾기란 어렵지 않았다. 각종 일간지와 매스컴에 보도된 탓에 장할머니는 동네에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1백원도 깎는 구두쇠 할머니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줄 몰랐다"고 같은 동네 한 아주머니는 얘기한다.

"별로 알릴만한 것도 못되는데 세상에 알려져 부끄럽다."고 말하는 장내순할머니는 그동안 앓아온 지병에다가 이제는 할일을 했다는 안도감에서 몰려온 피로탓인지 더 수척해지고 피곤한 기색이 엿보였다. "보도를 보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이도 많아져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일이 번거롭게 된 것 같다"고 류승철씨는 귀띔해 준다.

"담배장사, 생선·야채장사등 보따리행상으로 안해 본 장사가 없다"고 밝히는 장내순할머니는 "길거리에 버려진 비닐을 모아 팔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위에서는 이런 할머니를 두고 "몸이 아무리 안좋아도 택시 한번 안타고 굳이 버스만 타고 다니는 지독한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30여년간 인연을 맺어온 성북동 수월암에 지금까지도 새벽불공을 거르지 않는 장내순할머니는 하루 세차례 향불공 올리기를 멈추지 않을 정도로 불심이 깊다.

홀로 키워 출가시킨 딸에게 그동안 모은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은데 대해 "현재의 어려운 살림으로 지금당장은 서운한 마음이 들것이나 시간이 흐르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장내순할머니는 말한다.

장학과의 한 관계자는 "할머니병이 완쾌하여 건강하실 때까지 동국한방병원에서 편안히 모시고 싶다"고 학교측의 장할머니에 대한 배려를 약속하며 "힘들게 모은 재산을 장학금으로 선뜻 내놓으신 쉽지않은 결정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밝히는 한편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이니만큼 학생들이 자주 찾아뵙고 말벗이라도 되어 드렸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내순할머니의 앞으로의 여생이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베푼만큼 편안하기를 기원해 본다. (김소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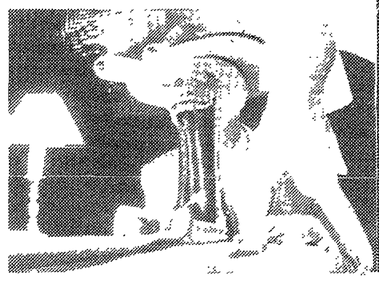
영화의 패러독스

가을 영화계 결산

단편 영화제 통해 기성영화계에 신선한 인력 배출

도피적 오락물 주종이룬 외화비해

한국영화 시류반영 노력 엿보여



9월이후 본격 가을이 시작되고 초겨울을 마감하는 현재까지의 한국 영화계는 긁직한 정치, 사회권의 사건들로 인해 별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인천 북구청 비리와 지존파, 성수대교 붕괴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은 오락보다는 현실을, 예술보다는 지적인 성찰을 더욱 요구하게 되었다.

이번 계절에 선보였던 영화들은 으레 가을시즌이 그러하듯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작품들로 채워졌다. 추석대목을 노리고 개봉한 외화 가운데 '컬러 오브 나이트', '트루 라이즈'등이 많은 관객을 확보했고, 국내영화로는 '태백산맥', '게임의 법칙', '너에게 나를 보낸다' 세 편이 인기를 차지했다.

외화와 한국영화는 많은 정서적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 흥행물은 우리 실정과 무관한 도피적 오락물이 주종을 이루며, 한국 흥행물은 그래도 시류를 반영하려고 꽤나 노력하고 있다는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일례로 외화 가운데 평론가, 학자들에게 좋게 평가되던 '포레스트 검프', '펄프픽션', '내 책상위의 천사', '순수의 시대', '레드'등의 영화를 과연 얼마나 많은 관객이 봐주었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는 영화사의 고전이며 전설적인 영화 '전함 포템킨'과 해외 영화제에서 계속 수상하면서 아시아 영화의 최고봉을 달리는 장예모의 '귀주이야기', 전장장의 '푸른 연'등은 아예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나마 이색적인 소재로 어필하는 대만 영화 '음식남녀'정도만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 셈이다. 이제 우리 관객은 외국영화하면 으레 '한탕 오락영화'라는 기준으로 영화관에 줄을 서게 되었다.

반면 한국영화는 '한국적인 것이 관객을 잡는다'라는 통설을 입증이나 하듯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현실의 강박관념, 긴장감을 오락화해 낸다. 분단 이데올로기 혹은 동족상잔의 컴플렉스, 폭력과 비리의 어두운 세계, 물질향락주의와 포로노에 대한 은밀한 타부관념, 대충 이러한 소재나 배경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 우리 관객은 없을 것이다. 그 질적인 완성도에 대한 평가는 당장에 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 흥행영화들이 대개 현실도피적 오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할만 하다.

단지 우리 영화가 안고 있는 큰 문제점은 제작편수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점이다. 스크린 쿼터제 일수가 축소되면서 더욱 위축될 것은 예상했지만, 이번 가을은 비참한 심정을 갖게 만든다. 뒤늦게나마 젊은 기획자들은 단편 영화제를 통해 기성영화계에 젊고 신선한 영화인력을 내보내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적'의 공윤심의를 둘러싼 낡은 제도와 변화하는 영화와의 싸움은 이제 한국영화의 질적 성장, 수요공급 문제, 심의의기준 등의 적체된 현안이 일개인의 판단에서가 아닌 제도 자체의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다.

이제 다가오는 겨울은 영화계에선 정말 뜨거운 겨울이다. 외화와 한국영화의 본격적인 싸움은 비로소 시작된다. 그 승부는 영화사가 걸어오지만, 결정은 오로지 우리 관객만이 할 수 있다.

정 재 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일본관련서적 '붐', 일본(인) 실체 찾기

일본을 보는 다양한 시각 긍정적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가 그만의 특이한 문체로 이 땅에 상륙한 때는 80년대 후반이었다. '감정을 토로하지 않는' 하루키 문체의 특이성은 쿨(cool)과 드라이(dry)라는 두 개의 형용사로 대표할 수 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지명 등 고유명사를 지워버리면, 사건의 무대가 일본이라 단정하기 힘든 그의 작품을 가리켜 도시소설이라 정의내리기도 한다. 일본적 감상에 젖었던 이전 작가군들과는 확연히 다른, 끈적거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감각적이며 세련된 그의 작품이 번역되어 나오자마자 한국의 젊은이들이 곧 그에게 열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최근 우리 문단에 젊은 작가 몇 사람이 등단했다. 그들은 짧은 호흡의 감각적 문체, 영화를 보는 듯한 속도감있는 빠른 전개를 통하여 삽시간에 자신들의 책을 베스트셀러로 만들었다. '1961년 비틀즈가 탄생했고, 그 해는 내가 태어난 해이기도 하다', '그 해 월남전이 끝났고 헤비메탈의 대표적인 그룹, 레드 제플린이 'Stairway to Heaven'을 부른 해이기도 하다'라는 표현이 간간이 섞여 있는 글을 읽으며, 하루키의 소설을 대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이런 중에 최근 서점가에서는 진귀하다면 진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제껏 학습서적 코너나 경제 및 무역 코너에서 볼 수 있었던 일본책은 최근 교양 및 인문사회 코너로 확산되고 있다. 이들 책들의 공통적인 성격을 '일본론', '일본인론'이라 단정지울 만큼, 일본(인)을 '나름대로'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일본을 이상적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면서도, '절대로 일본한테만은……'이란 의식을 버리지 않는 모순을 스스로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이 땅에서 그나마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려했던 최초의 시도가 80년대 초에 있었다. 근대 이후 최초의 일본인론이라 말할 수 있는 이어령씨의 '축소지향의 일본인'. 나라 안팎에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이 출간된지 십수년 후, 다시 일본(인)에 관한 책들이 붐을 일으킨다.

정치지도자 없는 일본의 콤플렉스를 지적하는 '일본의 빈곤',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고발한 '청산하지 못한 역사'외에 '자르기 지향의 일본인', '일본은 없다', '日本을 망친 9인의 정치가', '일본여자는 죽었다', '일본·일본인', '일본은 있다' 등 일본 관련 서적의 홍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93년 11월, 자신만만하고 배짱두둑하고 직선적인 전여옥이라는 여자가 '일본은 없다'라는 아주 주관적인 책을 발표했다. 이후, 일본관련 서적의 출판 러쉬를 촉발시켰던 이 책은, 그녀가 일본땅에서 개인적으로 체험한 일들을 강한 어조로 쓰고 있다. 그녀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일본여성과 뻣뻣함과 폐쇄성을 간직한 일본인들이, 결코 참된 의미의 국제화를 이루지 못할 민족이라고 주장한다. 그녀 자신이 "절대로…주관적인 글"이라 밝히고 있는만큼, 일본인들을 마음껏 밀어붙인다. 봄햇살을 받으며 한가로이 꽃구경을 하는 그들을, 결코 행복해서는 안될 사람들이라 단언한다.

'일본은 없다'가 출간된 1년 후 이번에는 '일본은 있다'가 나왔다. 일본주재 외교관인 서현섭씨는 근세

말에서 근대 초에 걸친 일본인의 개화의지를 담담하게 서술한다. 특유의 실리성과 호기심으로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네덜란드어와 영어, 불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유럽의 근대화에 자극받아 재빨리 유럽화로 돌아서는 기만함을 단순한 기회주의라 매도할 것인가. 유연성없는 쇄국으로 나라가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 자체도 인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간과할 것인가.

전여옥씨와 서현섭씨는 자신만의 '일본·일본인'을 말한다. 그외 저자들 역시, 자기 나름대로 본 '일본'을 말한다. 하지만 2천년을 눈앞에 둔 지금에서야 우리는 일본인을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수십 개의 일본인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것은 우선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전 단 한번도 그들을 마주보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송 현 아

(대학원 일문과 석사과정 3학기)

메아리

메이커 열풍

▲가격파괴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매값보다 싼 가격으로 생필품 전반에 걸친 신종 판매사업이 호황을 누리며 항간에 화제가 되고 있다. 평균 30%싼값에 물건을 팔게되니 영세 소매점은 물론이고 대형 제조업체마저 주저앉게 될 형편이라는 소식이다. 'P클럽' 'E-마트'등의 이름을 단 이러한 판매업장은 회원제로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인근 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업체가 인기를 끌고있는 요인중 가장 큰 것은 고가의 유명·외국 상품을 혁명이라 할만치 싸게 판다는데 있다. 그중에서도 유난히 잘팔리는, 갖다놓자마자 날개돋힌듯 나가는 물품이 있다고 한다. 바로 '게스'청바지다. ▲7만원 한다는 이 청바지를 2만5천원에 파니 잘 팔릴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며 수요층을 살펴보면 중·고등·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임을 알수있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다닐만한 계층을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을 접어두고 왜 하필 게스인가…하는 의문을 가지고 조금 깊게 들어가다보면 바로 그곳에는 중·고·대학생들의 의식속에 자리잡은 사치문화를 찾게된다. ▲삐삐를 차고다니지 않으면 원시인, 이름있는 청바지를 입지 못하면 남방을 꺼내 입는 유행의 바람이나 메이커 열풍이 문제가 된것은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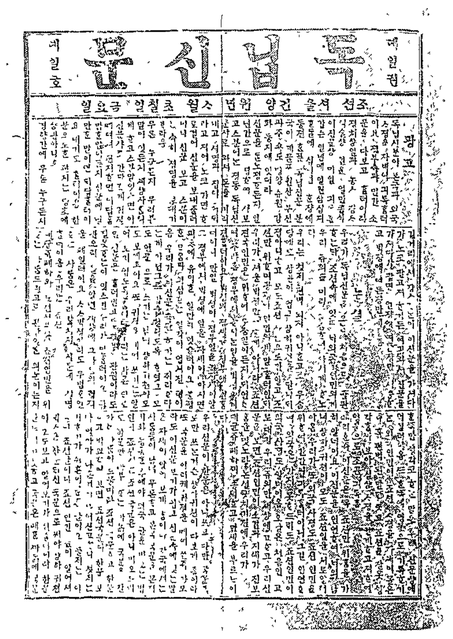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사치문화의 기저에는 '이름값'의 상승효과를 노리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정 유명상표 및 상품에 대한 수요층의 집단구매심리를 자본주의적 특성의 하나로 넘길 수도 있다. '물신숭배'라고 할수도 있다. 그러나 외형의 화려함을 쫓으며 이름만으로 속내를 숨길려 하는 외형의 조건을 찾는 심리가 사회적으로 만연되지 않았는가 의심할 뿐이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제화'를 뛰어넘는 '세계화'구상의 장기계획안 발표를 들으며 그동안 국제화란 미명속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통분담이 민중들에게 고통전담으로 다가온 사실을 상기하며 '세계화'란 이름이 우리에게 다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가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단지 이름값의 상승효과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在)

최 경 인

(60)

중앙일보가 신문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우리나라 최초의 섹션신문,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 경제섹션, 스포츠섹션
중앙일보가 3섹션신문 시대를 열었습니다.

1994년, 중앙일보가 新聞史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풍부한 정보를 싣기 위해 48면으로 증면하고,
원하는 정보를 읽기 편리하게 3개 섹션으로 나누어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는 우리나라 최초의 섹션신문, 중앙일보 –
한국 新聞史의 큰 역사로 남을 중앙일보를 지금 만나 보십시오.

중앙일보는 정보를 드립니다.

종합뉴스섹션
정치, 사회 등 국내외 생생한 뉴스를 전문기자의 깊이있는 분석과 해설로 한차원 높은 정보로 다시 가공한 기사–
중앙일보 종합뉴스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섹션
유통, 산업, 부동산, 국제경제 등 경제관련 정보를 경제전문 기자가 심층 분석하여 알기 쉽게 풀어쓴 기사–
중앙일보 경제섹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섹션
스포츠, 레저, 연예, 방송 등 라이프스타일이 다양한 신세대의 관심사를 꼼꼼히 챙겨 신선함을 안겨 드리는 재미있고 알찬 정보 –
중앙일보 스포츠섹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신문 중앙일보_ 내년 봄부터 아침에 만나십시오

中央日報社